

칠보산람승

칠보산탐승

외국문출판사
조선 · 평양
주체106(2017)년

머리말

오늘 칠보산으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다.

칠보산은 계곡과 수림, 바다가경치가 금강산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함북금강으로 불리워온다.

칠보산의 절경이 어찌나 기묘하고 신비로웠던지 1542년 당시 조선의 문장가였던 림형수는 우연한 기회에 칠보산을 유람하고나서 《천백년 비장되였던 이 명산이 한번 전국에 알려지는 날에는 자연풍경을 즐기는 세상사람들이 지리산을 심상히 여길것이며 금강산이 싫증이 나서 이곳 칠보산을 찾아오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과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이 일대를 정배살이고장으로 여기면서 풍치수려하고 아름다운 칠보산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나 인민들은 여기에 참으로 뜻깊은 생활세태와 풍속이 담긴 많은 전설들을 남기였다.

오랜 세월 그 아름다움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칠보산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자기의 독특한 절승의 자태를 한껏 드러내게 되였다.

조선의 명산 칠보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싶어했던 이곳 인민들의 소망을 헤아려 여러차례 이 산을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이라고, 6대명산의 첫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겠다고 하시면서 칠보산탐승지를 훌륭히 꾸릴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명승 칠보산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특색있게 꾸려지게 되였다.

이 책에서는 칠보산에 찾아오는 수많은 해내외의 관광객들의 탐승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광로정을 따라가며 명승지들을 소개하였으며 아울러 명소마다에 깃들어있는 조선인민의 아름다운 풍속이 담긴 전설적이야기들을 함께 펼치고있다.

차 례

–전 설–

개　관

조선의 동북부에 자리잡고있는 칠보산은 천하절경을 이룬 명승지이다.

푸른 물결 설레이는 조선동해의 기슭에 있는 칠보산은 북쪽의 어랑천, 남쪽의 화대천사이의 250여㎢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다. 이 산은 금이나 진주같은 7가지의 보물을 안고있어 칠보산이라고 불리워졌다고 전해오고있지만 실지로는 산악과 기암, 계곡과 폭포, 담소와 수림, 바다가풍치 등을 다 갖춘 아름답고 보배로운 산이라는데서부터 유래된 이름이다.

칠보산의 류다른 풍치는 웅건한 산악미, 신비로운 계곡미와 함께 바다가풍치까지 겸한데 있다.

천변만화하는 칠보산의 조화는 명산으로서의 특유한 또 하나의 풍경이라고 할수 있다.

이른아침의 짙은 안개가 바다로부터 유유히 골짜기를 따라 꽉 들어찰 때면 금시라도 전설속의 룡궁으로 들어가는듯싶고 산기슭을 누벼가는 띠구름속에 은은히 드러나는 봉우리들은 살아움직이는 거물처럼 먼듯 가까운듯 신비롭게 안겨온다.

칠보산의 골짜기들마다에는 아름다운 폭포, 담소들과 함께 다종다양한 식물상이 펼쳐져있는것으로 하여 색다른 경치를 이루고있으며 철따라, 날씨따라 변화무쌍한 자태를 나타내고있다.

조선의 선조들은 철따라 아름답게 단장되는 칠보산의 경치를 두고 봄이면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록음이 우거진 록음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는 홍아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 불렀다.

칠보산지구의 서북쪽은 해발고가 높은 함경산줄기로 둘러싸여있고 동부는 바다를 끼고있어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

칠보산일대의 년평균기온은 7.4℃이며 년평균강수량은 800mm이다. 이 일대는 구름과 안개끼는 날이 일반적으로 많다.

칠보산은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서식조건으로 하여 다양한 생태환경을 이루고있다.

유네스코 인간 및 생물권계획 국제조정리사회 제26차회의에서는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하였다.

칠보산에는 곰, 너구리, 오소리를 비롯한 39종의 짐승류와 수리부엉이, 티티새, 꾀꼴새를 비롯한 192종의 조류들이 서식하고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짐승류와 조류의 40%이상이 분포되여있는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각종 량서류와 파충류, 곤충류, 민물고기류를 포함하여 270여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해칠보앞바다에는 명태, 문어, 성게, 미역을 비롯한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다.

칠보산에는 800여종이나 되는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고있는데 이것은 함경북도안에서 자라고있는 식물종수의 77%에 해당된다.

칠보산에는 소나무, 이깔나무, 참나무 등 경제적가치가 큰 수십종의 나무들이 있고 산삼, 만삼, 만병초를 비롯한 수십여종의 약용식물들과 잣, 오미자, 머루, 다래와 같은 산열매나무들 그리고 송이버섯, 고비, 고사리 등 수많은 산나물들이 있다.

칠보산에는 개심사약밤나무, 고진소나무, 포중소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 귀중히 보호관리되고있다.

특히 칠보산송이버섯은 특수한 맛과 냄새, 건강을 도모하는 보약재의 효능으로 하여 조선의 80여종의 먹는 버섯가운데서 첫째로 꼽힌다.

주체89(2000)년 추석명절을 계기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에 왔다간 남조선의 수뇌상봉일행과 언론사대표단 성원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행 등에게 칠보산송이버섯을 보내주시였다.

그때 남조선의 각지에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전하는 칠보산송이버섯전설이 생겨나 널리 전해졌다.

남조선언론들은 《맛있다, 칠보산송이버섯》 등의 제목으로 송이버섯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칠보산송이버섯이야말로 특유의 향과 맛, 섬세한 섬유질을 가진 최고식품으로서 내외에 《가을의 미각》이라고 소개될만큼 명품중의 명품이라는것, 칠보산은 《함북의 금강》으로 불리우는 명산이라는것, 북에서는 이미 1976년에 이 산을 자연보호구로 정하였다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

에는 5대명산을 꼽았지만 로동당시대에는 6대명산을 꼽고 칠보산을 단연 첫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는것 등 저저마다 칠보산송이버섯과 칠보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명산은 위인이 있어 더욱 빛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차례 칠보산을 찾으시여 칠보산을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관광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 다.

그이께서는 관광객들이 칠보산의 명소들을 다 볼수 있도록 참관도로와 시설들을 더 잘 갖추어놓으며 개심사를 비롯한 력사유적유물들을 잘 보존하는 등 명승지를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탐승길들과 정각들, 휴양소를 비롯한 시설들이 더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칠보산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원만히 갖추게 되였다.

칠보산에는 조선인민의 재능과 지혜를 보여주는 독특한 민족건축형식을 가진 읍성과 산성, 건물과 무덤, 비, 부도 등 력사유적과 유물이 적지 않다.

칠보산은 경치가 아름다운데다가 봉우리마다, 명소마다에 구수하고 흥미있는 전설들이 깃들어있어 탐승길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낼수 있다. 그리고 황진온천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온천이 있고 칠보산휴양소가 잘 꾸려져있어 관광객들의 즐거운 문화휴양지로 되고있다.

칠보산의 명승은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지역으로 갈라지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하면 내칠보는 4개, 외칠보는 7개, 해칠보는 5개 모두 16개의 명승구역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칠보산의 명승구역에 대한 탐승은 명천역에서 뻐스를 타고 명천읍을 지나 박달령을 넘어 칠보산휴양소에 이르러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의 순서로 진행할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어대진항이나 청진항에서 배를 타고 해칠보를 먼저 유람하고 외칠보, 내칠보를 탐승할수도 있다.

칠보산을 탐승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수 없는 자기 고유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절승경개를 부감하면서 온 심신에 흘러드는 명약과 같은 청신한 공기를 한껏 호흡하게 될것이며 명소마다에 깃들어있는 흥미있는 전설들을 새겨보며 평생 잊을수 없는 희열에 도취되게 될것이다.


안내도



내칠보

내칠보는 칠보산지역안에서 내륙쪽에 펼쳐진 명승구이다.

높은 산들로 둘러막힌 내칠보는 산줄기들이 짧고 계곡들이 깊지 않아 참관하기에 알맞춤한 지형으로 되고있다. 내칠보의 중심에는 천불이 내려앉아 굳어졌다는 천불봉이 자리잡고있다.

천불봉을 중심으로 기묘하게 솟아난 봉우리들마다에는 사람, 짐승, 건물, 잡화 등의 형태를 이룬 바위들이 아기자기하게 솟아 특색있는 경치를 펼치고있으며 예로부터 내칠보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녀성적미를 가졌다고 일러오고있다.

내칠보는 개심사구역, 상매봉구역, 내원구역, 이선암구역으로 나뉘여져있으며 매 명승구역들을 련결하는 관광도로, 등산길들이 훌륭하게 닦아져 관광의 편리를 보장하고있다.

개심사구역

개심사구역은 개심다리로부터 남쪽으로 한덕, 옥태봉, 세존봉, 동쪽으로 가게봉, 북쪽으로 금강골어구에 이르는 내칠보의 명승구역이다. 개심사구역에는 금강골, 수도암골, 청계골 등의 그리 깊지 않은 골들이 나있고 천불봉을 중심으로 명소들이 집중되여있다.

내칠보의 개심사구역으로 가려면 아흔아홉굽이나 되는 박달령을 넘어야 하는데 이 령을 넘기 전에 칠보산의 경치를 맨



흰바위

먼저 알리는 명소가 바로 흰바위이다.

10～15m 높이의 흰 바위들이 동서 200m 구간에 톱날같이 한줄로 우뚝우뚝 솟아있는 모양은 사계절 언제나 흰눈이 쌓여있는듯 하다. 그래서 바위이름을 흰바위라고 한다.

흰바위를 바라보며 박달령을 넘어가면 개심사구역으로 들어가는 청계골의 개심다리에 이르게 된다.

환희재

환희재는 개심사로 올라가는 첫 입구에 말잔등같이 휘우듬이 누워있는 등마루이다.

환희재에 올라서서 동쪽을 바라보면 우뚝 솟은 통바위산들이 첫눈에 안겨온다.

누구나 이 웅장한 경치를 보고는 《야, 멋있구나!》하는 환성이 저절로 터져나온다고 하여 환희재라고 부른다.

환호암

환호암은 환희재의 북쪽 산릉선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들의 모양은 마치 내칠보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렬같이 보인다.

북쪽으로 처음 보이는 바위는 힘겨운 짐을 안은것 같고 다음은 키가 큰 장정같으며 그 다음은 몸이 약한 아이를 형상한것 같다.

내칠보가 세상절경이라는 소문을 듣고 머나먼 길을 걸어온 일행이 산마루에 올라서서 내칠보의 절경을 굽어보고는 환성을 올리다가 그만 바위로 굳어진것 같다고 하여 바위이름도 환호암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옛날에 환호암아래의 청계골에 자그마한 마을이 자리잡고있었는데 이곳에는 칠보산의 녀인도 숙녀중의 제일가는 숙녀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전설-

칠보산의 녀인도 숙녀중의 제일가는 숙녀

옛날 청계골에 아릿다운 젊은 기생이 작은 술집을 차려놓고 칠보산을 찾는 유람객들을 맞고 보내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칠보산유람을 왔다는 젊은 량반 셋이 이곳에 들리였다. 그들은 말쑥한 술집녀인의 자태에 눈길이 끌리여 어떻게 하면 한밤을 즐겨보내겠는가 제가끔 속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일행이 셋씩인데다가 다 같은 속심을 가지고있다보니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다른 량반들을 떼버릴것인가를 생각하던 한 량반이 자기는 당장 내칠보로 가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두 량반도 각각 외칠보로, 해칠보로 가겠다고 일어났다.

내칠보로 가겠다던 량반은 먼저 가는척 하며 집뒤로 돌아가 지붕우로 올라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폈다.

그런데 해칠보구경을 가겠다던 사람이 《아이구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하면서 되돌아오는것이였다.

술집녀인이 왜 그런가고 물어보니 고뿔에 걸린것 같다는것이였다.

《고뿔에는 송이버섯이 명약이라 해칠보로 가는 길에 몇송이 뜯어 코밑에 대고 걸어가느라면 뚝 떨어질것이오이다.》라고 술집녀인이 말하였다.

이때 외칠보로 간다던 량반이 헛기침을 하며 또 나타났다.

그는 물통에 물을 넣고 가는것을 잊었다는것이였다.

그러자 녀인은 《별걱정을 하시오이다. 기암괴석이 있는 봉마다 굴이 있고 굴이 있는 곳마다에 샘이 나온다는것을 잊으셨군요.》 하고 일러주었다.

지붕우의 량반은 뛰는 놈우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뛰여내렸다.

세 량반의 심중을 알게 된 녀인은 누가 마음에 든다고 시비할것없이 자기가 내놓은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수자를 들어 이어진 말을 만들라고 하였다.

얼마간의 동안이 지났으나 누구 하나 대답을 하지 못하자 녀인은 어렵지 않게 말을 만들어 엮어나갔다.

《하나도 아니시고
둘도 아니신 여러분들이
삼월도 다 지나고
사월이 다가오는 화창한 봄날에
오장만이 아니라
륙부도 건강하시다면
칠보산구경이나 할것이지
팔자사나운 이 녀인의
구멍에만 침을 흘리면서
열어보겠다고 싱갱이질하니
참으로 될노릇이오이까.》

이 말을 들은 세 량반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녀인이 시키는대로 다같이 칠보산을 구경하려 떠났다.

세 량반은 돌아가는 길에 다시 술집에 찾아와 그 녀인과의 작별인사속에 이런 말을 남기였다고 한다.

《칠보산은 이 나라의 명산중의 명산이거니와 칠보산의 녀인도 숙녀중의 제일가는 숙녀로다.》

보탁암

보탁암은 환희재에서 동남쪽의 작은 골짜기를 따라 얼마쯤 가다가 그 동북쪽 산말기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는 마치 기묘하고 진기하게 생긴 보물을 보란듯이 탁상우에 올려놓은것 같다.

이 바위에는 사람이 물욕에 빠지면 돌덩이도 금덩이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다.

-전설-

남편의 버릇을 떼여준 안 해

먼 옛날이였다. 어느날 물욕에 눈이 어두운 한사람이 칠보산구경을 왔다.

그가 탁상우에 보물이 놓인듯 한것을 보고 길가는 사람에게 저것이 웬거냐고 물으니 그것은 칠보의 보물을 올려놓은 보탁암이라는것이였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구경도 다 집어치우고 밤새 보탁암에 올라 《보물》을 훔쳐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안해에게 보물덩이를 얻어왔다고 자랑하였다.

안해가 남편이 내놓는 보물이란것을 보니 보통 돌이였다. 늘 남편의 일에 속을 썩이던 안해는 기가 막히였다.

(어떻게 하면 저 버릇을 떼준담?)

그러던 안해는 문득 한 꾀를 생각해내였다.

부처를 하느님처럼 믿는 남편의 앞에 마주앉은 안해는 눈물을 떨구며 《이제 우리는 부처한테 죄를 지었으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겠나요?》 하며 탄식하였다.

안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뒤가 켕기였다. 부처가 정말 노하여 자기에게 벌을 내릴것 같았던것이다.

(부처님께 시주는 못할망정 시주한 보물을 훔쳐오다니…)

겁이 더럭 난 남편은 그날 밤으로 그 돌을 지고가서 제자리에 놓았다고 한다. 그후 남편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

개심사

내칠보의 보탁산에 자리잡고 있는 개심사는 발해시기(698년-926년)인 826년에 세워졌다. 그후 여러차례 개건보수되였다.

국보유적으로 등록되여있는 개심사는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심검당, 응향각, 만세루, 관음전, 산신각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심사에는 불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들이 보존되여있다.

그가운데는 박달나무목탁도 있다. 옛날 중들의 손때가 묻

은 목탁은 두드려보면 묘한 소리가 난다.

또한 개심사에는 그 어느 절간에서도 볼수 없는 특색있는 절구가 있다. 나무를 깎아 사자형태로 만든 사자절구이다.

개심사의 주변에는 옛날 불교와 관련한 비와 부도가 있다.

보탁암에서 500m가량 떨어져 개심사로 오르는 길에 비석이 놓여있다.

말을 타고오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내려야 한다는 표식비라고 하여 후세사람들이 이 비를 하마비라고 하였다.

하마비를 지나 길 오른쪽에 옛날 중의 무덤인 부도가 있다. 3개의 부도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탑모양으로 되여있다.

-전설-

사 자 절 구

둥글게 생긴 사자의 등가운데에 쌀을 넣는 구멍이 있고 거기에 절구공이가 놓여있다.

둥근 엉뎅이의 끝에는 작고 뾰족한 꼬리가 묘하게 달려있다.

이 사자절구는 옛날 이 절간의 중들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녀인들을 위해 만들어놓은것이라고 한다.

이곳 중들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녀인들에게 시주쌀은 반드시 사자절구에 넣고 아흔아홉번을 찧어바쳐야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녀인들이 사자등에 올라타고 절



개 심 사

구질을 쿵쿵 하느라면 나무사자가 울린다. 그러면 몇번 절구질에 녀인들이 미끄러져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자꼬리가 녀인의 밑을 자극하게 되여있다.

이렇게 미끄러졌다 올라앉았다 하며 아흔아홉번 절구질을 하고나면 절구질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자의 울림과 사자꼬리의 자극으로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하여진다. 이런 때를 기다려 중이 볼장을 보고 이후 태기가 있으면 부처님이 점지해준 덕분이라고 하였다는것이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흥미삼아 절구질을 해보고나서 이 절구는 의학박사도 감히 생각해낼수 없는 훌륭한 《부인과치료기구》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천불봉

천불봉은 내칠보의 중심에 거연히 솟은 봉우리로서 높이는 해발 659m이다.

천불봉을 중심으로 만사봉, 종각봉, 라한암, 원숭이바위 등 봉우리와 바위들이 한데 어울려 그 위용을 돋구어주고있다.

천불봉, 만사봉, 종각봉, 라한봉, 로적봉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5봉에는 천불신이 이곳에 내려와 절간을 짓고 5봉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전설-

새로 솟아난 봉우리들

머나먼 옛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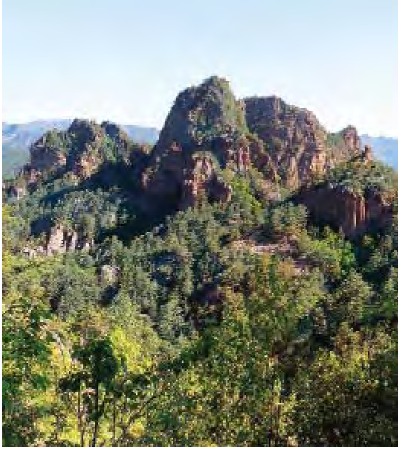
칠보산의 서쪽하늘에 무수한 오룡차들이 날아오고있었다.

해동성국의 칠보산이 천하명승이라는 소문을 들은 천불이 탄 행차였다.

천상의 부처들이 칠보산에 내려와보니 세상에 더없는 명승일뿐아니라 자기들이 거처할 명당자리였다. 그런데 절간이 없는것이 문제였다.

천불은 봉우리의 곳곳에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의논하였다.

떠나자니 세상 어디에 이런 자리가 없을것 같고 그냥 있자니 부처들



천 불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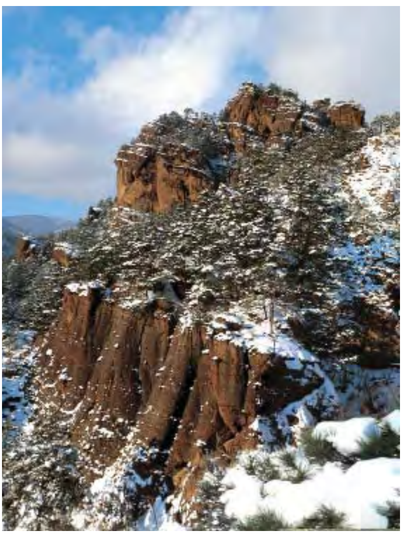
을 안치할 절간이 없으니 야단이였다. 이렁저렁 날도 저물어 밤이 되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고 섬광이 일더니 무엇인가 우줄우줄 솟아나는것이였다.

눈깜빡할사이에 천불이 들고도 남을 만개의 절간이 솟아났던것이다.

천불은 너무 좋아 이제는 이곳에 눌러있어도 되리라 생각하였지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또 생기였다. 그것은 누가 불공미를 걷어들이는가 하는것이였다.

천불이 걱정을 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하얀 구름떼가 몰려오더니 부처의 제자들인 500명의 라한들이 구름수레를 타고 천불의 곁에 내려



만 사 봉

않는것이였다.

500명의 라한들은 다음날부터 팔도강산을 다니며 불공미를 걷어들이였는데 그것은 잠간사이에 큰 로적가리가 되였다.

천불신은 이 경사를 세상에 알리고싶었다.

(세상을 울리는 커다란 종이 있었으면…)

천불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커다란 종이 서서히 내려오더니 산마루에 걸리였다.

천불신은 너무 기뻐 종을 울리며 웨쳤다.

《해동성국의 칠보산에 천불봉, 만사봉, 라한봉, 로적봉, 종각봉이 솟아났다.》

이 이야기는 지난날 중들이 불교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낸것이지만 칠보산의 봉우리가 그처럼 기묘하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여주는 전설이다.

부부바위

높이가 15m인 두 바위가 서로 맞붙어있는데 그 형상이 아주 신통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서쪽바위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남자처럼 보이고 동쪽바위는 날씬한 키에 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자와 같이 보인

다. 그것은 마치 오래동안 헤여졌던 부부가 서로 만나 기쁨에 겨워 얼싸안은것 같다. 그래서 바위이름을 부부바위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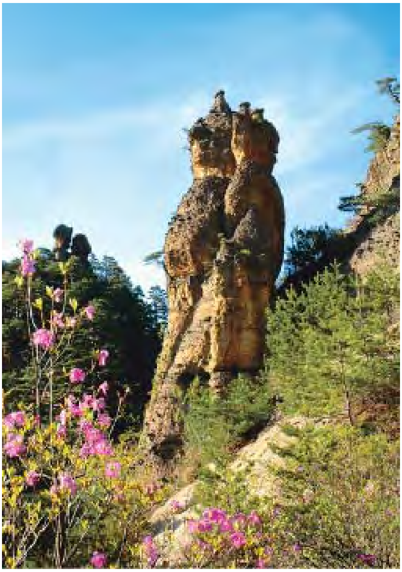
부부바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맞붙은 얼굴은 남녀간이 볼을 비비는것 같기도 하고 입을 맞추는것 같기도 한데 남자의 아래도리를 휘감고있는 녀자의 끄리치마속에 감추어진 두손들은 서로 그 무엇을 그리워하는것 같다.

웃음을 자아내는 그 모습에 또 하나의 신비함을 더해주는 것은 진달래가 활짝 피여나는 때이다.

녀자의 머리우에는 한떨기의 진달래가 소담하게 자라고있어 연분홍색 꽃잎이 탐스럽게 만발한 모습이 마치도 시집가는 색시가 보석족두리를 쓴것같이 보이는것이다.

어떻게 되여 이런 산중에 저런 묘한 바위가 생겨나게 되였는지.

이 바위에는 남편과 안해가 상봉의 기쁨을 나누다가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부부바위

-전설-

상봉의 기쁨

오랜 옛날 내원골에는 일 잘하고 부지런한 총각이 살고있었는데 살림이 어려운탓에 늦게야 장가를 들었다.

마음씨 곱고 예쁘게 생긴 동네처녀와 백년가약을 맺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라의 북쪽변방에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들은 재미나는 신혼생활을 하고있었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편은 전장으로 나갈 결

심을 가지고 집을 떠나갔다.

홀로 남은 안해는 남편이 잘 싸우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과 같이 기다리였다.

어느덧 7년세월이 흘러 드디여 기다리고기다리던 남편이 장수가 되여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안해는 더없이 기뻤다.

그러나 람루한 옷차림이 마음에 걸리였다.

이때였다. 하늘가에 칠색령롱한 무지개가 걸리더니 아름다운 선녀가 사뿐히 내려섰다.

선녀는 안해의 앞에 와 절을 한 다음 비단옷을 안겨주고 도로 무지개를 타고 올라가는것이였다.

안해는 꿈을 꾸는것 같았다. 옷을 입고 거울에 비쳐보니 자기도 꼭 선녀같았다.

(이제는 랑군님을 떳떳이 마중할수 있겠구나.)

안해는 승전하고 개선하는 남편을 마중하러 한달음에 라한암이 있는 릉선에까지 달려갔는데 장수옷을 떨쳐입은 남편이 마주 걸어오고있었다.

남편과 안해는 그립던 정이 폭발되여 서로 힘껏 그러안았다.

바로 이러한 때 저희들뿐이라고 마음놓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던 그들 부부의 눈에 개선장수를 축하해주려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각봉에 올라 굽어보는것이 눈에 띄이였다.

《어마나, 이 일을 어쩌나!》

너무도 부끄러워 서있은것이 그대로 부부바위로 굳어졌다는것이다.

원숭이바위

원숭이바위는 천불봉의 남쪽에 위치한 바위로서 승선대에서 그 모습을 잘 볼수 있다.

원숭이가 턱을 고이고 무엇인가 생각하는것 같이 생긴 바위라고 하여 원숭이바위로 불리운다.

승선대

승선대는 금강봉의 북쪽기슭에 있는 바위전망대이다.

옛날에 칠보산의 풍치가 하도 좋아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서 놀다가 이곳 바위우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군 하였다고 하여 승선대라고 부른다.

승선대에 올라 내칠보를 부감하노라면 금강골 동쪽과 서북쪽 산줄기에 우뚝우뚝 줄지어 솟아있는 기기묘묘한 온갖 형태의 바위들로 하여 사람들은 저절로 탄성을 올리게 된다.



금 강 대

금강봉

금강봉은 승선대의 남쪽으로 1㎞ 남짓이 떨어진 곳에 있다. 높이가 642m인 금강봉은 상대, 중대, 하대로 되여있다.

상대에 올라서면 마치 하늘중천에 오른듯 내칠보전경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다.

금강봉은 알카리성조면암과 류문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봉우리로서 그 호방한 기상과 기묘한 자태로 하여 예로부터 제일명산이라고 불리워온다.

밑부분은 누런색을 띠고 점차 오르면서 웃부분에서 분홍색을 나타내여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듯 하다.

금강봉은 화산분출암상이 뚜렷하기때문에 화산분출과정과 풍화작용을 연구하는데서 가치가 있으므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있다.

금강봉의 하대를 금강대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천하미인암과 동자암이 있다.



종각봉에서 본 금강봉의 설경

천하미인암

천하미인암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천하에 못생긴 바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세상 못생긴 이 바위에 미인이란 이름이 붙게 되였는지…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있다.

17세기의 문인인 남구만이 칠보산에 와서 중의 안내를 받아 금강봉에 올랐을 때였다.

중은 모든 기암들을 다 설명하였는데 한 바위만은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것이였다.

남구만이 《왜 저 바위의 해설은 없는가?》라고 물으니 중은 바위가 워낙 모양새없기에 이름을 못가졌다고 하는것이였다.

남구만이 《어허, 그럴수 없소. 저 바위가 만일 지각이 있다면 얼마나 섭섭해했겠소. 아마 울기까지 했을거요.》라고 하였다.

《그래도 모양없는거야 어찌하겠소이까.》

중도 막무가내였다.

문인이 다시 《속담에 미운 놈 떡 한개 더 주란다고 〈천하미인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줍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은 《그러고보니 저 바위꼭대기에 올라앉아있는 바위가 미인같이 보이오이다.》라고 만족해하였다는것이다.

이리하여 이름없던 바위가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고 한다.

비석암

비석암은 금강봉에서 동쪽경사면 탐승길을 따라 약 100m쯤 가서 길 오른쪽 산중턱에 있는 높이가 십여m인 바위이다.

마치 키큰 사나이가 쩍 벌어진 어깨우에 도포를 걸치고 돌아서있는듯 한 모양이다.

금강굴

금강굴은 비석암을 본 곳에서 경사진 길을 따라 400m 아래로 내려가서 있는 자연바위동굴이다.

산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비물이 한데 모여내리는 물깎임작용으로 생겨난 바위굴의 크기는 너비 12m, 길이 8m, 높이 2.5m이다.

굴안굽이에는 의자모양으로 된 바위턱이 있어 여기에 걸터앉아 다리쉼도 하며 휴식을 할수 있다.

더구나 굴어구에는 맑은 물이 샘솟는 샘터가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갈증을 덜어준다.

굴의 입구곁에는 늘 축축히 젖어있는 너럭바위가 있다.

높은 산정우에 놓여있는 바위는 매우 심한 왕가물로 하여 칠보산의 초목들이 타들 때에도 전혀 마를줄 모른다.

회상대

회상대는 금강굴에서 동쪽으로 80m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전망대이다. 회상대는 이 대에 올라서면 기암명소들을 둘러보기에 좋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회상대는 말그대로 천태만상의 자연풍치가 한곳에 모여드는 전망대로서 이곳에 올라서면 동서남북의 아름다운 경치가 손금보듯이 한눈에 안겨온다. 특히 회상대에서 바라보는 가을의 풍경은 말로는 다 형언키 어렵다.

연적암

연적암은 회상대의 남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연적모양을 가진 바위가 높이 5m나 되는 원추형바위꼭대기에 놓여있다.

연적암을 밑에서 올려다보면 원추우에 망돌만 한 돌을 올려놓은듯 하다.



연 적 암

내경대

내경대는 금강봉의 북쪽, 천불봉의 동쪽켠에 자리잡고있는 바위전망대이다.

내경대는 모든 기암, 명소들을 사면팔방으로 볼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 이로부터 이곳을 내경대라고 부른다.

내경대에서는 승선대에서 멀리로 보던것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므로 보는 맛이 새로워진다. 내경대의 동북쪽은 아찔한 절벽이 하늘높이 솟아올라있다.



내경대의 설경

개심사에서는 단순히 보이던 천불봉뒤면도 수만갈래의 바위들이 솟아 하늘을 떠받들고있는듯 한 웅장한 산악미를 펼치고있다.

구룡담

구룡담은 내경대아래의 금강골에 있는 담소이다.

옛날에 9마리의 룡이 살았다고 하여 구룡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룡담에는 옛날 효성이 지극한 원심이라는 소년이 9마리 룡의 위협을 물리치고 마침내 산삼을 캐는데 성공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

금강골에서 산삼을 캔 소년

아득한 옛날 내칠보의 로적골에는 원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다. 그의 집은 이 골안에서 대대로 숯구이를 하며 살아온 가난한 가정이였다.

아버지도 숯구이로 한생을 검뎅이로 온몸을 매닥질하며 숯가마를 헐고 쌓고 하는 일로 보내였다. 다 해진 베옷이나마 갈아입고 골안을 벗어나는 때는 보촌에 사는 선주네집에 구운 숯을 져나르는 날이였다.

원심의 아버지는 숯짐을 한짐 힘껏 져다가 선주네 안마당에 부려주

고는 몇푼의 돈을 받았고 그것으로 물고기 몇마리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그런날 저녁이면 온 집안이 명절처럼 흥성거리였다.

원심에게는 손우의 누이들이 3명 있었다. 그러므로 원심은 외아들로서 어머니도 누이들도 아버지 다음가는 집안기둥으로 대해주고 위해주었다. 원심이는 그만큼 아버지의 일손을 힘껏 거들어주었다.

그런데 노랑조밥이나마 떨구지 않으며 단란하게 지내던 원심이의 가정에 불행이 겹치게 되였다.

원심이가 12살 잡히던 봄에 그의 아버지는 숯검뎅이먼지를 많이 마시며 한생을 늙어온탓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앓다가 50살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자리에 몸져눕게 되였다.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전신이 허약해진데다가 심한 상심에 의하여 쓰러지게 되였다고 하였다. 원심의 누이들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위로도 하고 시중을 들며 산에서 맛나는 생신한 나물을 뜯어다 식찬을 만들어 대접하였다.

원심은 숯가마를 도맡아보면서 짬을 내여 바다가마을인 보촌으로 내려가 숯을 넘겨주고 물고기를 구해다 어머니의 입맛을 돋구어주려고 마음을 썼다. 자식들이 효성을 다해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져갔다.

이때 마을의 좌상벌 되는 로인이 일러주는 말이 산삼을 쓰면 어머니를 구할수 있을것 같다면서 몇해전 심원골에 사는 로인이 산삼을 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한테 찾아가보라는것이였다.

원심은 다음날 산삼을 캔 일이 있다는 심원골로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원심으로부터 어머니의 병세와 산삼을 캐고싶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난 로인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참, 어머니의 병이 심한 모양이구나. 허약한데야 산삼이상 명약이 없지. 하기에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도 500명의 동남동녀(소년, 소녀)를 조선의 삼신산에 보내여 장생불로초를 뜯어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바로 옛날 사람들이 말해온 장생불로초란 곧 조선의 산삼을 의미하는거란다.

조선의 산삼가운데는 칠보산과 같은 명산에서 나는 산삼이 더 유명하지. 글쎄 내가 몇해전 금강골막바지의 벼랑턱우에서 산삼을 얻은 일이 있기는 한데 네가 효성이 지극하고 결심이 굳거들랑 한번 들어가보거라…》

원심소년은 그달음으로 나무꼬챙이와 주먹밥을 준비해가지고 금강골로 들어갔다. 때는 가을이라 만사봉

과 천불봉의 산허리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였다. 깊은 골짜기를 뒤덮은 참나무와 사스레나무잎들도 이미 누르끄레해지면서 가을바람이 불어칠 때마다 조용히 한잎두잎 땅우에 떨어지고있었다.

이른 가을철은 산삼을 캐기 좋은 계절이다. 이맘때면 산삼열매가 꽃처럼 빨갛게 맺혀 진한 록색의 삼잎을 배경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므로 깊은 풀숲에서도 찾아내기가 비교적 쉽기때문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산삼은 령약이기때문에 산신령이 혜택을 베풀어 내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심소년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기특히 여겨서라도 산신령이 자기에게 산삼을 내여주리라고 굳게 믿고싶었다. 그는 다래와 머루넝쿨을 헤치며 깊은 골짜기를 따라 계속 들어갔다.

키높은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하늘을 덮은 깊은 수림속에 들어서니 갑자기 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깎아지른듯 한 벼랑우에서 비단필을 드리운듯 한 큰 폭포가 물안개를 일으키며 떨어지는것이 보이였다.

폭포가 떨어지는 절벽밑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둥그스럼한 큰 못이 있었다.

검푸른 물이 소용돌이치며 빙빙 돌고있는 못은 신비스럽게 보이였다. 원심은 통쾌하게 떨어지는 폭포의 장관에 정신이 팔려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이때였다.

소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듯이 꾸르륵-꾸르륵- 소리를 내며 거품이 일더니 기둥같은 시꺼먼것이 불쑥 수면우에 솟아오르는것이였다. 자세히 보니 아홉마리의 룡이 저마끔 사나운 위세를 자랑하듯이 대가리를 솟구며 휘두르는것이였다.

원심의 가슴은 놀라움과 무서움으로 하여 금시 꽁꽁 얼어붙는듯하였다.

퉁방울같은 눈, 험상궂게 두드러진 이마우에 불길처럼 솟아있는 뿔, 검푸른 무늬가 어룸어룸하게 휘감겨있는 모가지, 거무틱틱한 잔등에 덮여있는 큰 쪼각의 비늘, 참으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였다.

《너는 어떤 아이이기에 이 심산속에 들어왔느냐?》

맨 형벌 되는 수염이 난 큰 룡이 묻는 말이다.

《예, 저는 로적골에 사는 아이인데 병환으로 죽게 된 어머니를 살리려고 산삼을 구하러 들어왔사와요.》

원심은 두려움과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으흠, 네 그 효성은 기특하다

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형적을 보이지 않고 이곳에서 도를 닦다가 이제 100날이 다 되여 하늘로 날아오르려던 때에 네가 나타나 우리를 알아보게 되였으니 우리 일의 성사를 위하여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큰 룡은 창날같은 허연 이발과 서너발 되는 긴 혀를 드러내보이면서 말했다.

《저를 잡아먹으면 안되오이다. 제 한몸 죽는것은 무섭지 않사오나 제가 산삼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를 살리지 못하게 되오이다. 저와 우리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여 제발 살려주기 바라오이다.》

원심은 흐느껴 울면서 애원하였다.

아홉마리 룡들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큰 눈알을 데굴데굴 굴리면서 한동안 저들끼리 마주보는것이였다.

《너의 효성은 참으로 지극하고 너의 집형편도 가긍하니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그러되 우리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까지 사흘간 저 앞쪽의 벼랑길로 외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거라.》

이렇게 말을 마친 아홉마리 룡들은 울찌럭울찌럭 큰 물소리를 내더니 못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원심은 사나운 룡의 엄명인지라 하는수없이 앞서 톺아오른 절벽길에 나무잎을 한아름 안아다 깔아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다리를 펴고앉아 싸가지고온 주먹밥으로 요기를 하면서 망을 보았다.

사흘째 되는 아침이였다.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지고 땅이 깨지는듯 한 우뢰소리가 나더니 못으로부터 아홉마리의 검은 기둥같은 룡들이 하늘로 솟구쳐올라 구름속에 휘말려 사라지는것이였다.

얼마후 하늘을 덮었던 구름도 걷히고 푸른 하늘에서는 따스한 가을해빛이 황황히 쏟아져내려 금강골을 밝게 비치였다.

원심은 위험이 사라졌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폭포밑의 소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보니 구슬같이 맑은 물이 해빛을 받아 어른어른 금빛무늬를 수놓으며 찰랑찰랑 넘쳐흐르고 있었다.

원심은 다시 벼랑길을 톺아 폭포우로 올라갔다. 키높은 소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던지고있는 훤한 공지가 보이였다. 공지우에는 금잔디가 주단처럼 깔려있었다. 소년의 머리에는 이런 양지바르면서도 그늘진 호젓한 곳에 산삼이 자랄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원심이 산삼이 어디에 있는가 하여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는데 저편 소나무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머리를 들어보니 빨간모자를 쓴 키가 자그마한 사내아이가 이편을

보고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는것이였다.

《너는 무엇을 찾고있니?》

사내아이가 먼저 건네는 말이였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산삼을 캐러 왔어.》

《얘야, 산삼은 후에 내가 찾아줄게 날씨도 좋은데 씨름이나 해보자. 그런데 네가 나를 이겨야지 삼을 찾아주지 지면 이곳에서 삼을 얻을 생각을 말어라.》

《흥, 너는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인데 나한테 씨름을 거는거냐, 꼬맹이녀석이 재수없이.》

《호호, 나는 아름다운 칠보산을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간다. 글쎄 산삼을 찾으려거던 나를 멨다꼰져봐.》

원심은 자기보다 머리 하나 작은 조무래기가 힘내기를 걸어오는것이 어이없기도 하였으나 산삼을 얻을수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들어 씨름을 해보기로 하였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빨간모자소년의 허리띠와 허벅다리를 거머쥐였다. 그러나 보기와는 달랐다.

빨간모자소년은 비록 체통은 자기보다 작고 팔다리도 가늘었으나 참나무처럼 딴딴하고 굳었다.

원심은 배에 힘을 주어 빨간모자소년을 배지개로 공중 떴다. 그러나 빨간모자소년이 살짝 몸을 옆으로 틀면서 안걸이를 거는 바람에 펄썩 궁둥방아를 찧고말았다.

《해해, 그것 보지. 나를 깔보니까 지는거야.》

빨간모자소년은 키도 몸집도 큰 원심이 깔리는것이 우습다는듯이 배를 그러쥐고 웃더니 진것이 아쉽거든 한번 더 겨루어보자고 하였다.

원심은 그의 말대로 상대를 깔볼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면서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달라붙었다.

원심은 허리를 버티고있다가 바른다리로 상대의 무릎뒤를 걸면서 허리를 힘껏 당기며 꺾었다. 빨간모자소년은 끙끙 안깐힘을 쓰며 버티여보려다가 뒤로 미끄러지며 넘어갔다.

그런데 빨간모자소년이 넘어지는 순간 그는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졌다.

원심은 너무도 신기하여 그를 깔며 어푸러진 잔디우를 살펴보았다.

바툼하게 자란 잔디속에 진한 록색의 둥근잎을 펴고 긴 꽃가지우에 빨간 방울같은 열매를 달고 단정하게 서있는 산삼이 보이였다.

《아－ 산삼이구나.》

원심소년은 환성을 지르며 조심히 두손으로 산삼의 열매를 모두어쥐고 자기 볼에 가져다 대보았다. 싱그럽고 향긋한 산삼의 향기가 페부로 스며들었다. 원심은 산삼을 얻어

어머니를 살릴수 있게 되였다는 가슴 뻐근한 기쁨을 안고 삼을 캐서 보짐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정성껏 산삼을 달여서 드렸더니 그토록 중병에 걸려 운신을 못하던 어머니는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원심소년의 지극한 효성에 의하여 어머니의 병은 대번에 나아 90을 넘길 때까지 장수하였고 원심이도 안해를 맞아 자식들을 두고 로적골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대모암

대모암은 내경대의 남쪽에 있는 큰 바위이다.

애기를 업은 녀인이 큰 보따리를 이고 강가로 내려가는듯 한 모습이므로 대모암이라고 한다.



대 모 암

보살암

보살암은 대모암뒤로 보이는 바위이다. 그 보살은 동자보살인데 길다란 얼굴에 우묵한 눈, 들창코와 조개턱 등은 참으로 흉하게도 생겼다.

떡바위

떡바위는 내경대 남쪽에 있는 금강골에 뚝 떨어져있는 바위이다. 누르스름한 바위색갈에 잘다란 차돌까지 박혀있어 메가 섞인 조찰떡같다.

바위모양도 마치 떡을 너무 많이 무져놓아 무른 떡이 사방으로 삐여져나온것 같은데 떡무지우에는 몇개의 꼬장떡까지 얹어놓은것 같다.

참말로 떡바위라고 할만 한 이 기묘한 바위에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떡속에 묻힌 만부자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전설-

떡속에 묻힌 만부자

옛날 어랑마을에 만씨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있었는데 그는 무서운 린색한이였다.

부자는 떡과 고기를 남달리 좋아

하였으나 떡을 치느라면 떡구유와 떡메, 밥주걱, 그릇 지어는 저가락과 이발에까지 묻어나 실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것은 얼마 안된다고 하면서 떡쳐먹는것을 극력 피하였다.

물고기도 밥을 많이 먹게 하는 밥도적이라고 하면서 명태 한마리도 사먹지 않고 돈을 모으는 수전노였다.

한번은 마을사람들이 《저 만부자가 공짜 물고기도 안먹을가?》 하면서 섣달그믐날 밤에 명태 한두름을 만부자집 울안에 슬쩍 던져넣었다.

설날아침 울안을 한바퀴 돌다가 명태를 발견한 만부자는 《어이쿠, 이런 횡재라구야.》 하면서 매우 흡족해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밥도적놈. 내 쌀을 축내자고, 안된다.》 하면서 명태두름을 눈가래에 퍼서 도로 울너머로 내던지였다. 이것을 지켜본 마을사람들은 만부자라면 아예 도리를 흔들었다.

만부자가 사는 마을에 살고있는 한 나무군총각이 어느날 어머니병을 고치기 위해 칠보산에 산삼을 캐러 왔다가 너무 허기지여 마침 떡바위에 기대여 앉았다가 잠시 졸게 되였다.

그런데 웬 낯모를 녀인이 나타나더니 《얘야, 너 배가 몹시 고픈 모양이구나. 지금 기대여있는 바위는 떡바위란다. 어서 일어나 실컷 먹고 빨리 가서 어머니병을 고쳐드려라.》 라고 하는것이였다.

소년이 눈을 떠보니 깊은 산중인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여 자기가 기대였던 바위를 만져보니 정말 떡이 집어지였다.

총각은 배가 부르도록 떡을 먹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병도 고쳐드리였다. 그리고는 마을사람들에게 떡나오는 바위를 자랑하였다.

이 이야기가 만부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만부자는 힘꼴이나 쓰는 장정 두명에게 정대를 지워가지고 급히 칠보산을 향해 떠났다. 떡바위를 자기 집에 옮겨다 놓으려는것이였다. 그러면 제집 창고의 쌀도 안쓰고 떡을 실컷 먹을수 있을것이고 또 팔기도 하면 벼락부자로 되여 자기를 당할자 없을것이였기때문이였다.

함께 온 두 장정은 만부자가 시키는대로 떡바위굽을 따라 정대로 까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도포를 길게 드리운 녀인이 불쑥 나타나더니 《당신들은 누군데 칠보산의 떡바위를 망그러뜨리는거요.》 하고 엄한 눈길로 따져물었다.

그러자 만부자가 한발 나서며 말했다. 《나는 워낙 떡을 좋아하는데 이 떡바위를 산속에 그냥 둘것없이 내 집에 옮겨다놓고 떡을 배불리 먹어보자는거웨다.》

《그건 절대로 안돼요. 여기서

떡을 실컷 먹고 한짐씩 지고 가기나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녀인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만부자는 하는수없이 떡바위의 떡을 두 장정들의 지게에 얹도록 하였다.

《만부자님. 이만하면 됐소이다. 더 질수 없소이다.》

그래도 만부자는 계속 떡을 더 지라고 호령을 쳤다. 떡은 무릎높이를 지나 배꼽, 가슴, 어깨높이로 쌓여졌다. 이제는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일지라도 지고 일어날수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만부자는 어서 일어나라고 몽둥이로 그들을 후려치기까지 하였다. 두 장정은 더는 견딜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놈의 욕심쟁이, 너나 콱 떡속에 묻혀있거라.》 하면서 떡무지를 만부자쪽으로 밀쳐놓고 집으로 돌아가고말았다. 결국 린색하고 욕심많은 만부자는 떡무지에 깔려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가게봉

가게봉은 금강봉의 동쪽에 솟아있는 바위봉우리이다. 금강봉과 가게봉사이에는 금강골이 놓여있다.

가게봉은 기암들이 온갖 물건모양을 형상하고있어 마치 물건들을 팔기 위하여 진렬해놓은듯 하다.

서책암

서책암은 가게봉의 북쪽기슭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벽에는 바위틈결이 같은 간격을 두고 두줄로 지나갔는데 마치 세층을 이룬 책덕대처럼 보인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팔만대장경을 빼곡이 꽂은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서책암이라고 불러왔다.

서책암에는 책의 분실을 막기 위해 도술을 쓴것이 영원히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

넘겨주지 못한 변화술

먼 옛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학자들을 불러놓고 만고력사를 쓰도록 하였는데 그 책이 무려 100만권이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많은 책을 보관할데가 없었다. 그래서 의논끝에 정해진 곳이 칠보산의 이 장소였다. 마침 경치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도서열람에 좋을것이기때문이였다.

옥황은 책의 운반과 서고를 세우고 진렬, 보관관리하는 모든 일을 부마인 학선신하에게 맡기였다.

신하 학선은 100만권의 책을



회상대에서 본 서책암

모두 칠보산에 날라다 쌓아놓고 서고에 쓸 구리기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얼마후 날아온 소식은 구리기둥은 다른데 써서 없다는것이였다. 그런데 바깥에 쌓아둔 책은 칠보산구경을 온 사람들이 제멋대로 뽑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져가기까지 하니 참으로 야단이였다.

책보관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던 학선은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내였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익힌 변화술을 쓰는것이였다. 그래서 여느때에는 책무지가 바위로 변하도록 하고 열람객이 나타나면 책으로 되게 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하였다.

세월이 흘러 학선도 나이가 들어 림종에 이르게 되였다. 어느날 병석에 누운 학선은 자기 병이 위중하다는것을 알고 서책의 변화술을 맏딸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맏딸을 불러들이라 하니 딸은 어디론가 나가 찾을수가 없었다.

신하들이 떨쳐나 하늘나라에 가있는 맏딸을 학선앞에 세웠을 때는 마지막숨을 거둘무렵이였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맏딸에게 변화술비밀을 대주느라 뭐라고 입을 놀렸건만 《서책암을 향해…》라는 말마디만 겨우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여 하늘나라의 만고력사책은 돌로 굳어진 채 다시는 책으로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강선굴과 대장굴

강선굴은 서책암밑에 있는 굴이고 대장굴은 이로부터 50m가량 떨어져 그 아래에 있는 굴이다.

두 굴은 바위굽이가 우묵하게 패여들어가고 바닥에는 모래가 한벌 깔려있다. 이 굴들에는 도를 닦는데 성공한 두 청년에 대한 전설이 있다.

-전설-

도를 닦는데 성공한 두 청년

개심골에는 최씨청년과 리씨청년이 살고있었다.

두 청년은 다같이 살림이 가난하고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가 같은것으로 하여 각별히 친근하였다. 나이도 같았지만 한동네에서 아래웃집에 살면서 두 청년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도 같이 갔고 강이나 바다로 고기를 낚으러 갈 때에도 늘쌍 붙어다녔다.

최씨청년이 있는 곳에는 의례히 리씨청년이 있었다.

두 청년은 행동을 같이했을뿐아니라 생각도 성격도 비슷하였다. 이웃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남을 위해서는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의협심이 강하고 의리가 두터운 청년들이였다.

생김도 의젓하고 키도 훤칠하게 크며 장골의 체격과 힘을 가지고있는 점에서도 두 청년은 마치 쌍둥이같았다. 이들은 여느 청년들보다 애국심과 정의심이 보다 강한 점에서 눈에 뜨이게 나타났다.

두 청년의 아버지들은 이 고장에 살면서 자주 변경방비에 나가 군무를 수행하였고 어린 그들에게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와 고향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는 애국의 넋을 심어주었다.

그토록 이들에게 엄하면서도 살뜰하였고 남아로 태여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큰일을 해야 한다고 항상 일깨워주던 아버지들이였다.

그러던 그 청년들의 아버지들은 그 어느해 외적들을 쳐물리치는 싸움판에 나갔다가 전사하였다.

아버지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수 없다는 비통한 소식이 이들에게 준 정신적충격은 컸다. 이들은 아버지들이 일깨워주던 이야기를 잊지 않고있었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겨야 한다.

사내대장부는 죽더라도 가장으로서 안해의 치마폭에 싸여 숨질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싸우다 장검을 안

고 쓰러져야 한다.》

두 청년은 아버지들이 들려주던 이런 이야기속에서 애국의 넋과 장부의 기질을 키워왔다.

이들이 장정으로 자란 그맘때에도 칠보산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방에서는 무시로 기여들어와 재물을 빼앗아가고 불을 지르며 사람들을 죽이는 오랑캐들의 잔인한 악행이 계속되고있었다.

어느해 이른여름에 두 청년은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지키는 큰일을 위하여 100날을 기간으로 도를 닦기로 약속하였다. 도닦기를 통하여 최씨청년은 앉은자리에서 눈을 감고도 멀리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발견하는 묘술을 체득하기로 하였고 리씨청년은 하늘에서 구름과 비, 우뢰와 번개를 몰아다가 외적의 머리우에 퍼부어 소멸하는 천지조화술을 체득하기로 하였다.

초여름의 칠보산은 더욱 생신하고 아름다와 보이였다. 연록색의 나무잎은 활짝 피여 싱그러운 바람에 춤을 추고있었고 새끼를 본 장끼는 즐거운듯 《꺼경-꺼경-》 산울림을 남기며 밀림의 정적을 깨뜨렸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이끼덮인 바위돌을 에돌며 돌돌 흐르는 금강골의 참나무밑에는 자주색 철쭉꽃이 활짝 피여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있었다.

두 청년은 책과 무기, 식량과 생활도구를 한짐씩 지고 칠보산의 수려한 초여름풍경을 감상하며 승선대의 벼랑길에서 금강골로 갔다.

최씨청년은 탁자바위의 웃쪽에 있는 강선굴에 거처를 정하였고 리씨청년은 다박솔이 소복이 자라고있는 나지막한 언덕을 사이에 두고 얼마간 떨어져있는 아래쪽의 대장굴에 자리를 잡았다.

두 청년은 거처를 정하면서 도닦기를 시작하여 성공할 때까지 100날동안은 서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비록 한시도 헤여져서는 살수 없을만큼 막역한 친구이지만 정신수양을 위하여 산으로 들어온만큼 언행을 신중히 하는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도 만나는것을 삼가하는것이 좋았다.

두 청년은 거처를 정한 다음날부터 제각기 수양에 전념하였다. 아침 한겻은 활쏘기, 칼쓰기, 달리기 등 무술훈련을 하였고 낮 한겻은 한적한 바위나 큰 나무앞에 정숙히 자리를 정하고 앉아 정신수양을 하였다. 그리고 밤에는 굴속에 광솔불을 켜놓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여러가지 병서들과 명인들의 저서들을 탐독하였다.

두 청년은 하루도 이 일과를 어기지 않고 학습과 훈련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시간을 아껴가며 지켜나갔다.

두 청년의 말없는 친분의 전달자는 아침저녁 끼니를 끓일 때 피여오르는 연기였다. 아래웃굴의 아구리에서 모락모락 피여오르는 연기는 생활에서 변화가 없이 호상 일과가 순조롭게 진행되여가고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였다.

어느덧 시간과 날이 흘러 애초에 약속했던 100일 도닦기도 거의 끝날무렵이 되였다.

칠보산의 높은 봉우리들에는 단풍이 깃들기 시작했고 골짜기의 산허리에 빽빽이 들어선 도토리나무에서는 영글은 열매가 떨어졌다. 칠보산의 가을경치는 마치 칠보단장을 하고 다색단으로 치장한 신부처럼 더 매력있게 보였다. 가없이 푸르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내칠보와 외칠보의 뭇봉우리들과 기암들은 더욱 밝고 아름답게 안겨왔다.

칠보산의 가을은 마치 두 청년의 100일 도닦기의 성공을 상징하는듯 한껏 무르익어가고있었다.

두 청년이 도닦기에서 성공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이날 오후 최씨청년과 리씨청년은 가을의 따가운 해볕을 이겨가며 각기 강선굴과 대장굴부근의 바위밑에서 정숙히 앉아 정신수양을 하고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벼락을 치는듯이 퍼런 불빛이 번쩍— 하고 꽈르릉—하는 우뢰소리가 산울림하며 들려왔다. 이윽하여 탁자바위우에 큰 바위가 굴러떨어지는듯 한 소리가 나더니 기둥같이 굵고 비늘이 번들번들한 구렁이가 강선굴밑으로 내려오는것이였다.

퍼런 불을 뿜는듯 한 사발같은 두눈, 뿔이 돋은듯 한 언덕진 눈두덩, 밖으로 삐여져나온 어금이, 날름거리는 한발이나 되는 긴 혀, 검푸른 줄무늬가 새겨있는 꺼칠한 잔등과 번들거리는 누런색의 배, 참으로 구렁이는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치고 무서웠다.

구렁이는 최씨청년이 조는듯이 눈을 감고있는 바위우에 대가리를 길게 드리우고 딱딱—하는 소리까지 내면서 혀를 날름거렸다.

하건만 정신집중에 전념하고있는 최씨청년은 아무 일도 없는듯 입을 꾹 다문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는 최씨청년을 놀래우려는듯 얼마동안 부산을 피우더니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리씨청년이 있는 대장굴쪽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구렁이가 기여갈 때는 몸이 굵고 무거워서인지 《와작와작》 잔솔나무와 싸리나무들이 부러지고 깔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렁이는 대장굴앞에 선 소나무

밑에서 정신집중수양을 하는 리씨청년의 앞뒤를 에돌면서 《찌르륵-찌르륵-》 하는 무서운 소리를 냈다.

하건만 리씨청년 역시 깊은 명상에 잠겨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구렁이는 미끄러지듯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구렁이가 자취를 감춘 후 한동안 서책골에는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가둑나무 우듬지우로 가을잠자리들이 자리를 옮겨가고있었다. 솔밭사이의 공지에 자라는 쑥새풀이 가벼운 바람에 춤출 때마다 씁쓸한 향기가 코를 찌른다. 가을은 한껏 무르익어가고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제일명산 산허리에서 《따웅-》 하고 우뢰같은 범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황소같은 수범이 탁자바위우에 나는듯이 달려와 앉았다.

범은 5봉의 잔등을 굽어보며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우웡-으르릉》 하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 한 범의 울음소리는 산발을 타고 울려갔다.

범은 금시 서책골에 앉아있는 두 청년들을 집어삼킬듯 사나운 눈길로 흘겨보더니 빨간 혀로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군침을 핥았다.

이윽하여 범은 휘파람소리를 내며 탁자바위로부터 승선대 등마루까지의 사이를 나는듯이 달려서 오갔다.

그때마다 범이 내지르는 울음소리는 산울림하며 서책골을 들었다놓았다.

하건만 두 청년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는듯 눈을 뜨는 일도, 앉은 자리를 옮기는 일도 없었다. 그만큼 진리와 무술을 추구해가는 두 청년의 사색은 오묘하고도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었다.

한동안 부산을 피우던 사나운 범은 일사불란의 자세로 수양을 하는 두 청년의 엄숙한 모습에 위압된듯 승선대를 넘어 옥대봉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저녁 두 청년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이 각기 저녁밥을 지어먹고 굴안으로 들어가 광솔불을 밝히고 병서와 경전의 마지막장을 펼치였다.

이제 100일 도닦기를 끝마치게 되는 마지막밤이였다.

강선굴의 최씨청년이 밀려오는 졸음을 물리치며 병서의 마지막대목을 외우고있을 때였다.

굴안으로 아름다운 처녀가 살며시 들어섰다. 처녀는 구슬을 굴리는듯 한 목소리로 갑자르듯 말하였다.

《내칠보구경을 왔다가 길을 헛갈려 그러는데 하루밤 묵어가게 해주시오이다.》

최씨총각은 인적기에 놀라 머리

를 들어 굴아구리쪽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선녀같이 이쁜 처녀가 서있는것이 보이였다. 처녀의 수정같이 맑은 눈과 미소가 비껴있는 앵두같은 입술, 금시 피여난 진달래꽃잎같은 발그레한 두볼은 자석처럼 젊은이의 눈을 끌었다.

《안됐소만 지금은 수양중이니 여느 사람과는 일체 상종을 하지 않기로 하였은즉 하물며 새애기를 어찌 들여놓겠소.》

최씨청년은 사정을 들어주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딱 잘라 거절하였다.

《이 재밤중에 어찌 소녀가 홀로 범이 득실거리는 산중으로 나가겠소이까.》

처녀는 주인이 허락하거나 말거나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자리를 정하고 드러눕는것이였다. 굴안은 워낙 비좁다보니 자리에 누운 처녀의 가슴은 앉아서 글을 외우는 최씨청년의 허벅다리 가까이에 와있었다.

피로에 몰린듯 곧 굳잠에 든 처녀는 잠꼬대까지 하며 한쪽다리를 청년의 무릎우에 올려놓는것이였다.

총각은 두손으로 살며시 처녀의 장단지를 들어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처녀가 한쪽팔을 청년의 허벅다리우로 뻗치더니 자기의 가슴앞으로 끌어안는것이였다.

이때에도 총각은 슬며시 처녀의 팔을 잡아 그의 가슴우에 펴주었다.

처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몸에 닿을 때마다 청년의 온몸은 불에 타는듯 달아올랐다.

그러나 최씨청년은 유혹을 뿌리치면서 병서의 마지막장을 외우는데 열중하였다. 나라를 위하려는 큰뜻을 품고 산으로 들어와 100일동안 하루도 일과를 어김이 없이 수양을 쌓아오다가 이제 마지막 령마루에 오르게 되였는데 사내대장부가 순간의 감정에 끌려 순결한 자기의 지조를 굽히겠는가.

이렇게 강심을 먹고보니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고 정신이 외곬으로 집중되였다.

최씨청년은 자기곁에 아무도 없는듯이 병서에만 눈길을 모으고 날이 샐 때까지 글을 외웠다.

푸름푸름 동녘하늘이 밝아오자 최씨청년은 마지막 글줄을 다 외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힘껏 기지개를 켜며 굴안을 살펴보니 금시까지 자기 무릎가까이에 누워있던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굴밖으로 나와 심산의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며 장미빛으로 물들어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는 최씨청년은 더없이 기쁘고 마음이 가뿐하였다.

그것은 100일의 도닦이도 성과적

으로 끝마치고 종착점의 어려운 시련과 유혹도 이겨내고 성공의 상상봉에 오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같은날 밤 대장굴의 리씨청년도 재밤중에 나타난 처녀의 참기 어려운 유혹도 있었으나 꿋꿋이 의지의 힘으로 이겨내고 드디여 수양탑의 마지막 돌을 쌓는데 성공하였다.

수양에 성공한 두 청년은 그후 변경으로 나가 외적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모두 신묘한 도술을 써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피아노바위

피아노바위는 서책암 웃쪽에 있는 2개의 바위이다.

아주 오랜 옛적 부처가 서책암에 있는 책을 뽑아들고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드는 이곳 산정에 책상과 걸상을 올려놓고 앉아 글을 읽었다고 하여 탁자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피아노바위

세월이 흘러 어느때인가는 걸상같이 보인다고 하여 교의암, 때로는 풍금같이 보인다고 풍금바위로도 불리워졌고 오늘에는 피아노바위라고 부른다.

마치도 한 악사가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마주하여 어느 곡부터 탈것인가를 고르고있는것 같다.

례문암과 가마바위

례문암과 가마바위는 금적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금적암에서 60m가량 떨어진 곳에는 《人》자모양으로 일어선 높이 8m의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례문암이다.

처음 례문암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는 바위문이 가마가 드나들 정도로 넓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좁아진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는것이다.

예로부터 이 일대에서는 결혼식날 신랑신부가 이 문을 통과하면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 신랑, 신부들은 이 문을 통과하는것을 하나의 행사일정으로 여겨왔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소문이 널리 퍼져 먼 곳에서 머리 흰 늙은 령감, 로친네들까지 와서는 분주히 이 문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례문암과 가마바위

이렇게 되자 문지기는《허허, 세상에 별일을 다 보겠네.》하고 허구픈 웃음을 짓다가 겨우 한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문을 좁히고 어디론가 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에도 결혼식날의 《행사》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례문암에서 약 50m앞에는 옛날에 색시들이 시집갈 때 앉아가던 가마바위가 있다.

례문암과 가마바위에는 잔치날에 칠보산구경을 왔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여 신랑, 신부는 물론 그 일행과 가마도 모두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

돌로 굳어진 신랑신부

옛날 어느해 화창한 봄날 화대에 사는 총각과 어랑에 사는 처녀가 백년가약을 맺고 잔치를 하였다.

새색시를 데리러 어랑에 갔던 신랑은 돌아오는 걸음에 신혼유람삼아 칠보산을 구경하기로 하였다.

일행이 개심사를 돌아보고 개심대에 올라서서 사방을 보니 참으로 장관이였다. 새로 피여난 연록색의 나무잎들로 단장한 5봉은 볼수록 웅장하고 아름다왔다.

일행은 신부를 태운 가마를 들고 승선대를 거쳐 만월대, 기와집바위,

배바위 등이 줄지어 늘어선 산발로 나가보려고 하였다.

그들이 가게바위가 있는 산어귀에 들어서니 오솔길앞에 《人》자처럼 생긴 큰 돌문이 나타났다. 일행은 기묘한 바위를 바라보며 그앞에서 머뭇거리고있었다.

이때 일행중에서 유식한 견마잡이가 우스개소리로 말을 주어섬겼다.

《이 돌문으로 말하면 례식을 치르는 례문암올시다.

생김은 사람 인자처럼 생겼으니 혼례를 치르고 이곳을 찾는 신랑, 신부를 즐겨맞는다는 뜻이구요, 달리 보면 여덟 팔자처럼 생겼으니 신랑신부가 팔십이 넘도록 아들딸 많이 두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해로할 징조이오이다.》

그의 해석이 그럴듯하였다.

일행은 류창한 그의 설명에 《와-》 하고 폭소를 터뜨리며 한바탕 웃었다.

그런데 이때 넓게 열려있던 례문암의 문은 점점 좁아져서 한사람이나 겨우 빠져나갈만큼 좁은 구멍으로 되여버렸다.

가마군들은 신부를 태운 가마가 빠져나갈수 없게 되였다고 얼굴을 찌프리였다.

《여러분네들, 걱정일랑 하지 마소. 례문암이 좁아진것은 신부도 가마에서 내리라는 뜻이요.

한사람씩 천천히 빠져서 걸어나가며 내칠보의 아름다운 일만경치를 빠짐없이 자세히 구경하라는 뜻이오이다.》

우스개소리 잘하는 견마잡이가 또 듣기 좋게 해석하자 일행은 다시금 한바탕 웃었다.

하는수없이 가마군들은 례문암앞에서 가마를 내려놓았고 신부도 가마에서 내려 신랑과 손을 잡고 구경길에 올랐다.

신랑과 신부는 내칠보와 외칠보를 다 돌아보고 해칠보를 구경하기 위하여 바다가로 나갔다.

먼저 신랑신부는 솔도우에 올라가 해안에 펼쳐진 절벽들과 동해를 구경하였다.

해풍에 부대끼면서 바위틈에 억세게 뿌리박고 장구한 세월 자라온 솔도우의 소나무는 신기하고 아름다웠으며 두쪼각의 큰 바위로 이루어진 섬은 참으로 기묘하였다.

두 바위사이로 나드는 검푸른 파도가 부딪치면서 울리는 물소리가 신기하였으나 큰 담을 가지지 않고서는 발바닥이 저려오고 아찔하여 내려다볼수가 없었다.

푸른 물우에 락락장송을 머리에 이고 우뚝 서있는 솔도도 장관이였지만 그우에서 바라보이는 해안과 바다의 풍경은 더욱 감탄을 자아냈다.

눈길을 뭍쪽으로 돌리니 천길벼

랑을 이룬 절벽이 해안선을 따라 성새처럼 연연히 뻗어있는데 절벽밑굽의 바다물우와 절벽면에는 천태만상의 기암들이 놓여있었다.

절벽에 채색화를 그려놓은듯이 보이는것이 있는가 하면 우람찬 체구의 코끼리가 긴 코를 바다우에 드리우고있는듯이 보이는 코끼리바위, 수십수백가락의 초불을 켜놓은듯 한 촉석암, 돌기둥을 깎아 울바자처럼 줄세워놓은것 같은 직석암도 보였다.

솔도에서 바다쪽으로 눈을 돌리니 젖빛안개속에 묻힌 하늘끝까지 펼쳐진 푸른 동해가 가슴 시원히 안겨오고 무시로 불어오는 바다바람에 흰 갈기를 일으키며 파도가 주름져 오는것이 보였다.

참으로 해칠보의 경치도 내칠보의 경치 못지 않게 아름답고 해안풍경으로서 특색을 띠고있었다.

솔도우에 올라 신부와 같이 해칠보의 절경에 도취되여있던 신랑은 문득 칠보산으로 신혼유람을 위하여 같이 들어왔던 일행에 대한 생각이 났다.

《여보, 이 아름다운 해칠보의 절경을 우리들만 보아서야 되겠소.

우리가 구경에 도취해있다보니 우리의 신혼행차를 위하여 수고해온 일행에 대하여서는 까마득히 잊고있었구만.

내가 내칠보로 달려가서 친구들을 데리고 나올것이니 당신은 이곳에서 좀 기다리고있으시우다.》

신랑은 안해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내칠보를 향해 떠났다.

그런데 내칠보로 달려가던 신랑은 은포골어귀를 지나가다가 골짜기안쪽의 소나무숲사이에서 기묘하게 생긴 기암을 발견하였다.

신랑은 호기심에 끌리여 가던 걸음을 바꾸어 은포골에 들리여 큰 바위의 기묘한 조각미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있었다.

신랑은 기암의 자연미에 정신을 팔며 내칠보로 달려가던 생각도, 해칠보에 두고 온 신부에 대한 생각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래 서있다보니 바위돌로 굳어지고말았다.

은포골에 있는 속인암은 이렇게 신랑이 돌로 굳어진 바위이고 해칠보의 촉석암 아래쪽 바다가에 바다물에 발을 잠그고 조용히 서있는 각시바위는 신랑이 되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돌로 굳어진 신부라고 한다.

유식한 견마잡이는 개심사에서 불경책을 빌려 주위가 시원히 다 바라보이는 바위등판에 올라 바위를 책상삼아 그우에 책을 놓고 읽다보니 탁자바위로 굳어졌고 가마군들이 내려놓은 가마는 례문암앞에 있는 가마바위로 굳어졌다고 한다.



농부바위

삼부도암(농부바위)

삼부도암은 가게봉의 서쪽으로 보이는 앞산릉선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모양이 개심사앞에 있는 3개의 부도처럼 생겼다고 하여 삼부도암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치 커다란 농립모를 쓴 3명의 농부가 기세좋게 걸어나오는 모습같기도 하여 농부바위라고도 한다.

삼부도암에는 숨겨둔 장수샘물에 대한 전설이 있다.

-전설-

숨겨둔 장수샘물

먼 옛날 금강골에 보기 드문 왕가물이 들어 이곳 마을사람들은 물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어느날 이곳 마을의 한 농부의 집에 백발로인이 찾아들어 물을 청하였다.

농부는 로인의 정상을 가긍히 여겨 정화수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물을 찌워 로인에게 드리였다.

갈증을 달래고난 로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마을복판에는 칠보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다는 장수샘이 있었다.

마을은 작으나 장수샘을 마시며 자란 이곳 사람들은 모두가 힘장사였다. 그가운데서도 세 농부는 그야말로 힘이 세였다.

그러던 어느해 외적들이 칠보산으로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마을을 지키던 세 장수도 전장으로 떠나려고 할 때였다.

마을의 늙은이들과 녀인들은 만일 놈들이 마을에 기여들어 샘물을 먹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샘을 묻어버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세 장수는 집채같은 바위를 들어 샘우에 올려놓았다.

그후 세월이 흐르면서 샘은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없어지게 되였다는것이였다.

계속하여 그 로인은 샘물에 깃든 사연을 잘 알고 샘을 찾아내거들랑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장수샘을 잘 지키라고 거듭 당부하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백발로인의 말대로 온 마을이 떨쳐나 밭 한가운데 덩실하게 드러나있는 돌을 파내였더니 과연 그밑에 얼음과도 같은 찬물이 고여있었다. 아무리 퍼내고 퍼내여도 마를줄 모르는 샘물은 참으로 신비스러웠다.

얼마간 샘물을 마시였더니 10년묵은 고질병들이 뚝 떨어졌고 사람들은 힘이 솟구쳐 농사일을 신이

나서 하였다.

또한 샘물을 준 밭에서는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다.

마을사람들은 물걱정을 모르고 기쁨에 겨워 살아나가게 되였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손자까지 보게 된 마을의 어느 한 농부는 점차 생각이 깊어졌다.

세 장수가 외적이 침노했을 때 샘을 덮어버리고 전장에 달려가 싸운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리하여 농부는 산에 올라 샘의 위치를 표적해두는 한편 외적과의 싸움에서 돌아오지 못한 세 농부의 애국충정을 길이 전하기 위해 세 농부바위를 깎아세우는 일을 하리라 결심하였다.

농부는 연장을 둘러메고 앞산중턱에 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돌을 가공하였다.

바로 이 농부바위가 그때 다듬어 놓은것이라고 전해온다.

기와집바위

기와집바위는 창고봉의 북쪽 선회암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이다.

마치 절간 또는 기와집같다고 하여 기와집바위라고 부른다.



기와집바위

만월대와 무희대

기와집바위로부터 북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웃선이 약간 비탈져있는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옛날 선녀들이 칠보산놀이를 내려와서는 달뜨는 밤에 바위에 올라 달맞이구경을 하였다는 만월대이다.

만월대의 동쪽으로 두리납작한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선녀들이 원을 지어 돌아가면서 춤과 노래로 온밤을 즐겼다고 하여 무희대라고 한다.

이처럼 개심사구역의 봉우리와 다종다양한 기암들은 곳곳의 전망대에서 구경할수도 있고 등산길을 따라가며 구경하면서 탐승의 즐거움을 맛볼수도 있다.

상매봉구역

상매봉구역은 칠보산탐승의 관문인 박달령과 문암령, 상매봉, 조롱봉을 포괄하는 내칠보의 명승구역이다.

박달령

박달령은 해발 762m이며 칠보산탐승의 관문으로 되고있다.

박달령이란 이름은 령에 박달나무가 많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고도 하고 반달처럼 생긴 칠보산줄기의 중점에 있는 령이라고하여 반월령, 반달고개라고 불리우던것이 말소리가 변화되여 박달령으로 되였다고도 한다.

령길은 내륙지대와 동해안의 바다가마을을 련결해주는 길로 되고있다.

예로부터 호랑이도 사흘밤을 쉬고서야 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는 박달령은 굽이굽이를 돌아올라야 하는 아흔아홉굽이령이다.

박달령의 정점에는 칠보산대형보석화관광안내도가 세워져있다. 박달령정점에서 약 2㎞ 내려가면 내칠보의 한가운데에 솟은 기암, 봉우리들을 관망할수 있는 돌문정자에 이르게 된다.

산줄기의 가운데를 자르고 큰길을 내면서 좌우에 바위벽이 생겼다는데로부터 돌문이라고 하였고 이곳에 세운 정자라고 하여 돌문정자라고 한다.

원형으로 된 정자에 오르면 내칠보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상매봉

산봉우리의 기상이 날카로운 매처럼 생겼다고 하여 상매봉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산의 생김새가 날려는 매가 두 날개죽지를 펼치려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상응봉이라고도 하며 구름과 안개가 자주 끼는 산이라고 하여 운무산이라고도 불리운다.

상매봉에 오르면 칠보산의 전경을 거의다 볼수 있는데 상매봉의 전망경치에서 손꼽히는 것은 조선동해의 해돋이와 저녁노을비낀 산모습이다.

문암령

문암이란 바위가 문처럼 길 좌우에 서있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문암령의 동북쪽에는 지난날

화전으로 일군 한덕이라는 버덩이 있는데 이곳에는 한씨총각이 범에게 물려가던 처녀를 구원해주고 그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전설-

처녀를 구원한 총각

한씨총각은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 또한 착하였으며 부지런하고 힘꼴이나 쓰는 젊은이였다.

그는 이제 설을 쇠면 스물다섯살이 되는데 그때로서는 쉰총각이였다.

한씨총각은 잘 생기고 사람됨도 똑똑하고 의젓하였으나 가난이 죄가 되여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총각의 가슴속에는 한 처녀에 대한 련정이 못견디게 갈마들고 있었다. 그 처녀는 바로 아래마을에 사는 의원집의 외동딸이였다.

한씨총각은 일손이 모자라하는 의원집에 나무짐을 자주 해다주면서 이 집 처녀를 알게 되였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 부모들과 함께 처녀도 소박한 총각에 대하여 말못하는 가운데 남다른 애정을 품게 되였다.

한씨총각의 부모들은 아들의 속생각을 모르지는 않았고 의원집처녀를 며느리로 맞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째지게 어려운 집살림이 켕기여 선뜻 혼사말을 건네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이였다.

한씨총각은 지게를 챙겨가지고 땔나무를 하려고 집을 나섰다.

그는 코노래를 부르며 문암령 아래 골짜기를 따라 상매봉으로 올랐다.

한씨총각이 상쾌한 기분으로 흥얼흥얼 입속노래를 부르며 골짜기를 톺아오를 때였다.

바른쪽 절벽우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웬 소리일가?》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절벽우에는 황소만 한 얼룩얼룩한 줄무늬를 두른 큰 범이 물어온 사람을 앞에 놓고 침을 흘리면서 입만 쩝쩝 다시고있었다.

다시 자세히 보니 범은 물어온 사람을 먹을념은 못하고 입을 벌렸다다물었다 할뿐이였다.

인적기에 놀란 범은 큰 대가리를 버쩍 쳐들더니 잠시 후에는 이곳의 사람을 알아보고 앞발로 아가리를 가리키며 구원을 청하는듯 한 시늉을 하였다.

벼랑우에 올라가보니 범은 바위등판의 너설우에 발을 떡 버티고 앉아있으면서 덤벼들념은 못하고 오히려 동정을 구하는듯 앞발로 주둥이를 가리키는것이였다.

보름전에 상매봉굴속에서 겨울을

나던 수범은 속이 클클하여 한달음에 길주의 장덕산으로 가서 암범을 만나보고 오는 길이였다. 수범은 허기증이 난김에 령길을 넘어오는 중년의 녀인을 홀쩍 물어다가 단숨에 먹어치웠다.

범이 사람을 해치더라도 머리만은 남겨놓는 법인데 상매봉의 수범은 워낙 먹새도 좋은데다가 굶주렸던김에 녀인의 머리까지 깨끗이 먹어버리였다. 그런데 이렇게 헤덤비며 반반히 먹어치우다보니 끝내 화를 당하였다.

헤덤비며 사람의 머리를 집어삼키다보니 녀인의 머리에 가로질렀던 굵고 길쯤한 구리비녀가 목젖밑에 떡 걸리게 되였다. 굵직한 쇠붙이가 목구멍에 가로질려있으니 먹기는커녕 침넘기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그후 여러날 먹지 못하고 지내자니 배가 고파 견딜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수범은 또다시 먹이사냥을 나왔다. 골짜기 막바지의 다래넝쿨밑에 몸을 숨기고있던 수범은 약샘물을 길러온 한 처녀를 덮치였다.

상매봉수범은 처녀를 물고 바람처럼 달려 이 절벽우로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목구멍을 버티고있는 구리비녀때문에 입질을 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바로 수범은 먹이를 물어다놓고 눈물만 흘리고있었던것이다.

한씨총각은 범의 시늉으로 보아 자기에게 구원을 청하는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담해진 총각은 범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이놈! 체통이 큰 산중의 령물이란게 산속의 나쁜 짐승이나 잡아먹을게지 왜 인가에까지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거냐.》

총각이 이렇게 위엄있는 목소리로 호령질을 하자 범은 애원하는듯 그앞에 입을 쩍 벌려보이였다.

총각은 머리를 숙여 범의 입안을 들여다보았다. 벌건 범아구리안쪽에 누런 구리비녀가 가로질려있는것이 보이였다.

한씨총각은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을 범아가리에 깊숙이 넣어 구리비녀를 집어내였다.

그제서야 수범은 목을 추슬려보고 입을 쩝쩝 다셔보더니 살아났다는듯이 큰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물어온 처녀도 총각도 해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범도 자기를 구원해준 은혜는 아는 모양이였다. 수범은 큰 대가리를 두세번 주억거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니 숲속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졌다.

한씨총각은 그제서야 죽은듯이 쓰러져있는 처녀에게로 눈길을 돌리였다. 총각은 처녀의 몸에 손을 대기 두려운듯 망설이다가 조심히 두손으로 그의 머리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순간 총각은 깜짝 놀랐다.

분명 처녀는 자기가 그토록 안해로 맞고싶어 마음속에 그리워하면서도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도 건네보지 못한 의원집딸이였다.

그날 아침 효성이 지극한 의원집딸은 부모님들에게 청신한 약샘물로 밥을 지어드릴 생각으로 숫눈길을 헤치며 골막바지의 약샘물터에 올라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던것이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그의 얼굴은 한방울의 피도 온기도 이미 다 사라져버린듯 새파랗게 보이였다.

총각은 처녀의 가슴우에 조심히 귀를 대보았다. 심장은 간신히 팔딱팔딱 뛰고있었다.

총각은 처녀를 둘쳐업고 한달음으로 집으로 달려내려와 따뜻한 아래목에 눕히였다.

총각의 부모들은 처녀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꿀물에 탄 미음을 입에 떠넣어주었다. 지성어린 간호에 의하여 얼마후 처녀는 소생하였다.

처녀의 새별같은 눈에서는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인 총각에 대한 고마움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와 구슬처럼 방울방울 떨어졌다.

한씨총각이 처녀를 구원해주게 된것이나 처녀가 바로 한씨총각에 의하여 사경에서 구원된것은 다 연분이라고 생각되였다.

드디여 두 집의 부모들은 총각과 처녀를 짝을 무어주도록 기꺼이 약속하였다. 의원집의 부모들은 생명의 은인을 사위로 맞는것이 덕을 덕으로 갚는 도리이기도 하지만 사경에서 맺어진 연분에 의하여 짝을 뭇게 된 천생배필이라고 기뻐하였다.

취할듯 한 꽃향기가 풍기는 그해 봄에 한씨총각과 의원집처녀는 개심골안이 들썩하게 소문난 잔치를 하였다.

이후 젊은 부부는 부모들을 모시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아들딸을 낳고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칠보산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하나인 문암령 동쪽둔덕이 한덕으로 불리우게 된것도 이때부터였다고 한다.

낟가리바위, 황소바위, 농부바위

낟가리바위는 상매봉의 동북쪽릉선에 있다. 바위의 모양은 신통히도 낟가리를 높이 쌓아놓은듯 하다.

황소바위와 농부바위는 낟가리바위의 아래쪽에 있다.

앞에는 높이 쌓은 낟가리, 낟가리를 향해 대가리를 꿋꿋이 쳐들고 곡식단을 가득 실은 짐발구를 힘있게 끄는 황소, 그뒤에 서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건장한 체모를 갖춘 농군의 모습, 생동한 이 바위들의 군상은 그

야말로 정교한 조각품처럼 안겨온다. 마치 한해농사를 부지런히 지어온 농군이 농사가 잘된 기쁨을 자랑이나 하는듯 하다.

이 바위들에는 범에게 물려가던 송아지를 구원했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

문암령의 송아지와 범

옛날 상매봉기슭의 문암골에는 일찌기 기둥처럼 의지하고 살던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젊은 과부가 있었다.

이 고장을 휩쓴 전염병때문에 끌날같던 남편을 잃은 젊은 안해는 눈앞이 캄캄하고 크나큰 슬픔으로 억이 막혔다. 얼마동안은 외롭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자신도 죽고싶은 생각을 해본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의 얼굴만을 쳐다보면서 먹지도 울지도 못하는 어린 두 아들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갈마들어 애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나 살아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이후 젊은 과부는 강심을 먹고 부대기농사를 억척같이 지어나갔고 청계골의 오지그릇들을 머리에 이여 아간장에 내다팔았다.

청계골에서 나는 백토로 만든 칠보산오지그릇들은 가볍고도 단단하며 맵시있게 생겨서 관북(오늘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및 강원도의 일부 지역)지방에서뿐아니라 멀리 한성(서울)에까지 우수한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므로 사처의 장사군들이 많이 모여드는 아간장에서 칠보산오지그릇들은 나오기 바쁘게 잘 팔리였다. 오지장사가 괜치않게 되자 젊은 과부는 부대기농사를 거의 전폐하였다.

젊은 아낙네가 무거운 오지그릇들을 광주리에 담아 이고 왕복 근 100리나 되는 높고 험한 문암령길을 넘나들자니 그 수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녀인은 어뜩새벽에 아침밥을 몇술 떠먹고 장사짐을 이고 떠났다가 저녁어둠이 짙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무거운 장사짐에 짓눌리여 앞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발바닥에는 돌덩이같은 떡살이 붙었다. 피곤에 몰려 그의 눈은 항상 피져있었고 피기없는 입술은 언제나 헐어있었다.

아간장으로 오가는 장사행보가 하도 힘에 부치여 녀인은 생각던 끝에 소를 하나 장만하려고 결심하였

다. 소등짐에 오지그릇들을 싣고다니면 수고도 덜뿐아니라 짐을 많이 나를수 있으니 장사도 좀더 크게 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녀인은 푼푼이 모은 돈으로 장마당에서 송아지 한마리를 사왔다. 송아지를 가져온 날 온 가족은 새 식구가 생겼다고 기뻐하였다. 송아지에게 장사짐을 지우자면 한두해는 잘 먹여야 했다.

어린 아들형제는 송아지를 위하여 부엌에 서까래를 잇대여 소우리를 지었다.

송아지를 기르는 일은 어린 아들들이 맡아하였다.

그들은 송아지를 끌고다니며 배가 불룩하게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였고 저녁에는 꼴망태가 터지게 풀을 베다가 송아지의 입이 놀지 않도록 하였다. 겨울에는 조짚이나 새짚을 썰어 콩을 섞어 푹 삶아먹이였다.

아들들의 극성스러운 성의에 의하여 한해를 넘기니 송아지는 살이 피둥피둥 지고 키도 훤칠하게 자라서 중소에 가까와갔다.

송아지를 사온지 두해째 되는 늦가을이였다.

형제는 송아지를 골짜기 막바지의 새초밭에 매놓고 내려와 산기슭의 부대기밭에 심어놓았던 콩가을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다.

갑자기 골짜기 웃쪽에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형제는 가을하던 낫을 던지고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올라갔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형제가 새초밭에 가보니 송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삭정이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맞은편 산허리를 바라보니 황소같은 큰 범이 송아지를 물고 솔밭속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형제의 심장은 금시 멎는듯 하였다. 이들의 집에서 송아지는 재산의 전부이기도 하고 온 가족이 거기에 명줄을 걸고있는 생명과도 같은것인데 그것을 잃게 되였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 저 무서운 범아가리에 물린 송아지를 무슨 수로 빼앗아낸단 말인가.

형제는 한동안 살진 송아지가 무거운듯 어슬렁어슬렁 산등으로 올라가는 범의 등허리만 바라보았다.

《야, 우리가 이러고있으면 어떻게 하니. 그게 어떤 송아지라고 범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냐. 죽기내기로 범과 싸워서라도 송아지를 기어이 빼앗아야 한다.》

오돌차고 다부지게 생긴 형이 웨치였다.

형제는 곧 두주먹을 부르쥐고 범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인기척을 느

낀 범은 힐끗 뒤를 돌아보더니 아직 뼈도 굳지 못한 두 아이들이 따라오는것쯤은 두려울것이 없다는듯 배포유하게 걸어가는것이였다.

범의 뒤꼬리에 먼저 다가간 날파람있는 동생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야, 범아. 제발 그 송아지를 놓아주려마. 그 송아지는 우리 집의 보물이고 우리 식구들의 목숨과 같은거다. 네 아무리 짐승이라 한들 그 송아지를 잡아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니. 어서 송아지를 놓고 가거라.》

그러나 범은 들은둥만둥 한번 꼬리를 휘젓더니 산등성이로 올라섰다.

사람이 바싹 뒤따라오니 범은 조용히 앉아 먹을 자리를 구하려는듯 새초가 무성한 등판으로 계속 걸어가는것이였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가던 범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자취를 감추어버리였다. 형제는 놀라 앞으로 달려가보았다. 범은 송아지를 물고 마을사람들이 곰사냥을 하려고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졌던것이다.

함정에 빠진 범은 이제는 자기가 죽을 고비에 빠졌기때문에 송아지를 잡아먹을 경황이 못되였다. 범은 물었던 송아지를 내놓고 어쩔줄 몰라 함정에서 빠져나와보려고 껑충껑충 올리뛰였다. 그러나 함정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수 없었다.

함정에 빠진 범을 보니 형제는 통쾌하였고 송아지를 찾을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듯 하였다. 그러나 어린 그들로서는 범을 잡을 생각보다 어떻게 하든 송아지를 살려내야겠는데 방도가 없었다.

형은 동생에게 말하였다.

《야, 나는 여기서 범이 송아지를 먹어치우지 못하게 지키고있을터이니 너는 마을로 달려가서 어른들께 알려라.》

동생이 달려내려가 알리자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를 들고 올라왔다.

함정안을 들여다보던 마을사람들은 난색을 보이였다.

송아지를 산채로 함정에서 끄집어내야겠는데 그러자면 범이 먼저 달려올라올것이고 범을 먼저 잡자면 그 서슬에 깔리거나 얻어맞아 송아지까지 피해를 입게 될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이 함정두리에 서서 이렇게 하자거니 저렇게 하자느니 입씨름을 하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사람들은 한패거리는 이곳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범이 송아지를 잡아먹지 못하게 망을 보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래일 개심골에서 이름난 곰창포군을 데려다 쏠창으로 먼저 범을 잡기로 하였다.

이날 저녁 늦게 장에서 돌아온 과부는 범이 송아지를 물어갔다는 소리

를 듣고 까무라칠번 하였다. 당장 산으로 올라가 사실을 제눈으로 알아보고싶었으나 범도 송아지도 함정속에 들어있고 마을사람들이 망을 보며 송아지를 살려낼 방도를 찾고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만류하므로 집에서 결과만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날 밤이였다.

정수리에 피멍이 들도록 오지그릇짐을 이여나르면서 푼전을 모아 장만한 송아지를 잃게 된 불안감으로 녀인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에 잠간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는 쪽잠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죽은 남편이 송아지를 안고 함정속에 앉아있는것이였다.

《마누라, 내가 함정속에 빠져 죽을 고비에 들었구만.

내가 상매봉의 주인이 되여 아홉번째의 소를 잡아먹고 이곳을 뜨려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당신이 피땀으로 구한 송아지를 물어가려다가 이 지경이 되였구만.

만약 창으로 나를 해치면 문암골에 무리죽음이 날것이니 절대로 나에게 창질을 하지 않기 바라오.

내가 모르고 한 실수이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집 송아지라는것을 알게 되였으니 내가 해치겠나.》

얼마간 동안을 두었던 남편은 다음과 같은 분부를 하는것이였다.

《문암령의 량쪽바위가 열려있기때문에 자주 범이 들어와 골안의 사람들과 집짐승들을 해치군 하니 먼저 령마루의 한쪽 돌문을 허물어치우도록 하오. 다음은 문암령 건너편 산마루에 있는 베개바위는 게으르고 한가한 형상이여서 이 골안 사람들이 못살고있으니 그것을 다듬어 황소바위로 만들도록 하오.

그러면 문암골사람들은 범의 피해도 받지 않고 잘살게 될것이오.

그럼 송아지를 집으로 살려보낼터이니 내가 함정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오.》

꼬끼요－꼬끼－ 새벽을 알리는 닭의 홰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녀인은 잠에서 깨여났다. 꿈에서 본 남편의 영상이 생시처럼 생생하였고 그 내용이 참으로 신기하였다. 녀인은 그 꿈이 그저 스쳐보낼 일이 아닌상싶어 곧 웃켠에 사는 문중의 좌상로인에게 달려가 죄다 여쭈었다.

《허－그 참 신기한 꿈이구만. 아무래도 그 꿈이 저승에 간 남편이 범으로 변신하여 우리 마을일을 걱정하여 이르는 말같은데 그대로 좇는것이 옳을것 같으이.》

문중의 좌상로인은 곧 사람을 불러 먼저 창질하지 말고 함정에서 범이 빠져나오도록 나무사다리를 놓아주도록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좌상로인이 시키는

대로 함정에 큰 통나무를 걸쳐놓아 주고 잠간 자리를 피하였다.

그랬더니 범은 나무를 밟으며 훌쩍 뛰여 함정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범은 사경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해서인지 몸을 부르르 떨고 크게 기지개를 켜더니 머리를 쳐들고 산이 떠나갈듯 《으르릉-》 한번 큰 울음소리를 내고 휘파람소리를 내며 상매봉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어 두 형제와 마을사람들은 살아남은 송아지를 함정속에서 구원해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송아지를 다시 찾은 기쁨과 죽어서도 자기 집을 위하는 남편의 신령에 대한 고마움으로 녀인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후 마을사람들은 힘을 모아 문암령마루의 한쪽바위를 무너뜨리여 고개문을 막아놓은것처럼 만들었고 석수쟁이를 시켜 건너편 산마루의 베개바위를 황소바위로 쪼아놓도록 하였다.

오늘 문암령마루의 량켠에 성문처럼 서있는 바위가운데서 한쪽바위가 이즈러져있는것과 고개길 건너편 산마루에 있는 황소바위는 이렇게 되여 생긴것이라고 전해온다.

삼례암

삼례암은 문암골에서 얼마쯤 올라가 왼쪽산허리의 숲속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이다.

바위모양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어른이 서고 량켠에 소년들을 끼고 인사를 하는것 같다. 셋이서 절을 하는것 같다고 하여 삼례암이라고 한다.

금장사부도

금장사부도는 박달령골짜기에 자리잡고있다. 왕적골어구에서 서남쪽으로 큰길을 따라 300m 떨어진 곳에 금장사가 있었다.

금장사는 1700년경에 세웠다가 1850년경에 없어진 절간인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곳을 금장터라고 한다. 바로 금장터의 첫 입구에 부도가 있어 한때 번성하였을 절의 자취를 더듬어보게 하는것이다.

조롱봉

조롱봉은 내칠보다리에서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서 천덕봉으로부터 뻗어내리다가 보촌천상류의 강가에 이른 4개의 작은 산줄기를 말한다.

조롱봉이란 봉우리에 바위들이 오롱조롱 매달려있는듯 하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그 몇개의 바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사암-조롱봉의 첫 릉선 맨 우에 있는 바위로서 모자를 쓴 도사같다는 바위이다.

학도암-도사암의 아래에 놓여있는데 무예를 닦기 위하여 도사에게서 전법을 배우는것 같다.

투구암-학도암아래 철갑모를 쓰고 돌아앉아있는듯 한 바위이다. 무예를 거의 습득하여 장수의 체모를 갖춘것 같다.

책바위-조롱봉의 두번째 릉선 아래쪽에 있는 책같이 생긴 바위이다. 네모형에 가로틈결이 많아 마치 수백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은듯이 보인다.

바위의 맨 우에는 채양인양 돌이 내밀리여있어 눈비로부터 책을 보호해주는것 같다.

사서암-책바위의 가까이에 거연히 서있는 이 바위는 책방의 주인같다.

거인암-몸집이 큰 녀인이 손녀를 안고 서있는듯 한 모양의 바위이다.

악어바위-악어가 솔잎이 드리워져있는 바위벽에 붙어있는것 같이 보인다.

장수암-높이가 10m 되는 큰 바위의 형체가 장수같다고 하여 불리우는 바위이다.

조롱봉의 세번째 산발을 바라보면 툭 삐여져나온 코대바위가 있고 네번째 산등마루에는 바위모서리가 몇개의 삼각추처럼 일어선 기묘암이 있다.

조롱봉의 두번째 산릉선에 있는 책바위와 장수암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악어바위

-전설-

미욱한 장수

옛날 어느해 봄날이였다.

봄이 짙어감에 따라 대지는 마치 한창나이 처녀처럼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고 아름다와졌다.

칠보산의 골짜기와 바위틈에는 연분홍진달래와 철쭉꽃이 활짝 피여 부드러운 봄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며 향기를 풍기였다.

애리애리한 연한 나무잎들이 피여나면서 칠보산의 뭇봉우리들과 기암들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주었다.

봄절기가 무르익어가던 개심골을 따라 굽이굽이 뻗어온 내림길로 몸집이 실한 무관이 말을 타고 내려오고있었다. 떡돌같이 우람찬 사나이의 비대한 몸집에 비해서 그가 타고있는 말은 너무도 체소하고 수척하였다. 아마 인정없는 주인을 만나 호되게 부림만을 당하다보니 그렇게 된 모양이였다.

말은 여느 사람의 곱절이나 되는 무게를 가진 주인을 태우고 높고 험한 박달령의 긴 령길을 넘어오느라고 배속의 힘을 다 뺀듯 하였다. 잔등과 엉뎅이는 진땀으로 흠뻑 젖어있었고 코와 입으로는 진거품이 흐르고있었다.

말은 잔등을 짓누르는 주인의 몸무게를 더는 감당할수 없어 금시 쓰러질듯이 배뚤배뚤하였다.

이날도 그는 칠보산의 봄경치를 구경하려고 박달령을 넘어오는 길이였다.

온몸의 힘을 짜내며 간신히 발을 옮겨놓던 허약한 말은 마침내 청계골 갈림길목을 한마장가량 앞두고 털썩 앞으로 코를 박으며 길우에 쓰러졌다. 말이 어푸러지는 바람에 비둔한 몸집의 주인은 포대자루처럼 길섶의 홈채기로 떼굴떼굴 두바퀴 굴러서 처박히였다.

모자는 벗겨져 굴러나 개울물에 잠기였고 그가 입었던 옷은 흙매닥질이 되였다.

주인은 얼마동안 《어구구, 어구구》 금시 숨이 넘어가는듯 한 죽는 소리를 지르더니 마침내 《끙-》하고 일어섰다.

과도한 몸집탓으로 제풀에 몇바퀴 굴었을뿐이지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러나 길바닥우에서부터 굴어 홈채기에 처박히다보니 주인의 온몸은 흙먼지로 매닥질되여 볼품이 없게 되였다.

미욱한 그는 허약한 말이 도리여 꾀를 부리여 자기를 땅우에 굴리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성이 꼭두에까지 올라 한동안 씩씩거리며 길우에 쓰러져있는 말을 노려보았다. 드디여 우둔한 주인은 길우에 떨어진

말채찍을 집어들더니 입에 게거품을 물고 죽은듯이 쓰러져있는 여윈 말에게 뭇매를 안기기 시작했다.

《요 깜찍한 말새끼, 또 꾀를 써서 주인을 흙범벅으로 만들어놓아.》

그는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휙-휙-》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가 날 때마다 뼈만 앙상한 말잔등과 홀쭉한 배허리에는 구렝이같은 줄이 그어졌다.

말은 기력이 다 빠져 소리조차 못 지르고 몸만 흠칠흠칠 반응을 보일뿐이였다.

《요 지독한 놈, 소리도 안 지르는구나.》 그는 기력이 다 빠져 아프다는 소리조차 못 지르는 말을 오히려 불만인듯이 돼지멱따는 소리로 고래고래 욕을 퍼붓는다.

땅우에 긴 목을 눕히고 죽은듯이 누워있던 연약한 말도 모진매를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머리를 버쩍 쳐들더니 《컹-컹-》 애처로운 긴 비명을 질렀다.

간신히 지르는 말의 비명소리는 마치 동정을 호소하는듯 개심골로 산울림하며 울려퍼지였다.

이때 개심사의 도승이 박달령을 넘어 개심골로 내려오고있었다. 무거운 정적만이 드리워있던 개심골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도승은 무슨 변이라도 생기였나 하여 달려왔다.

《보아하니 판 무식한 사람은 아닌듯 한데… 실컷 부려먹다가 매질만 해서야 되겠소? 말도 주인을 믿고 사는게 아니겠소.》

무관은 주인이 자기 말을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듯 사나운 눈길로 도승을 흘겨보았다.

《그렇게 성만 나서 분별없이 불쌍한 말에게 행패질을 하지 말고 로독도 풀겸 이 책이나 읽으며 풀밭에 앉아 쉬시오. 그리고 말은 풀이나 뜯게 하시오다.》

도승은 장삼자락에서 여러권의 책을 그에게 주며 말하였다.

그는 나이든 중이 타이르는 말에 무엇인가 뉘우친듯 책을 받아들고 중이 시키는대로 하였다. 그는 말을 일으켜세워 시내가로 끌고가서 물을 먹인 다음 개울건너편의 풀밭에 놓아주었다.

여윈 말도 그제서야 얼마간 정신이 든듯 탐스럽게 자란 만문한 봄풀을 게걸스럽게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무관은 얼마동안 풀밭에 다리를 펴고앉아 도승이 주고간 책을 보았다. 책장을 한장두장 번져보았으나 모두 불경책이여서 병서만 보아오던 그로서는 무슨 뜻인지 통 알수가 없었다.

《무슨 뜻인지 알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해. 망할 놈의 중두상이 그래 무관인 내가 저처럼 절에 들여박혀 념

불이나 외우는 중이 되라는건가.》

그는 불만스러운듯 투정질을 하면서 중이 주고간 불경책들을 되는대로 팽개쳤다. 그리고 말을 풀밭에서 끌어내려고 달려갔다.

마음을 놓고 맛있게 풀을 뜯던 말은 사나와진 주인의 행동에 놀라 껑충 앞발을 들며 피하려 하였다.

《요놈의 말새끼, 이제는 주인에게도 곁을 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는 와락 달려가 말고삐를 거머쥐더니 또다시 말잔등에 채찍을 안기였다.

말은 미련한 주인이 야속한듯 《컹－컹－》 신음소리를 내며 울었다.

도승은 환희재에 올라 개심골에서 나는 소란한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저 미련한 량반이 또 불쌍한 말에게 매질을 하는구나.

부처님도 무릇 삶을 가진 생물에게 잔인한짓을 하는것은 벌을 내리라 하였거늘 내 저놈에게 도술을 써서 벌을 주리라.》

도승은 이렇게 말하더니 두손을 모으고 얼마동안 중얼중얼 념불을 외웠다.

순간 개심골이 들썩하게 매질을 하던 미련한 장수는 부처에게 벌을 받아 돌로 굳어져버리였다고 한다.

내원구역

내원구역은 남쪽의 영춘대, 동쪽의 금수봉, 서쪽의 만월대 동쪽면, 북쪽의 세왕봉을 경계로 펼쳐진 내칠보 명승구역이다.

내원구역의 중심으로 기본관광도로가 외칠보로 뻗어나갔다.

기본관광도로를 따라 내원구역으로 가는 길에는 병풍바위, 명경암과 명록암, 비류담, 주먹바위, 경송암, 말바위 등 많은 명소들이 있다.

병풍바위

개심다리를 건너 관광도로에 들어서서 처음 보게 되는 명소는 왼쪽으로 보이는 병풍바위이다.

큰길가에서 보게 되는 병풍바위는 높이 300m, 길이 100m나 되는 바위로 이루어졌는데 휘우듬히 휘여져있어 마치 거대한 병풍을 둘러세워놓은듯 하다.

명경암과 명록암

왼쪽의 병풍바위를 보면서 얼마쯤 가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명경암과 명록암이 나타난다.

명경암은 면이 반듯하여 거울같이 생긴 바위이고 명록암은 어느 한 선비가 칠보산의 명소들을 기록하기 위해 이곳에 앉았던 바위라고 한다.

비류담

명경암과 명록암을 보고 한 굽이를 지나면 길언덕아래쪽에 묘하게 생긴 담소가 눈에 뜨인다.

내물이 담소에 떨어져서 부글부글 끓는것 같다고 하여 비류담이라고 한다.

넓은 암반우로 급히도 흘러내린 맑은 물이 이곳 담소에 떨어져서는 억만구슬알로 되여 뿌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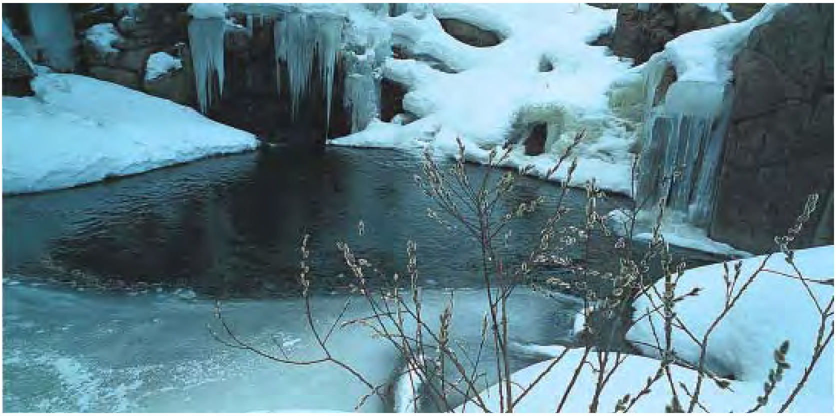
반월봉

반월봉은 안심다리에서 기본도로를 따라 150m정도 내려가서 키낮게 솟은 봉우리이다. 봉우리가 반달처럼 곱게 생겼다고 하여 반월봉이라고 한다.

봉우리에는 두마리의 상어가 하늘높이 뛰여오르는듯 한 모양의 상어바위와 앉아있는 모양이 선비같다는 문관바위 등이 있다.



상어바위



비류담

두부바위

두부바위는 관광도로에서 안심다리에 들어서면서 오른쪽으로 바라보이는 반월봉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네모난 큰 바위우에 한변의 길이가 1.5m인 바른 6면체를 이룬 또 하나의 바위가 올라있는 두부바위는 사람이 다듬어 올려세운것 같이 정교해보인다.

두부바위앞에는 식칼을 곧추세워놓은것 같은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전설에서 두부를 베던 칼이라고 전해지고있다.

두부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옛날에 칠보산구경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이 길목에서 한 녀인이 떡과 두부장사를 하고있었다고 한다.

어느날 떡은 다 팔고 두부 한모만이 남게 되였다.

녀인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가려고 누구든지 길가던 나그네 배고프면 먹으라고 잘 보이는 곳에 두부를 놓고 갔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음날에도 사람들은 임자없는 두부에 일체 손을 대지 않다보니 두부는 그대로 놓여있었다.

그때 마침 이웃나라에서 구경을 온 한사람이 《왜 두부가 저기에 저렇게 놓여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고장사람이 사실을 말해주었더니 그 외국사람은 《정말 조선은 듣던바대로 동방례의지국입니다.》라고 크게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후 두부는 점점 커지더니 바위로 굳어졌다고 한다.

금수봉

금수봉은 내원골어구의 동쪽에 솟은 봉우리이다. 여러가지 산짐승과 새들의 모양을 갖춘 바위들이 많다고 하여 금수봉이라고 하였다.

금수봉에 오르면서 첫눈에 안겨오는 바위가 저두암이다. 쑥 내밀린 바위의 모양은 게걸스레 먹이를 먹는 돼지대가리와 신통히 같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하천을 따라가면 용맹스러운 사자모양의 바위가 있다.

그리고 사자바위의 오른쪽에 있는 바위가 부엉이바위인데 앞가슴마저 희끗한 부엉이모양 그대로이다.

또 몇걸음 옮기면 힘내기라도 해보려는듯 곰바위가 대가리를 불쑥 내민다.

다음에는 여러 동물들의 위

력을 심판이라도 서는듯 한 손벽바위가 솟아있다. 손벽바위 밑에는 무엇을 금시 쪼아먹을듯 한 부리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뻐꾸기바위가 맵시있게 앉아있다.

봉우리말기에는 이 짐승들의 무리를 구경이나 하는듯 동자바위가 서있다.

판와골

판와골은 내원구역의 서북쪽 멀리에 있는 약태봉의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골안이다.

약태봉이란 말은 초약봉지를 한첩두첩 쌓아올려놓은것 같다고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판와골은 지난날 나무기와를 만들던 골안이라는데로부터 이름지은것인데 너레골이라고도 한다. 판와골의 북쪽산릉선에는 거부기바위, 탈바위, 꽃떡바위들이 있다.

거부기바위

거부기바위는 두부바위를 지나 북쪽의 판와골의 산릉선에 서있는 바위이다. 거부기가 바위벽에 곧추 붙어서서 더는 올라갈수 없어 멈춰선것 같다.

거부기바위를 보면 《토끼전》옛말을 생각하게 된다.

-전설-

토 끼 전

옛날 동해 룡왕의 딸이 속병을 앓았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토끼간을 구하여 약에 섞으면 병을 고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다가운데는 토끼가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때 웬 거부기 한마리가 룡왕에게 자기가 그것을 구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륙지에 나온 거부기는 토끼를 보고 《바다가운데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샘이 맑고 돌이 깨끗하며 짙은 숲과 맛좋은 과실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가 닥치지 않고 사나운 새,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니 네가 만일 가게 되면 편안하게 살면서 근심이 없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토끼를 등에 업고 2~3리쯤 헤염쳐 가다가 거부기는 토끼를 돌아보면서 《지금 룡왕의 딸이 병에 걸리여 토끼간을 약으로 쓰려하기때문에 수고를 가리지 않고 너를 업고 오는것이다.》라고 하였다.

토끼가 말하기를 《아뿔사! 나는 신령의 자손이라 오장을 꺼내여 씻어서 넣을수 있다. 요지음 속이 약간 불편한듯 하여 잠시 간과 염통을 꺼내여 씻어가지고 바위돌우

에 두었다.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그 길로 오는 바람에 간은 지금 거기에 있으니 돌아가서 간을 가지고 오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려는 약을 가지게 될것이요 나는 간이 없더라도 살수 있으니 피차에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거부기는 그 말을 곧이 듣고 돌아서서 막 언덕에 오르자 토끼가 뛰여나 풀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부기에게 이르기를 《어리석다! 거북아 어찌 간없이 사는 놈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거부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

토끼바위와 호구암

토끼바위와 호구암은 외칠보로 가는 기본관광도로의 길가에 있는 바위들이다.

토끼바위는 금수봉을 지나 한굽이를 돌아서는 길목의 왼쪽 바위우에 있다. 바위모양이 신통히도 토끼처럼 보이는데 마치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몰라 주위를 긴장하게 살피며 조심히 아래로 내려가는 자세이다.

토끼바위를 바라보며 굽이길을 돌아 얼마쯤 가면 호구암이 있는데 범바위라고도 한다.

범의 아래턱은 큰길바닥, 웃턱은 길쪽으로 쑥 내밀리워있다.



범 바 위

그안의 이틀과 이발가장자리, 낮은 코등은 틀림없는 범의 아가리이다.

배골

배골은 북쪽의 약태봉과 선왕봉사이에 이루어진 골짜기로서 배나무가 많아서 배골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호구암을 지나서 200m가량 내려가면 좁다란 골짜기가 열려있는데 이곳이 배골어구이다. 배골에서 보게 되는 기암들은 봉화암, 적대바위, 북바위, 쌍마암 등이 있다.

봉화암은 배골의 동쪽 큰길가에 있다. 화염이 불타오르는듯한 불그스레한 색갈을 띠고 그 모양도 봉화모양을 하고있다.

배골로 약 1km 들어가면 북쪽의 선왕봉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줄기우에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군사들같다는 적대바위가 나타난다. 적대바위밑으로 골짜기를 따라 2km정도 들어가느라면 북쪽산릉선에 기묘한 바위들이 있다.

각이한 키로 붙어선 기둥모양바위 세개와 두개씩 붙어서있는 2개의 바위, 그 다음에는 외기둥바위우에 둥근 돌이 놓여있다. 이 바위를 북바위라고 한다.

옛날 북잡이군이 승전고를 울리다가 두고간 북이 세월이 흘러 돌로 굳어진것이라고 전해온다.

북바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필의 말이 사이좋게 딱 붙어선것 같은 쌍마암이 있다. 크기와 모양이 어느쪽에서 보나 꼭 같아 한배로 난 쌍둥이같다.

꿈바위

금수봉을 떠나 3km정도 내원골을 따라 들어가면 소나무숲이 울창한 내가에 바위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있다.

크기나 모양새가 특이하게 보이는 바위도 아닌 이 바위에 어떻게 되여 꿈바위라는 이름이 붙게 되였는지 그 사연을 전하여주는 전설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전설-

꿈 바 위

옛날 내원골에는 도월진이라는 사람이 성지라는 외아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안해마저 없는 집에 그도 늘쌍 병으로 누워있다나니 집안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앓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손을 굳혀온

성지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칠보산을 메주밟듯 돌아다니며 좋다는 약초는 다 뜯어다가 약을 달여드렸고 비록 흰쌀밥은 못될지언정 하루 세끼 더운 밥을 꼭꼭 대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나무를 한짐 해지고 내려오던 성지는 너무도 초기증이 몰려와 이곳 바위곁에 나무짐을 내려놓고는 바위우에 올라앉았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깜빡 잠들어버리고말았다.

그런 속에 하얀 구름장이 휘- 몰려오더니 구름속에서 난데없이 백발로인이 성지를 지켜보며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하늘에서 사는 신선할아버지이다. 네가 부모님께 하도 효성이 지극하기에 너를 돕자고 하니 래일 다시 이곳 바위우에 와있도록 해라. 무슨 일이 있던지 겁을 먹지 말고 용맹해야 하느니라.》

깨여보니 꿈이였다. 성지는 너무도 생시같아 다음날 바위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갑자기 시꺼먼 구름이 덮이고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치며 내원골의 모든것을 다 휘감아갈듯 하였다.

이때 번쩍- 하는 번개불속에서 겁에 질리운 한 녀인이 종종 걸음을 치는것이 언뜻 눈에 띄였다.

동시에 그 뒤를 바싹 물고 뒤따르는 범이 보였다. 조금만 아차하는 순간이면 범의 밥이 될 판이였다. 바위우에 있던 성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범을 향해 내리뛰며 쥐고있던 도끼를 휘둘렀다.

범도 만만치 않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성지의 머리우를 넘나들었다.

성지는 머리우로 날듯 하는 범의 골통을 찍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도끼를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범은 더는 어쩔수 없는듯 어디론가 달아나고말았다.

범을 물리친 성지가 혼겁하여 쓰러진 녀인을 일으켜세우니 그는 뜻밖에도 아릿답게 생긴 처녀였다. 처녀, 총각이 마주서니 서로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성지가 먼저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 비나 그어가라고 하며 집으로 향하였다.

처녀는 총각을 따라가는것이 부끄러운 일이였으나 그냥 길을 가기도 무섭고 또한 은인에게 인사도리도 차리지 않는것이 례의에 어긋난지라 총각이 하자는대로 하였다.

처녀는 칠보산의 북쪽 변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자 화대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가던 길이였다.

성지의 집에 들어가 비멎기를 기다리며 다소곳이 앉아 조심히 방안을 둘러보는 처녀의 눈에 안겨드는 집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처녀는 며칠을 있으며 집살림을 거들어주기로 결심하고 그날부터 빨

래, 그릇닦기 등 집안을 꾸리는데 달라붙었다. 처녀의 손길이 미치면 모든것이 새로와지고 기름기가 돌았다. 때식마다 끓이는 음식 또한 같은 감인데도 감칠맛이 돌았다.

어느 하루 아버지는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이제는 그만하고 길을 떠나라고 하였다.

처녀는 오히려 눈물이 글썽하여 로인에게 아뢰였다.

《아버님, 저는 아드님의 덕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을진대 어찌 은인에게 갚음도 없이 다른데로 가겠습니까. 저는 한생을 이 집에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려고 합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로인앞에 엎드리며 큰절을 하는것이였다.

뜻밖의 일에 아들의 기쁨 또한 이를데 없었다. 그사이 성지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이 자리잡은 처녀이기도 하였다.

그후 부부가 된 그들이 아버지에게 지성을 다하니 다음해부터는 드디여 자리를 털고일어나 집살림을 도왔고 100살까지 장수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아버지가 여생을 마칠 때까지 그들부부가 효도를 다해 모셨다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꿈을 꾸고 행운을 얻은 바위라고 하여 꿈바위라고 불러온다는것이다.

홰불바위

홰불바위는 관음봉의 봉우리에 솟은 바위이다. 5m높이의 원기둥우에 직경 1m가 되는 둥근 돌이 올려놓여있다.

원기둥과 둥근 돌사이는 0.4m의 가는 목으로 되여있어 돌을 밀기만 하면 금방 굴러떨어질것 같기도 하고 목이 부러져나갈것 같기도 하다. 묘하게 생긴 바위를 어느 한 방향에서 보면 방망이끝에서 타오르는 홰불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위이름을 홰불바위라고 부른다.



홰불바위

성새암과 장수암

성새암과 장수암은 내원골막바지의 서쪽에 있는 바위들로서 개심사구역과 가깝다.

성새암은 성벽을 높이 쌓고 일정한 곳에 성문을 낸것처럼 보인다.

성새암의 안쪽에는 장수암이 키높이 서있다.

마치 장수가 진격명령을 내리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일만군사가 쏟아져나올것만 같다.

선녀굴

선녀굴은 성새암아래에 있는 반달처럼 생긴 굴이다.

옛날 하늘의 선녀들이 6월 류두날과 8월 추석날에 칠보산구경을 내려와서 낮에는 산구경을 하고 밤이 되면 무희대에 올라 휘영청 밝은 달빛아래에서 노래부르고 춤을 추며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속세의 인간이 나타나면 어느새 굴에 숨군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반월굴이라고 불리우던 굴이름도 선녀굴로 고쳐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탐승객들은 다시 개심사구역으로 갈수도 있고 내원골입구로 되돌아나와 외칠보구역으로 빠져나갈수도 있다.



성 새 암

이선암구역

이선암구역은 북쪽의 세존봉과 동쪽의 덕봉, 서쪽의 상매봉과 옥태봉, 남쪽의 남산암을 경계로 이루어진 내칠보명승지의 하나이다.

내칠보의 남쪽에 있는 이선암구역의 모든 기암들은 덩지가 크고 충천한 기상을 나타내고있는것이 특징적일뿐아니라 온갖 물건모양을 담고있어 내칠보의 만물상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선암구역으로 가는 등산도로는 외칠보의 포하와 포중을 거쳐 들어가도록 되여있다.

포하천을 거슬러 등산도로에 들어서면 이쪽저쪽으로 골짜기가 나지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매미골이 나진다.

매미가 류별나게 많아 매미골이라고 불리우는 이 골에 여름철이 되면 매미의 울음소리로 귀가 메일 정도이다.



포중소나무

삿갓솔(포중소나무)

삿갓솔은 오늘의 포하천 상류로 거슬러 약 3㎞ 올라가서 매미골어구에 있는 특이한 소나무이다.

나무갓모양이 삿갓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불리워온 이름이다.

삿갓솔의 나이는 200년이 넘고 그루직경은 0.9m이다. 우산살처럼 사방으로 퍼진 나무갓의 직경은 20m나 된다.

솔잎은 짧고 빽빽하여 진록색을 띠였는데 마치 누벼놓은 푸른 비단같다.

소나무는 그 특이한 모양새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 보호관리되고있다.

삿갓솔이 서있는 매미골에는 옛날 자그마한 동네가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과부대신 시동생이 장가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전설-

과부대신 업혀간 시동생

옛날 매미골에는 장가 못간 늙은 총각이 홀로 있는 형수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그런데 포하해안 어촌에서 사는 홀아비가 이 집 과부형수를 몽둥서방을 들겠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 소문을 들은 과부는 근심이 짙었다.

그러던중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느날 형수는 시동생을 불러 말하였다.

《적은이, 오늘 초저녁에 몽둥서방을 온다누만.

내가 묶이워가면 이 집 가문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길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그러니 적은이, 내가 시키는대로만 해주오.》

그런 다음 시동생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분단장까지 곱게 하여 자기 방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는 녀자의 수집은 태도를 가질뿐 음성을 내지 말고 못이기는 체 하면서 그들이 하자는대로 움직이라고 당부하였다.

그날 저녁 포하홀아비가 와서 《과부》를 홀치여업고 달아났다.

그리고는 들떠서 놀란 《과부》를 안정시키려고 시집갈 나이에 이른 녀동생방에 넣고 쇠를 잠그어 놓았다.

이날 밤 홀아비의 녀동생은 새로 맞은 오레미를 안심시키느라 가지런히 누워서 온갖 친절을 다 보이였다.

그러다나니 과부대신 잡혀간 나이먹은 적은이가 가만 있을리 만무하였다.

더는 참을수 없는 로총각은 처녀를 와락 그러안았다.

당황망조한 처녀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고 몸부림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리하여 홀아비는 자기가 장가를 든것이 아니라 녀동생을 출가시킨것으로 되였다고 한다.

숙녀암

삿갓솔을 보고 포하천을 거슬러 10리가량 올라가면 오른쪽산중턱에 숙녀암이 있다.

키가 20m정도인 외대바위는 늘씬한 조선녀성의 모습을 부각한듯싶다.

자모암

숙녀암을 보고 300m정도 올라오면 또 하나의 바위가 눈길을 끄는데 이것이 자모암이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서있는것 같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자모암을 보고 포하천을 거슬러 얼마정도 올라가면 한삼포에 이르게 된다.

전망봉

전망봉은 한삼포의 북쪽산줄기에 솟아난 작은 봉우리이다.

전망봉에서는 여기저기 솟아난 기암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전망봉으로 오르는 길에서 처음 볼수 있는 기묘한 바위는 광대바위이다.

광대바위

한삼포의 북쪽 전망봉의 산발을 타고 약 2㎞ 오르면 광대바위가 있다.

소나무와 잡관목이 뒤덮여있는 산중턱에 우뚝 솟아있는 20m이상 되는 광대바위는 마치 삿갓을 쓴 사나이가 춤을 추는것 같은 모양이다.

중바위

전망봉의 서쪽 가까이로 보이는 바위로서 솔밭속에 외로이 서있다.

두손을 모으고 정숙하게 선 자세는 중이 념불을 외우는듯하다.

여기에는 색을 범한 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전설-

색을 범한 중

개심사의 어느 한 젊은 중은 불공드리러온 한 녀인과 간통하고나서 생각해보니 오계를 심히 어기였는지라 마음이 켕기여 절간에 더는 있을수가 없어 뛰쳐나오고말았다고 한다.

중이 이곳에 와보니 산수풍경이 대단히 좋은지라 이 자리에 절간을 하나 지어놓고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염라대왕이 자기의 죄를 꿰뚫어보고 틀림없이 지옥으로 보낼것만 같았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속죄의 마음으로 모대기던 중은 바위로 굳어져 중바위로 되였다고 한다.

이선암

이선암이란 두 신선의 기상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선암구역의 서북쪽방향에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있는 이선암은 웅장하고 기묘한 점에서는 내칠보의 으뜸이라고 할만 한 바위이다.

군선암

군선암은 이선암 다음으로 산줄기끝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바위들이다.

마치 내칠보 만물상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하늘의 선녀들이 몸단장을 하고 줄지어 나와 이선암앞에서 노래부르고 춤을 추는듯 하다.

군선암의 맨 앞에 있는 바위를 자세히 보면 머리에 족두리를 얹은 선녀모양인데 이것을 족두리바위라고 한다.

옛날 한 선녀가 시집을 가려고 첫날옷을 떨쳐입었는데 다른 선녀들이 칠보산구경을 간다기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시집가는것조차 미루고 첫날옷차림 그대로 다른 선녀들의 맨 앞장에 서서 칠보산에 왔다는것이다.

신선암

신선암은 이선암, 군선암의 우에 인형처럼 생긴 큰 바위이다.

마치 하늘의 신선이 만물상에 내려와 춤추고 노래부르는 선녀들을 대견스레 바라보고있는듯 하여 신선암이라고 한다.

신선암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전설-

선남, 선녀들과 함께 굳어진 신하

하늘나라 선남, 선녀가 경치좋은 곳을 찾아 달나라, 별나라, 구름나라 다 돌아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땅우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 칠보산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선남, 선녀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곳을 이제야 알게 된것을 섭섭히 생각하며 이곳에 내려 세월이 가는줄 모르고 즐기였다.

옥황은 대노하여 제일 믿음직한 신하 한명을 칠보산으로 내려보내였다.

빨리 선남, 선녀들을 찾아 데려오라는것이였다.

옥황의 령을 받고 신하가 칠보산에 내리니 산천경개 수려한데 여기저기에 눈길을 끄는 기묘한 바위들이 솟아있어 발길을 뗄수가 없었다.

참말로 선남, 선녀들이 즐길만한 곳이였다.

신하는 옥황의 어명도 잊은채 칠보산구경에 정신을 팔았다.

그러던 어느날 신하는 만물상의 이곳에서 선남, 선녀들을 만나게 되였다. 뜻밖에 하늘나라의 신하를 만난 선남, 선녀들의 기쁨은 그지없었다.

신하는 《옥황님이 기다리는데 이제 우리 사흘만 더 놀고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보이는 칠보산의 황홀경에 신하도 선남, 선녀들도 사흘 약속이 석달 약속으로 되고 다시 3년 약속으로 되였건만 3년 약속도 만족치 못하여 끝내는 칠보산에 영원히 남아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다고 한다.

랑군바위, 안해바위

랑군바위와 안해바위는 북쪽의 세존봉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줄기와 이와 평행되게 내린 서쪽 산릉선의 웃부분에 있는 바위이다.

웃쪽에 있는 랑군바위는 몹시 여윈 사람처럼 높고 가늘며 아래쪽에 있는 안해바위는 가슴이 둥실하고 몸집이 크며 머리가 작아보인다.

이 바위들에 미남과 미녀에 대한 전설이 깃들어있다.

-전설-

바위로 굳어진 안해와 남 편

옛날 세존봉줄기의 매봉령아래 원동마을 어느 한 집에 칠대장손으로 귀동자가 태여났다.

애기는 칠보산의 맑은 물과 청신한 공기를 마시면서 튼튼하게 자랐다. 게다가 산삼까지 캐여먹였더니 점차 체모가 미끈한 소년으로, 창파우에 솟은 달같이 환한 미남으로 자라났다.

미끈한 총각이 된 그에게 부모들은 해칠보마을에서 해당화같이 아름답고 마음씨고운 처녀를 골라 결혼시키였다.

동리사람들은 이들을 두고 원앙새같다면서 부러워들 하였다.

생김새만이 아니였다.

신혼부부인 그들은 산나물을 뜯거나 버섯을 따러 가도 같이 다녔고 농사일을 하여도 붙어다니였다.

밤에도 역시 같았다. 남편은 누가 안해를 빼앗기라도 하려는듯 꼭 껴안고 자군 하였다.

신혼생활이 흘러 몇달이 되였을 때였다.

안해는 남편의 몸이 눈에 띄게 자꾸 축가는것이 걱정스러웠다. 알고보니 매일밤 함께 자기때문이라는 것이였다.

어느날 지극한 안해는 시어머니와 의논하고 몇달만이라도 자리를 갈라 살기로 하고 마을동쪽 골짜기에 초막을 짓고 혼자 나가 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며칠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안해가 있는 초막까지 찾아왔다.

《한시라도 당신없이는 못 살겠소. 어서 집으로 가기요.》

안해는 그러는 남편에게 사정하다싶이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신색이 말이 아니예요. 그러다 당신이 쓰러지면 난 어떡해요. 조금만 몸을 더 추세우고 함께 살자요.》

안해가 간절히 말했으나 남편은 싸늘한 눈길과 격한 어조로 《에익, 그럼 그만두기요.》 하더니 화김에 산으로 오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선채 돌로 굳어지고말았다고 한다.

안해 역시 자기 심정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청을 지나치게 거절한 자신을 뉘우치기도 하다가 혼자 살아서 무엇하랴 하고 눈을 꼭 감은것이 절명되여 바위로 굳어졌다.

이리하여 이들은 죽어서도 사랑의 바위로 되여 서있게 되였다는것이다.





외
칠
보

외칠보는 내칠보에서 내려와 외칠보다리를 건너 바다쪽으로 나가는 길에 펼쳐진 명승구이다.

외칠보는 아기자기한 내칠보와는 달리 큼직큼직한 형태를 이루고 웅장하고 기세찬 기상을 드러내고있는것으로 하여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남성적인 미를 나타내는 절승경개라고 일러오고있다.

외칠보는 그 지역적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장수봉구역, 만물상구역, 로적봉구역, 덕골구역, 강선문구역, 황진온천구역, 다폭동구역들이 있으며 앞으로 명천군의 선암구역, 명간군의 룡연구역과 같은 새로운 명승구역들이 개척될것이 예견되고있다.

외칠보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조약대에는 정각이 세워져있는데 이 정각에는 망원경이 설치되여있어 만물상의 경치를 한눈에 부감할수 있다.

외칠보의 명승구역에 대한 탐승은 내칠보의 내원구역을 보고 장수봉구역부터 시작할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해칠보를 본 다음에 다폭동구역으로부터 기본관광도로를 따라 차례차례로 진행할수도 있다.

장수봉구역

장수봉구역은 장수봉과 맹수봉의 남쪽으로 펼쳐진 명승구역으로서 심원골과 가전골일대를 포괄하고있다.

장수봉구역은 심원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암, 명소들을 관광도로에서 관망할수 있다.

내칠보의 내원구역에서 내원다리를 건너서면 외칠보의 장수봉구역이 시작되게 된다.

위인봉

위인봉은 장수봉구역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솟아있는 바위봉우리이다.

소나무숲우로 우뚝 솟은 바위의 높이는 60m나 된다.

위인봉은 심원골의 중심에서 바라보면 마치 백두산의 정일봉을 련상케 한다.

수리봉

수리봉은 심원골어구에 솟은 바위봉우리이다.

봉우리는 기둥식바위들로서 예로부터 독수리가 이 봉우리의 바위절벽우에 둥지를 틀고



수 리 봉

서식한다는데로부터 수리봉이 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선왕봉

선왕봉은 심원골중심에서 서쪽으로 솟은 봉우리이다.

선왕봉은 산짐승들도 발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날카롭게 솟아 칼봉을 이루고있다.



장 수 굴

선왕봉의 남쪽기슭에는 예로부터 이름난 장수굴과 장수샘이 있다.

선왕봉기슭을 따라가느라면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물은 보이지 않는다.

귀를 강구고 물소리나는 곳을 찾아서 가면 자그마한 바위굴이 나타나는데 물소리는 바로 이곳 굴안에서 나는것이다. 이 굴이 장수굴이다.

닭알모양으로 생긴 이 장수굴안의 왼쪽 천정에서 팔뚝만한 굵기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린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은 굴안의 바닥에 약간 고였을뿐이고 어

디론가 다 새여버린다.

이 물이 장수샘이다. 비밀굴에 비밀샘인셈이다.

장수굴, 장수샘의 이름은 옛날에 심원골의 한 청년이 이 굴에 거처하면서 이 물을 계속 마셨더니 힘이 세여지고 몸이 장대해져 장수로 되였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고 한다.

심원골

심원골은 심원다리를 건느기전에 왼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보촌천이 흘러내리는 심원골을 따라 들어가면 그 좌우로 봉과 바위들이 솟아있는것을 볼수 있다.

심원골의 웃쪽 선왕봉의 북쪽기슭에는 만경폭포와 다단폭포가 있고 심원골의 오른쪽에는 동성암과 오적굴이 있다.

만경폭포와 다단폭포

선왕봉기슭을 감도는 하천을 거슬러 300m가량 골짜기로 들어가면 만경폭포가 있다.

만경폭포의 높이는 9m이다. 만경폭포에서 2㎞ 더 들어가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다단폭포가 있다.

돌계단처럼 생긴 바위우에서 물이 층을 이루면서 떨어지는데 주위에는 단풍나무들이 자라고있어 더욱 아름다운 운치를 드러내고있다.

동성암, 오적굴

심원골로 뻗은 관광도로를 따라 3㎞정도 들어가면 길 오른쪽의 산릉선에 담벽을 친듯 북남방향으로 바위가 솟아있다.

마치 한 마을의 울타리를 친듯 하다고 동성암이라고 한다.

동성암에 오르면 넓은 면적에 소나무숲이 우거졌는데 이곳 숲속에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굴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적굴이다.

장수봉

장수봉은 장수봉구역의 동쪽에 솟아있는 봉우리로서 높이는 346m이다.

울창한 소나무숲에 떠받들리운듯 한 장수봉은 봉우리에 봉우리가, 바위우에 바위가 솟아 웅장한 기상으로 우뚝 솟아있다. 장수봉의 동쪽에는 맹수봉이 나란히 솟아있다.

장수봉과 맹수봉골짜기에는 명소들이 많다. 이곳 명소들은 관광도로를 따라가며 거의나 다 볼수 있다.

처녀바위, 총각바위, 고양이바위

장수봉기슭에 서있는 이 바위들은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두고있는데 큰길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

외칠보의 학교마을로부터 가전다리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가느라면 길섶으로 흐르는 강가에 바투 다가선 절벽우에 총각바위가 우뚝 서있고 그옆 약 100m가량 떨어져서 처녀바위가 서있다. 그리고 처녀바위밑에는 말끄러미 처녀를 올려다보는 고양이를 방불케 하는 고양이바위가 있다.

처녀바위는 비물에 젖은 치마폭을 한손으로 감싸쥐고 비옷을 걸친채 수집은듯이 서있는 얌전한 처녀를 방불케 하며 총각바위는 무뚝뚝하고 순박한 총각이 처녀에게 어색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서있는것처럼 보인다.

자연바위의 형상이 너무도 생동하고 신통하여 길가던 사람들은 모두 발길을 멈추고 이 바위들을 이모저모로 뜯어보면서 웃음을 금치 못해한다. 이 바위들에는 내원동의 총각이 가전동의 처녀와 사랑을 언약한 순간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

장수봉기슭에서 만난 처녀와 총각

내원동의 훈장집에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여 이 집에 들어와 20살이 다 되도록 의지해 사는 총각이 있었다.

그는 여름철에는 주인집의 황소를 맡아보면서 매일같이 꼴을 한망태기씩 베왔고 겨울에는 매일같이 눈이 무릎까지 치는 장수봉골짜기로 들어가 땔나무를 해왔다.

훈장집총각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힘겨운 로동속에서도 매일같이 칠보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것이고 요즈음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가전마을에 사는 봉임이라는 처녀를 머리속에 그려보거나 이따금씩 말없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이였다.

가전마을의 봉임은 어려서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나 아버지를 돌봐주면서 살아가는 처녀였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봉임이가 하루가 다르게 피여나 처녀꼴이 잡혀오자 그의 아버지는 무던한 데릴사위를 맞아 쌀이나 물고기도 비교적 푼푼한 바다가로 옮겨가 살아보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봉임이의 생각은 달랐다. 요즈음 그의 가슴속에는 내원골훈장집 총각의 듬직하고 순박한 모습이 정겹게 파고들었다.

전해 겨울이였다. 고된 일로 해서 생긴 고질병이라 할가 동삼에 모진 기침으로 아버지는 거의 바깥출입을 못하고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지냈다. 그러므로 봉임이는 겨울이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눈이 무릎을 치는 산으로 올라가 땔나무를 해왔다.

그날도 장수봉에 올라가 땔나무를 한단 큼직하게 묶어가지고 산골짜기로 내려오고있었다. 눈이 많이 덮이여 길을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길을 더듬다가 그만 발을 헛짚어 벼랑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깊은 눈속에 묻히였다.

이때 내원동의 훈장집총각도 나무를 해지고 골짜기로 내려오고있었다. 그런데 어느 절벽밑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나무단과 눈무지가 움씰거리는것이 보이였다.

총각은 얼른 지게를 땅에 내려놓고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는 눈을 헤집고 나무단을 들어옮겨놓고 그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안아일으켰다.

순간 총각은 깜짝 놀랐고 온몸은 숯불을 가슴에 안은듯 달아올랐다.

머리와 온몸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선 사람은 가전마을의 봉임이였던것이다.

날씬한 몸매, 갸름하고 빨갛게 상기된 얼굴, 흑진주처럼 반짝이는 정겨운 눈길, 눈속에 묻혔다 일어선 봉임은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훈장집총각은 이렇게 숙성한 아름다운 처녀를 가까이에서, 그것도 인적드문 호젓한 산골에서 만나보기는 처음이였다. 자기의 눈길이 처녀의 실팍한 몸매를 스치고 그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총각의 온몸은 타는듯이 달아올랐다.

《고마와요, 거기서는 어데서 사시나요?》

구슬을 굴리는듯 한 부드럽고 정다운 처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총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맙긴, 큰일날번 했구만. 나는 내원골에 사오다. 이 심산속에서 눈속에 아주 파묻히면 어쩔려구. 그 집에는 남정네의 일손이 없는 모양이지?》

총각은 얼결에 처녀에게 이런 물음까지 건네였다.

봉임은 눈속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고마운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잊고 총각에게 자기 집사정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총각과 마주서서 사설을 늘어놓은 자신에 대한 쑥스러운 생각이 들자 주섬주섬 나무단을 들어 머리에 이려고 하였다.

《나무단을 이리 주우다. 내 가전다리목까지 져다줄게.》

훈장집총각은 만류하는 처녀의 손을 뿌리치고 나무단을 한손으로 번쩍 쳐들어 자기 지게우에 덧놓고 새끼로 비끄러맸다. 그리고 《끙-》하고 지게를 지더니 앞서걸었다.

이날 내원동총각은 처녀의 나무짐을 가전다리목까지 지고가서 그의 머리우에 이여주기까지 하고 돌아섰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두 청춘남녀는 서로 가슴속에 지울수 없이 새겨져 보고싶어지고 그리워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남녀7세부동석》이라는 봉건유교도덕관념이 강하게 작용하고보니 눈이 많은 형편에서 두사람이 조용히 만나기란 견우와 직녀의 상봉과 같이 어려웠다.

겨울도 물러가고 칠보산에도 새봄이 왔다.

처녀에 대한 그리운 생각으로 가슴을 태우던 어느날 내원동총각은 총총걸로 울바자감을 찍으려 가던 길에 개울에서 동네녀인들과 같이 빨래를 하는 가전처녀를 먼발치에서 보았다. 그 처녀가 눈에 뜨이는 순간 총각의 피는 온통 심장속에 흘러드는듯 하였고 가슴은 쿵쿵 소리치며 방아를 찧는것 같았다.

당장 달려가 처녀의 손을 부여잡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그러나 동네녀인들의 눈이 많아 그럴수가 없었다.

인기척을 느낀 처녀도 머리를 쳐드는 순간 이쪽을 알아보았다.

처녀도 두 시선이 부딪쳐 불꽃을 튕기는 순간에 심장이 멎는듯 한 흥분이 온몸을 엄습하는듯 규칙적으로 두드리던 빨래방치질을 잠시 뚝 그치였다. 그의 얼굴과 목덜미는 금시 겯불을 쏘인듯 고추빛이 되였다. 처녀는 옆에 앉아 같이 빨래하는 녀인들이 달라진 자기를 알아볼가봐 얼른 빨래를 물속에 담그고 헹구었다.

먼발치에서 남모르게 눈길을 맞춘 후 두 청춘은 더욱더 그립고 만나고싶은 생각으로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좀처럼 만날 약속도 할수 없었고 기회도 얻을수 없었다.

그해 여름 어느날이였다.

연한 나무잎과 만문한 새풀을 활짝 키워주며 시들어가던 조와 수수포기들을 추세워주는 가랑비가 뿌연 하늘에서 부슬부슬 내리였다.

이날 우연한 일이 생겨 두 청춘이 만나게 되였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가전마을 처녀의 집에는 그가 정을 기울이며 귀여워하는 고양이가 있었다. 그 고양이로 말하면 로적골에 사는 한 할머니가 고간의 쌀을 축내는 쥐를 잡으려고 어디에서 얻어오다가 길가에서 놓쳐버린것이였다.

할머니가 다리쉼을 하는 참에 나타난 산쥐를 잡는다고 산으로 뛰여올랐던 고양이는 주인을 잃고 헤매

다가 가전처녀의 집으로 찾아들어와 살게 되였다. 처녀의 살틀하고 다심한 손길밑에서 고양이는 이 집에서 귀동자처럼 자라고있었다.

어느날에는 어머니로부터 귀중한 유물로 물려받은 처녀의 은비녀를 쥐라는 놈이 물어간것을 고양이가 찾아주었다. 고양이는 기름종이에 싼 은비녀를 물어간 큰 쥐를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뒤쫓아가서 물어메치고 귀중한 유물을 주인처녀에게 물어다주었다.

이런 일로 해서 가전처녀는 고양이를 더욱 귀여워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갑자기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다. 어뜩새벽에 문밖에 나선 고양이는 밥을 훔쳐먹으려고 부엌에 들어왔다가 도망치는 쥐를 발견하였다.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고 그를 뒤쫓아 장수봉 바위등판으로 올라갔다. 처녀는 낡은 치마를 비옷삼아 걸치고 고양이를 찾으려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내원동 훈장집총각은 가랑비 내리는 궂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에게 새풀을 베여다 먹이려고 장수봉으로 올라왔다. 그는 꼴망태를 어깨에 걸치고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장수봉기슭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비오는 날에 여느 사람들은 마실방에 모여 로인들의 재미나는 고담이나 듣는것이 일쑤이지만 남의 집 꼴머슴인 그는 그렇게 남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신세가 못되였다. 온몸이 비에 후줄근히 젖어 산에 오르는것이 유쾌할수는 없었으나 이 장수봉으로 오를 때면 지난 겨울에 가전처녀와 만났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냥 마음은 가벼워지고 애잡짤한 흥분에 휩싸이는것이 좋았다.

언덕받이를 톺아오르던 내원골총각은 산허리의 바위우에 서있는 한 처녀를 발견하였다. 몸가짐에서 어딘지 낯익은 처녀는 무엇을 찾는듯 두리번거리더니 《재둥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그 소리는 분명 봉임이의 목소리였다.

《봉임이-》 총각은 큰소리로 처녀를 찾았다. 고양이를 찾던 가전처녀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귀익은 목소리에 놀라 목을 옆으로 돌리였다.

자기를 찾는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여오던 내원골총각임을 알아본 순간 처녀는 《앗-》 하는 가느다란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봉임이 그사이 잘 있었소? 봉임이를 보고싶은 생각으로 이 가슴은 다 타버리는것 같구만.

비오는 궂은날이지만 지난 겨울과 같이 인적없는 조용한 이곳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된것도 연분인가 보오.》

총각은 사랑하는 처녀앞에서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할지 덤비면서도 그를 못견디게 그리워해온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터놓았다.

처녀도 반갑고 기쁜 자기의 심정

을 이야기하고싶었으나 불같은 총각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수집은 생각이 앞서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그립고 만나고싶던 감정을 억제해오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두 청춘의 심장은 멎는것만 같았고 온몸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그리하여 내원골의 총각과 가전의 처녀는 이곳 장수봉기슭에서 불같은 사랑의 정을 나누던 그 자세 그대로 돌로 굳어져버리였다.

총각의 고백을 받는 행복한 순간 처녀를 말끄러미 바라보고있던 고양이도 돌로 굳어졌다.

장수봉절벽의 허리부분에 있는 총각바위, 처녀바위, 고양이바위는 이렇게 되여 생겨났다고 전해지고있다.

형제암

형제암은 맹수봉의 남쪽산릉선에 있는 바위이다.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진 2개의 바위가 붙어서있는 모양이 마치 다정한 형제같다. 형제암은 어느 힘장사가 다른 곳의 돌을 들어다 일부러 이곳에 박아놓은것 같다.

매바위

매바위는 가전골 보촌천의 동남쪽에 솟아오른 바위봉우리이다. 앞코숭이가 신통히 매같이 생겼다.



형 제 암

만물상구역

외칠보의 만물상구역은 만장봉과 문수봉, 궐문봉의 남쪽 바위벼랑에 펼쳐진 천태만상의 기암들과 그 주변경치를 포괄한다.

만물상은 말그대로 만가지 물건모양을 나타내는 바위들과 봉우리들로 꽉 차 신비경을 펼치고있다.

만물상구역에 대한 관광은 장수봉구역을 보고 만물상구역으로 직접 갈수도 있고 덕골구역과 로적봉구역을 탐승한 다음에 진행할수도 있다. 로적봉구역의 6단폭포로부터 새길령을 련결하는 탐승도로가 나있어 이 길을 리용할수도 있다.

영선암

관광도로를 따라 만물상구역의 입구에 들어서면 큰길 오른쪽으로 키가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다.

만물상구역에 들어서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려고 맞아주는듯 하다고 하여 영선암이라고 한다.

조약대

조약대는 영선암에서 새길령 골짜기로 1.5km 올라가서 있는 바위전망대이다.

조약대는 병풍처럼 펼쳐진 만물상전경이 황홀하게 한눈에 안겨오는 더없이 좋은 전망대로 되고있다.

400m 높이에 큰 바위가 채



조 약 대

양처럼 불쑥 앞으로 나와 낭떠러지를 이루고있는 이곳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감을 어쩔수 없다.

조약대에는 칠보산에서 무술을 닦은 처녀와 총각에 대한 전설이 깃들어있다.

-전설-

무술을 닦은 처녀와 총 각

먼 옛날 칠보산의 깊은 숲속에서 자그마한 초막을 치고 선아라는 처녀가 남복차림을 하고 무술을 련마하고있었다.

운학도사라고 이름을 날리던 그의 아버지는 어느해인가 북방을 침입한 외적들과 싸우다가 용감하게 전사하였다.

그때부터 선아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 일념을 안고 무술훈련에 열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무술을 련마하여 나라를 지킬 애국심에 불타던 한백호라는 젊은이가 운학도사를 찾아가던 길에 이곳 선아의 초막에 들리게 되였다.

이때 선아는 자기를 최도령이라고 소개하였다. 서로의 이야기속에서 운학도사가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 한백호는 운학도사의 제자라고 하는 최도령에게서 무술을 익히기로 하였다. 그래서 최도령이 스승이 되고 한백호가 제자가 되였다.

그들은 천태만상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칠보산에서 이 바위끝에서 저 바위끝으로 올리뛰기를 비롯하여 도끼로 바위찍기, 바위를 목표로 한 활쏘기 등으로 무쇠힘을 키웠다.

칠보산을 주름잡아 맹훈련을 하는 속에 도끼날에 바위가 깎이여지고 쏘는 활에 바위에는 구멍이 숭숭 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바위들을 부월암, 촉혈암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뛰여오르던 바위라고 하여 조약대라고 부르게 되였다.

3년간 무술을 닦으면서도 한백호는 선아가 애젊은 처녀임을 몰랐다.

한번도 자기 초막에 들여놓지 않고 동거동락을 피하는 최도령을 이상히 여길뿐 깊은 산중에 차마 처녀가 홀로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한백호였다.

더구나 무술과 지략, 힘내기에서는 자기가 감히 따를수 없었기때문이였다.

한백호가 최도령이 랑자임을 알게 된것은 3년이 지난 어느해 북쪽오랑캐들이 나라의 지경을 넘어서 온갖 만행을 다하고있을 때였다. 용맹

한 장수로 자라난 선아는 선봉장이 되고 한백호는 부선봉장이 되여 적들을 쳐부셨다.

물밀듯이 달려드는 적들속에서 한백호가 힘겨웁게 싸우고있는 모습을 본 선아는 서슬푸른 칼을 빼들고 적진속으로 비호같이 달려가며 적들을 요정냈다.

적들을 거의 몰아낼무렵 적의 화살이 날아와 선아의 가슴에 박히였다. 쓰러진 최도령의 가슴을 헤치는 순간 한백호는 그가 처녀이고 운학도사의 외동딸임을 알게 되였다고 한다.

만장봉

만장봉은 조약대의 북쪽에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봉우리의 남쪽면은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었는데 그 높이가 천길만길로 높이 솟았다고 하여 만장봉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기암들은 투구암, 련꽃바위, 봉대암, 룡마암, 아바이바위 등이다.

아바이바위는 만장봉의 남쪽 릉선에 늙은이의 모색으로 서있는 바위이다.

바위에는 《내가 어느새 이렇게 늙었나?》하고 탄식하였다는 한 로인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전설-

세월이 가는것도 모르고

옛날에 20대의 한 젊은이가 칠보산경치가 하도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와보니 듣던것보다 더 황홀경이였다.

그래서 한달정도 돌아보고 갈 예정으로 칠보산탐승을 시작하였다.

그는 천하절경에 심취되여 세월이 가는것도 모르고 이 봉우리, 저 봉우리를 돌고돌며 보고 또 보았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절경이였다.

어느해 여름날이였다. 구슬같이 흐르는 맑은 물을 손으로 떠올려마시기도 하고 세면도 하던 그는 언뜻 내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저게 내 모습이 옳단 말인가?)

머리는 다 희여졌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하였다.

(집을 떠나온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도 흘렀단 말인가?)

문득 집에서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을 안해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한편 집에 간들 젊은 시

절을 홀로 보낸 안해가 늙은 자기를 받아줄것 같지 않았다.

(에라, 차라리 칠보산에서 여생을 보내고말테다.)

이렇게 결심한 로인은 칠보산에서 명승을 즐기다가 경치좋은 만물상앞에서 바위로 굳어졌다고 한다. 죽어서도 칠보산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였다.

궐문봉

궐문봉은 만장봉의 다음 봉우리로서 만물상구역에서는 787m로 제일 높은 봉우리이다.

봉우리의 동남쪽에서 보면 넓은 바위면의 중간쯤에서 바위덕지가 뭉청 떨어져나간것이 성문처럼 되였는데 마치 빗장을 지른것처럼 보이기에 궐문봉이라고 한다.

문수봉

문수봉은 궐문봉의 남쪽에 있는 바위봉우리로서 마치 궐문봉의 품에 안기듯 하며 어찌보면 궐문봉을 지켜선 파수와 같이 봉긋이 솟아있다.



수닭바위

수닭바위

수닭바위는 문수봉앞으로 뻗어내린 산줄기의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금시 모이를 배불리 먹고 덕대에 올라앉아있는것 같다. 짧고 굳은 부리와 빳빳이 일으켜세운 볏, 봉긋이 내민 가슴팍, 앉은 턱에 금방 싸놓은듯 한 흰똥 등은 마치 이름난 조각가가 솜씨있게 다듬어놓은듯 하다.

수닭바위를 지나 아래쪽에 있는 바위가 매부리바위이다. 예리한 부리는 그 생김새가 매의것과 모양이 꼭 같다.



촉 혈 암

촉혈암

수닭바위의 아래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면에는 구멍이 숭숭 나있는데 이것은 전설의 한백호 청년이 활쏘기련습을 하여 생긴 구멍이라고 하여 촉혈암이라고 한다.

실지로 벌집처럼 구멍이 조밀하게 난것은 아득히 먼 옛적에 땅속에서 용암이 솟아나 식으면서 생겨난 기포자리인것이다.

큰곰바위와 만수샘

큰곰바위는 궐문봉기슭 새길령의 탐승길어구에 있는 대단히 큰 바위이다. 그리고 큰곰바위앞에 있는 샘이 만수샘이다. 만물상의 지심에서 솟아오르는 샘이라고 하여 불리워지는 이름이다.

물이 샘솟는 곳은 우묵한데 푸른 이끼가 더부룩하게 덮여있다. 샘의 온도는 10℃정도이고 솟는 량은 초당 0.3ℓ인데 아주 맑은 물이다. 그리고 아무리 왕가물이 들어도 마를줄 모르고 솟는 량에서 변함이 없다.

-전설-

만 수 샘

옛적에 칠보산의 암곰은 칠보산이 좁다하게 돌아쳤다.

곰은 흐르는 내물이며 샘모두를 마셔보았는데 만수샘의 물맛이 제일 좋았다.

그리하여 곰은 이곳에 아주 눌러있으면서 만수샘만을 마셨다. 그러다보니 물배만 잔뜩 불어났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몸은 점점 비대해지고 수곰생각이 못견디게 일군 하는것이였다.

곰은 날마다 수곰을 찾아가 한바탕 재미를 보고는 돌아와 둔덕에 누워 늘어지게 단잠을 자군 하였다. 물먹고 쌍붙고 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곰의 몸은 점점 더 불어나 나중에는 움직이기조차 힘들게 커지여 이곳에 누운채로 바위로 되고말았다는 것이다.

장군봉

장군봉은 조약대에서 궐문봉의 다음에 보이는 봉우리로서 만물상구역에서 두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다.

장군봉이란 이름은 이 봉우리에 장군바위가 있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장 군 봉

승천봉

조약대에서 장군봉 다음으로 보이는 봉우리이다.

옛날에 선녀들이 하늘로 오르던 봉이라고 하여 승천봉이라고 한다.

승천봉의 남쪽기슭에는 사다리처럼 보이는 승천대가 있다. 바위면이 시원하게 아래로 쭉쭉 뻗어내렸다.

선녀들이 칠보산의 승천봉에 오를 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고 한다.

락선대

승천봉의 남쪽산릉선에 말잔등처럼 조약대를 향해 놓여있는 바위이다.

락선대란 칠보산경치가 하도 좋아 하늘의 선녀들이 이곳에 내려와 놀았다는데로부터 유래된것이다.

락선대의 북쪽으로는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궐문봉이 장수봉과 잇닿아있고 궐문봉을 지켜선 파수병갈다는 문수봉이 웅장하게 안겨온다.

락선대의 동쪽으로는 월락봉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줄기에 온갖 물건모양을 나타내는 기암괴석들이 줄지어 서있다.



기러기바위



박쥐바위

그가운데서 대표적인 기암들은 박쥐바위, 독사바위, 두더지바위, 강아지바위, 비둘기바위, 기러기바위, 독수리바위, 기마바위, 뿔바위, 큰토끼바위 등이다.

월락봉

월락봉은 조약대의 동쪽에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여기에는 직경이 4m 되게 동서로 관통되여있는 둥근 문이 나있는데 이것을 월출문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동해에서 솟은 달이 월출문으로 빠져나와 월락봉쪽대기에서 남들이 볼수 없는 만물상의 야경을 독차지하며 즐기다가 새벽 동이 틀 때에야 월출문으로 빠져나가 바다가에서 잠들군 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월락봉, 월출문이라고 하였다는것이다.

월락봉에는 하늘의 옥황, 선녀와 관련된 어두암, 선분암, 룡상암, 침상암, 사자바위 등 기묘한 바위들이 많아 탐승객들의 흥미를 자아내고있다.

-전설-

칠보산에 내려온 옥황상제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는 해마다 칠보산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자랑하는 선녀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월락봉의 겨울



룡 상 암

한번 보고싶어 어느해인가 칠보산에 내려왔다.

월락봉에 내려온 옥황상제는 이곳 룡상에 앉아 외칠보만물상의 절경을 넋을 잃고 보고나서 다음날 한번 더 구경하려고 사자를 파수로 세우고 침상에 누워 잠들었다.

자정이 훨씬 넘었을 때였다.

온 산을 뒤흔들듯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호랑이소리에 놀라 잠을 깬 옥황상제는 노발대발하여 파수서는 사자를 불러 호랑이를 당장 잡아없애라고 호령하였다.

이 분부를 받은 사자는 호랑이를 찾아 온 칠보산을 헤매였으나 찾을수가 없었다.

그사이 옥황상제는 하늘로 올라가버렸고 홀로 남은 사자는 바위로 굳어져 사자바위로 되였다는것이다.

그때 옥황상제가 앉았던 바위를 룡상암, 잠자던 바위를 침상암이라고 한다고 한다.

새길령

만물상의 전경과 기암들을 보고 동쪽방향의 수림속으로 들어서면 소가 처음으로 열어놓은 령길이라고 전해오는 새길령마루에 올라서게 된다.

령마루에 올라서면 앞이 탁 트이면서 북동쪽으로 조선동해와 추진만이 바라보인다.

령마루에서 서북쪽 50m 되는 곳에는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이곳 수림우거진 바위절벽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 황진사람 정상인의 공적을 기념하여 세운 신도령비가 있다.

새길령길이 개척된 이후부터 황진사람들은 이 령을 리용하여 곧바로 가전동으로 넘나들수 있게 되였다.

이 길을 처음 개척한것은 황진에 살던 정씨로인의 암소였다고 전해오고있다.

-전설-

소가 처음으로 열어놓은 령 길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어느해 봄날이였다.

만물상의 기묘한 바위들과 절벽의 밑도리를 연분홍색갈로 아름답게 장식해주던 진달래는 지고 시내물 흐르는 깊은 골짜기와 산허리에는 생신한 연록색의 나무잎과 잡초들이 주단처럼 덮이였다.

정씨로인은 아침밥을 들기 바쁘게 암소에게 새풀도 뜯길겸 발구채감이나 찍어볼려고 암소를 끌고 칠선골짜기로 들어갔다.

칠선골의 신묘한 형상에 취하여 못박힌듯 한자리에 서서 바라보던 정로인은 문득 암소생각이 들어 발길을 옮기였다.

골짜기를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노르끼레한 만문한 풀이 부드럽게 덮여있는 훤한 등판이 나지였다.

《여기서 네 맘껏 배가 불룩하도록 새풀을 뜯고있거라. 나는 그동안저 건너편 참나무숲속에 들어가 발구감을 찍어오겠다.》

어지간히 시간이 지나 정로인은 소가 걱정되여 발구감을 끌고 등판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풀을 뜯던 암소가 온데간데없이 보이지 않았다. 소의 흔적을 찾다가 마루로 오르는 산허리에 찍힌 소발자욱을 발견하였다. 흙이 패이거나 잔돌이 부서진 소발자욱은 황진에서 산마루로 오르는 골짜기로 나있었다.

정로인은 소발자욱을 따라 월락봉의 북쪽 등마루를 넘어서 그 서쪽 골짜기로 떨어졌다. 골바닥에 내려서보니 보촌천이 흐르는 가전마을이였다.

어디선지 소의 큰숨소리가 들리는것 같아 찾아가보니 자기 집 암소가 밭채뚝의 물황철나무에 매놓은 수소와 쌍붙고있었다.

《엉, 수소생각이 간절했던 모양이지, 그 험한 등판을 넘어 이까지 오다니.》

정로인은 암소가 암내를 일으킨 것을 제때에 돌봐주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정로인은 바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소가 일을 끝내기를 기다렸다.

《말못하는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업신여기면서 힘든 일만 시키지만 소도 령물이다.

어쩌면 가전마을로 넘어오는 지름길이나 이 마을에 수소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을가? 그놈의 암소가 생각이 멀쩡하다.》

담배대통을 바위등에 툭툭 털고난 정로인은 교미를 끝낸 암소를 앞세우고 산허리를 타고 오던 길로 되돌아섰다.

암소는 만물상동쪽 계곡과 월락봉줄기가 뻗어내려서 어기는 자름목으로 난 자기 발자욱을 따라 조금도 헛갈리지 않고 걸어 넘어가는것이였다.

산말기를 넘어서는 암소를 한동안 바라보던 정로인의 머리속에는 신통한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옳지, 소가 사람보다 더 좋은 궁냥을 한셈이다.

사람들은 가전마을에서 황진으로 가거나 황진에서 가전으로 오자면 바다가로 난 보촌을 거쳐서 에돌아 오갈줄 알았지 지름길을 찾아볼 생각은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 소는 거의 수십리길을 줄여서 다닐수 있는 지름길을 알고있는셈이다.

그러니 우리 집 암소가 처음으로 낸 발자욱을 따라 길을 낸다면 가전이나 황진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박달령을 넘어 황진으로 오는 사람이나 황진에서 아간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해하겠는가.》

정로인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신통한 지름길을 깨우쳐준 암소가 대견하다고 칭찬하였다.

정로인은 마을사람들의 농사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 혼자힘으로 소문없이 해보리라 결심하였다.

다음날 아침 정로인은 삽이며 곡괭이, 호미, 삼태기 등 길닦기에 소용되는 쟁기들을 지게에 걸머지고 집을 나섰다.

정로인은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칠선골골안으로부터 월락봉 북쪽령마루로 넘어간 험한 산길을 닦느라고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갔다.

마을사람들을 위해 지름길을 닦느라고 남모르게 혼자서 많은 일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좌상로인은 정로인의 소행을 연방 칭찬하면서 래일로 씨붙임을 모두 끝내고 온 마을

사람들이 길닦기에 달라붙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황진과 가전사이의 길닦기공사는 온 마을사람들이 떨쳐나 밀고나가게 되였다.

얼마후에는 이 소식을 듣고 가전마을사람들도 길닦기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두 마을사람들이 앞뒤로 령길을 닦아올라가게 되였고 한달도 안걸려 령길이 닦아지게 되였다.

령길공사가 끝난 후 두 마을사람들은 고개마루에 모여앉아 한결같이 이 길을 내는데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정로인을 칭찬하면서 령길과 고개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가에 대하여 그에게 물었다.

《하, 이러지들 마시우다.

칭찬을 하려거든 우리 집 암소에게 하시우다. 사실 이 길을 내도록 나의 머리를 틔워준것은 우리 집 암소웨다.》

이렇게 말하며 정로인은 이 고개의 이름은 새로 지름길이 닦아지면서 생긴 고개라는 뜻에서 신도령(새길령)으로, 고개길의 이름을 령을 넘으며 통하게 된 지름길이라는 뜻에서 새령길이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을사람들도 정로인의 의견이 그럴듯하다면서 모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이 고개와 고개길은 신도령, 새령길로 불리워졌고 큰 산줄기를 사이에 두고 먼 고장처럼 지내던 가전과 황진의 두 마을사람들은 이웃동네처럼 서로 사돈을 맺으며 가까이 오가게 되였다.

석릉봉

석릉봉은 장수봉구역을 가까이하면서 관광도로의 오른쪽에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대표적인 기암들로는 봉서암, 쪽바위, 웃음바위 등을 들수 있다.

봉서암이란 봉황새들이 앉아있는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다.

쪽바위는 봉서암과 마주하여 관광도로의 오른쪽 푸른 소나무숲속에 우뚝 솟은 바위이다.

두개로 갈라진 바위가 십여m 높이로 솟았는데 그 생김새가 소나 돼지, 염소의 발통처럼 보인다고 하여 쪽바위라고 부른다.

관광길을 따라 계속 가느라면 이번에는 도로의 왼쪽에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난다는 웃음바위가 있다.

덕골구역

덕골구역은 새로 개척한 외칠보의 명승구역이다.

덕골구역은 소나무, 참나무, 사시나무, 박달나무, 단풍나무 등 수림이 우거져있는데다가 좌우 산비탈의 기암괴석,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내물이 이르는 폭포와 담소들로 일만경치를 나타내는 곳이다.

한마디로 물과 돌, 수림, 경치가 한데 어울린 특색있는 외칠보의 명승지의 하나이다.

새로 개척한 관광도로로부터 주차장이 있는 덕골탐승길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수많은 명소들을 볼수 있다.

미온천

만물상구역에서 덕골구역으로 가는 도로의 오른쪽 첫 지점에 나지는 밋밋한 등성이는 십경전이다.

십경전이란 열흘갈이밭이라는 뜻이다.

미온천은 십경전을 지나 도로 왼쪽의 너럭바위짬에서 나오는 온천으로서 그 온도는 22℃이다.

지금은 미지근할 정도의 더운물이지만 한때는 50℃가 넘는 온천이였다고 한다.

이 온천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전설-

십경전의 온천

옛날 십경전마을사람들은 미온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기운이 좋았고 녀자들은 고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해인가 큰 홍수가 나면서 온천을 휩쓸어간 다음부터는 찬물이 솟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샘가운데는 가죽으로 된 손같은것이 불쑥 솟아 물을 뜨기에 매우 불편하였다.

더운물이건 찬물이건 이 샘에 명줄을 건 십경전의 사람들은 거치장스러운 이 괴물을 없애려고 도끼로 찍기도 하고 톱으로 베여도 보았으나 찍히지도 베여지지도 않고 애를 먹이였다.

그런데 한 녀인이 불에 태워보자고 하면서 불방망이를 가져다대였더니 가죽손같은 괴물은 순식간에 불방망이를 휘감아가지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는것이였다.

그 이후로 물은 본래의 온천으로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후 언제인가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개를 산채로 묶어가지고 와서는 온수물에 잠그고 생튀를 하였다고 한다.

이때 칠보산을 다스리던 산신령이 대노하여 《이놈, 명산의 명물을 더럽히다니!》 하고 호통쳤다. 그러자 개를 튀기던 그는 겁이 더럭 나 산으로 도망쳐갔다.

산신령은 그놈을 향해 《이놈, 섰거라! 너같이 저밖에 모르는 속이 검은 놈은 검은 까마귀가 되는것이 마땅할지어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놈은 즉시에 그 자리에 까마귀모양의 돌로 굳어졌다.

지금도 바위는 거무스레하게 생겨 까마귀바위로 불리우고있는데 이때에 생겨난것이라고 한다.

기원암

덕골어구에서 200m가량 올라가서 서쪽으로 보이는 산말기에 있는 바위이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점잖게 서있는데 앞에는 불길이 타오르는듯 한 키낮은 바위가 있어 마치 향불을 피워놓고 무엇인가를 비는것 같다.

계명봉

계명봉은 기원암을 지나 1km 들어가서 동쪽에 솟아있는 바위봉우리이다.

계명봉을 전체적으로 보면 흉물스러운 괴물과 같다.

옛날에 이 바위짝대기에서 닭이 울었다고 하여 계명봉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그러하듯이 기슭에는 암닭모양의 바위가 있고 그앞에는 구렁이모양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들에는 《암닭을 기다리다가》와 같은 동화풍의 옛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전설-

암닭을 기다리다가

옛날 덕골에는 다정히 지내는 오누이 산비둘기가 있었다.

다정한 오누이비둘기는 어느날 마을가의 풀밭에서 커다란 알 2개를 발견하고 한알씩 안아 계명봉에 있는 둥지까지 가져다 놓았다.

오누이비둘기는 그안에서 자기들보다 큰 비둘기가 나오지 않을가 하여 몸에 품어 깨워보았다. 20여일이 지난 후 까난것을 보니 노란색의 고운 옷을 입고 《삐용삐용》 노래를

부르면서 제법 통통 뛰여다니는것이였다. 한마리는 암병아리이고 다른 한마리는 수병아리였다.

오누이비둘기는 먹이도 날라다주고 물도 먹이였다.

두 병아리는 무럭무럭 커서 100날이 지나니 중닭이 되였다. 그사이 비둘기신세만 지고 산것이 미안하여 어느날 중닭은 《오누이비둘기야, 우리가 잘 날지 못하다보니 너희들 신세만 지고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도 제힘으로 살겠으니 마음놓고 세간을 내자꾸나.》 하였다.

그러는 중닭에게 오누이비둘기는 《신세랄게 있니, 우리는 아무데 가도 바위집이 있고 먹이도 있으니 걱정말고 그냥 이 집을 쓰고 살려무나.》 하고 강건너로 이사해갔다.

닭들이 계명봉중턱의 외진 곳에서 둘이서 살아가자니 적적하고 외로웠다.

그리하여 암닭과 수닭은 부부가 되여 가족을 늘이기로 하고 알을 낳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알은 스무날이 지나도록 불어나지 않고 언제나 한알뿐이였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암닭과 수닭이 망을 보니 동틀무렵에 구렝이가 닭알을 훔쳐가는것이였다.

닭이 기겁하여 소동을 피우자 구렝이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난줄 알고 《그만하면 그새 알을 실컷 먹었다. 이제는 기다렸다가 고기나 먹어야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병아리가 까나기를 기다리였다.

그후 암닭과 수닭은 스물도 넘는 병아리를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한날한시에 병아리들이 모두 없어진것이였다.

아무리 꼬꼬댁거리며 찾았으나 병아리들은 한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구렝이의 작간임을 알게 된 암닭과 수닭은 구렝이가 없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먼저 령감수닭이 외칠보 만물상으로 갔다.

만물상에 가보니 덕골과는 달리 세상 온갖 만물이 모여 화목하게 살고있었다. 경치도 좋으니 살기도 좋을것 같았다.

수닭은 이 좋은 곳을 두고 외롭게 산데다가 구렝이한테 귀여운 자식들을 다 잃은것을 생각하니 한시바삐 로친암닭을 데려오고싶었다. 같이 오지 않은것이 후회까지 났다. 그래서 수닭은 덕골쪽에 대고 《꼬끼요, 여보 로친네 꼬끼요. 여기가 좋소. 어서 오라구.》라고 목청을 돋구어 알리였다.

수닭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암닭은 《꼬꼬댁 꼬꼬 가겠소. 꼬꼬댁 꼬꼬, 조금만 기다려요.》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때 구렝이가 대가리를 들고 암닭의 앞을 막아나섰다.

《못간다. 너희들을 다 잡아먹자고 한것이 그만 네 령감을 놓쳤다.》

암닭은 질겁하여 《꼬꼬댁, 꼬꼬댁!…》 하며 아우성쳤다.

이때였다. 칠보산의 산천경개를 다스리던 산신령이 이 광경을 굽어보게 되였다.

《교활하고 악착한 놈, 네놈을 오늘에야 요정내게 되였구나. 천벌을 받아라.》 하고 뢰성벽력을 일구었다.

그리하여 온갖 못된 짓을 다하던 구렝이는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다. 그런데 이때 구렝이의 가까이에 있던 암닭은 곁불에 돌로 굳어졌고 령감수닭은 이런줄도 모르고 덕골의 암닭로친이 오기를 세월없이 기다리다가 수닭바위로 되였다고 한다.

모성암

모성암은 계명봉을 지나 남쪽의 작은 산말기에 있는 바위이다.

키가 큰 녀성이 젖먹이인듯한 아이를 추슬려 안았고 치마기슭에는 좀 큰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린것 같다. 또 어떤 아이는 곁에서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것 같이도 보인다.

옛날에 모성암의 앞 평지에 신혼부부가 살고있었는데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부부는 앞산의 모성암을 부럽게 쳐다보며 우리도 저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 애들속에서 살아보았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그들 부부에게도 첫 아이가 태여났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소원이라 부부는 기쁘기 그지없었다.

첫 아이를 낳아서부터는 돌도 되기 전에 내리내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수는 열둘이나 되였다고 한다. 이처럼 부부는 모성암처럼 한생을 자손들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경승봉

경승봉은 기본관광도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솟은 봉우리인데 그 모양은 두리뭉실하게 생겼다. 그러나 이 봉우리에 오르면 덕골에 펼쳐진 일만경치를 환히 볼수 있다고 하여 경승봉이라고 한다. 이곳 봉우리에 오르면 곳곳에 있는 기묘한 바위들을 볼수 있다.

대표적인 기암들로는 부감바위, 장군대, 유희대, 애동암, 꽃병바위 등을 들수 있다.

덕골탐승길

대형주차장과 소형주차장을 지나면 1㎞의 탐승길이 나있다.

탐승길 첫 입구의 자연바위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새겨져있다.

박족암(가재다리바위)

이 바위는 신통히도 가재다리같이 생겼다.

덕골에 가재가 많아서 가재다리바위가 생겨났는지 아니면 가재다리바위가 있어 가재가 많은지 하여간 덕골에는 가재가 많다.

덕골의 가재와 관련하여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살점을 바꿔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전설-

바뀌여진 살점

옛날 덕골에 아들을 장가들여 며느리를 맞은 한집이 있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무척 고와하였다.

어느해 삼복더위때 며느리는 너무 더워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고 내물에 첨벙 뛰여들었다.

이때 돌밑에 있던 몇십년 묵은 망돌만 한 왕가재가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짐승이야? 다른 짐승들은 입이 가로 째졌는데 이 짐승은 입이 내리째졌으니…

게다가 수염까지 더부룩이 난걸 보니 무슨 괴물이 분명하구나. 저 입에 물리면 솟아나지 못할테니 선손을 써야겠다.)

이렇게 단정한 가재는 큰 집게발로 며느리의 아래입을 꽉 집었다.

며느리는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며 어쩔바를 모르고있었다.

집에서 며느리를 기다리던 시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로 나가보니 그 모양이였다.

(가만 있자. 며느리를 그냥 잡아당기면 살이 상할것이니 물고있는 집게발을 씹어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시아버지는 입을 벌리고 물속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왕가재가 눈을 디룩디룩 굴리며 있다가 (이크, 이건 또 무슨 입이냐? 새하얀 이발에 수염까지 났으니 저 입에 물리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다른쪽 발로 시아버지의 입을 또 꽉 집었다. 그리고는 오늘은 먹이가 잘 생겼다고 눈이 불뚝해서 만족해하였다.

시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며느리를 떠받아내치고 자기도 겨우 나왔

다. 나와서 보니 가재다리집게에 오그랭이만 한 살점들이 붙어있었다.

시아버지는 돌로 가재를 쳐잡은 다음 그 살점 2개를 뽑아 며느리와 나누어 붙이였다.

다 아문 다음 시아버지가 고추장을 먹으려니 여느때없이 어찌나 매운지 이상하였다.

그래 며느리를 불러 물으니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아버님, 요새 저는 밑에서 지독한 담배냄새가 나서 못견디겠어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 말을 듣고서야 시아버지는 (아차, 살점을 바꾸어 붙혔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며 며느리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사이 다 아물어진 살점을 다시 떼낼수는 없으니 그대로 있는수밖에…

장군바위와 큰절바위

덕골탐승길에서 박족암 다음으로 보게 되는 바위들이다.

용맹한 무사가 위풍당당히 앉아있는듯 한 장군바위와 그 앞의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녀인이 장군을 향해 절을 하는듯 한 큰절바위.

그것은 마치 외적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고 승리의 개가높이 돌아오는 장군과 승전의 소식을 듣고 칠보산에까지 달려나와 큰절을 올리는 녀인의 모습 그대로 안겨온다.

덕골폭포

탐승도로를 따라 계속 오르면 폭포에 닿게 된다. 덕골폭포는 절벽바위로 된 량계봉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두개의 폭포이다.

량계봉의 남쪽에는 옥계폭포가 8m 높이에서 2단으로 꺾어 흐르고 서쪽에서는 상덕폭포가 10m 높이에서 흰보를 드리운것처럼 쏟아져내린다.

이 두 폭포를 합쳐 덕골폭포라고 한다.

덕골폭포의 앞에는 나무로 특색있게 지은 옥계정자가 있다.



상 덕 폭 포

환호봉

환호봉은 덕골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봉우리이다. 외적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우고 고향마을로 돌아오는 장군을 처음으로 맞아 환영하는것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곳 봉우리에서 볼만 한 기암들은 쌍지암과 서우암이다.

쌍지암은 환호봉의 남쪽에 솟아있는 바위이다. 쌍지암이란 두손가락을 펼쳐든것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2개의 바위중에서 실하게 생긴 바위의 높이는 46m이고 약한 바위의 높이는 45m이다.



쌍 지 암

약하게 생긴 바위는 땅면으로부터 3m 높이까지 가늘게 오르다가 몸통이 굵어졌는데 가는 아래부분은 어찌나 약한지 손으로 밀어도 부러질것 같다.

그런데 어째서 두손가락을 펼쳐들었는지? 덕골의 경치가 칠보산에서 첫번째는 못 꼽혀도 두번째 자리는 당당하다는 뜻인지…

사실 물과 돌의 경치를 꼽는다면 다폭동 다음에는 덕골을 꼽아야 할것이다.

서우암은 환호봉의 남쪽에 있는 바위인데 그 생김새가 마치 서우같이 생겼다.

아프리카열대지방의 동물 서우가 어떻게 되여 칠보산의 이곳에서 바위로 굳어졌는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은포골

은포골은 덕골의 서북쪽에 봉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는 골짜기이다.

북으로는 보촌천, 남으로는 산봉, 서쪽으로는 필봉, 동쪽으로는 경승봉을 경계로 이루어져있는 참으로 경치좋은 곳의 하나이다.

옛날에 중이 길을 잃고 쉬여

갔다는 도월암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가면 남쪽 산기슭으로는 삽을 세워놓은것 같은 가래바위, 목고채와 같은 채바위가 있다.

은포골로 더 들어가면 골짜기의 오른쪽 릉선에는 10m의 높이를 가진 로인암이 서있다. 바위표면이 터실터실한것이 몹시 수척한 늙은이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가 래 바 위

선의암

선의암은 은포골 깊숙이 자리잡고있는 바위이다.

채바위에서 2km정도 들어가면 동쪽의 산릉선에 가마바위전설에 나오는 신랑이 굳어졌다는 속인암이 나타나고 속인암을 지나 좀더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복판에 절벽으로 높이 선 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선의암이다.



선 의 암

옛날 선녀들이 속세의 래왕이 적은 은포골의 옥담에서 미역을 감을 때 이 바위에 옷을 벗어 걸쳐놓았다고 하여 선의암이라고 한다.

선의암밑 골짜기에 들어서면 5개의 바위가 일어선 5형제바위에 이르게 된다.

은포와 옥담

은포와 옥담은 5형제바위를 지나 골짜기의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폭포와 담소이다.

6m의 높이를 가진 폭포는 골짜기에서 깊숙이 들어와 숨어있는듯 하다고 하여 은포라고 한다. 은포의 웃쪽에는 직경이 4m이고 깊이는 7.2m인 옥담이 있다.

상덕5담

5개의 못이 련이어 있다. 못사이의 간격은 30m정도이고 각각 직경 5m, 깊이 1m이다.

맑은 물속으로 암반이 들여다보여 정갈한감을 안겨준다. 못두리에도 모두 암반이 깔려있어 휴식하기 좋은 곳으로 되고있다.

여기가 바로 황진 칠성골전설에서 나오는 5명의 선녀들이 와서 미역을 감았다는 상덕5담이다.

로적봉구역

로적봉구역은 북쪽의 5태봉, 남쪽의 보촌천, 서쪽의 까치봉을 경계로 로적골을 따라 휘우듬하게 이루어진 외칠보의 명승구역이다.

기본관광도로에서 덕골구역은 남쪽이라면 로적봉구역은 북쪽으로 전개되고있다.

로적봉구역의 바위들은 특이하게도 화강암으로 되여있어 바위들이 희게 보이는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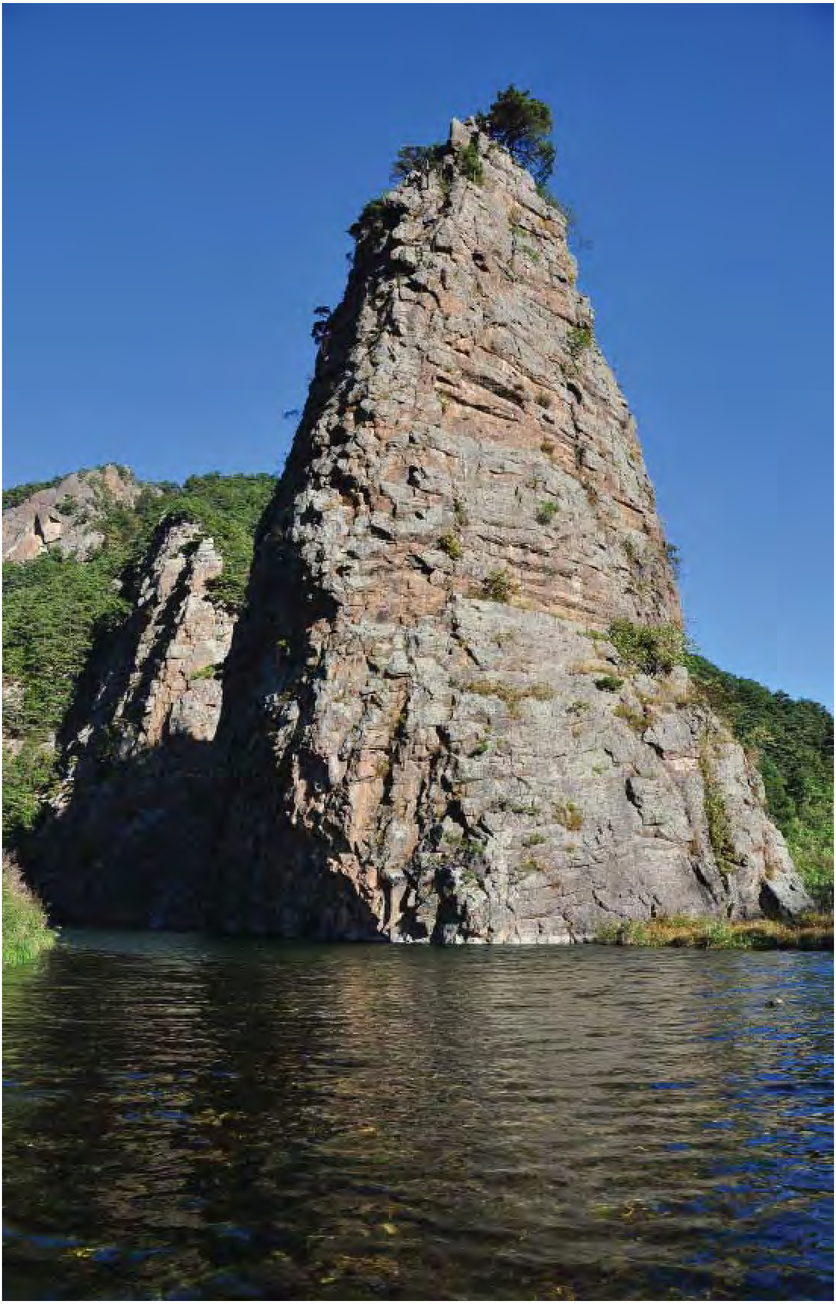
이곳은 폭포경치 또한 이채로운 곳이다.

로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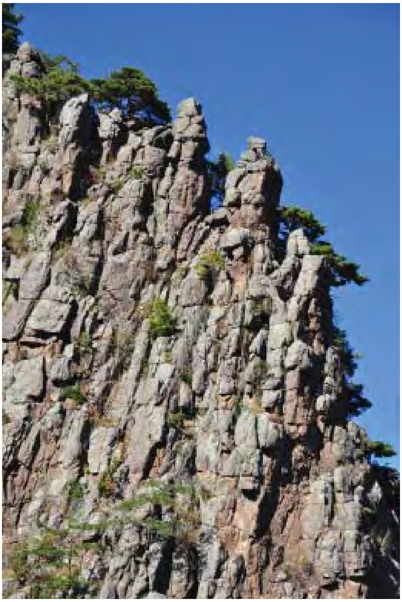
로적봉은 보촌천하류의 로적골입구에 있는 바위봉우리이다. 봉우리의 높이는 57m이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봉우리는 그 바위면이 거북등처럼 갈라터진 틈결로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로적가리로 인정할만큼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고있다.

로적봉은 화강석의 틈결형성과정과 백두화산대의 지형연구자료로써 큰 의의가 있고



로 직 봉



로적봉의 기암들

또 풍치가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다.

풍돌바위

풍돌바위는 로적봉과 서쪽으로 잇닿아진 등말기에 있는 바위이다.

3개의 돌이 층층으로 쌓여있는 바위는 아주 묘하게 련결되여있다.

더우기 맨 웃층에 놓인 돌의 밑굽은 뾰족하여 약간만 다치여도 굴러떨어질것 같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뱅뱅 돌아갈것만 갈다고 하여 바위이름도 풍돌바위라고 부른다.

풍돌바위를 멀리서 바라보면 신통히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데 농민이 로적가리를 더 높이 쌓을 생각으로 허리춤에 손을 얹고 로적봉을 바라보는 것 갈다.

창고암

창고암은 로적봉에서 서쪽으로 내린 산줄기를 따라 약 100m되는 곳에 있는 바위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이곳 릉선에 드러난 바위의 모양이 마치 창고처럼 생겼다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다.

바위벽을 이룬 창고암밑에는 깊이가 5m인 바위동굴이 있는데 이 굴을 미곡굴이라고 한다. 미곡굴의 이름은 로적가리의 곡식을 찧어서는 이 굴에 보관하였다는 전설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2단폭포

2단폭포는 로적봉입구에서 로적골로 2㎞정도 들어가있는 폭포이다.

풍치아름다운 개울 한복판의 벼랑진 바위벽을 타고 쏟아지는 폭포수는 바위벽의 구유통

갈이 패인 홈을 타고 8m쯤 흘러내려 큰 항아리같은 담소를 이루었다가 다시 8m쯤 되는 바위벼랑으로 쏟아진다.

폭포밑에는 소담한 소가 있는데 담소의 물은 주위에 있는 단풍나무, 소나무들이 반사되여 수정같이 맑으면서도 검붉게 보인다.

거석폭포

거석폭포는 2단폭포로부터 탐승길을 따라 1km정도 올라온 곳에 있는 폭포이다.

2단폭포의 아름다운 풍치를 보고 골안으로 들어서면 개울을 막으려는듯 집채같은 바위들이 놓여있는데 바위밑으로 개울물이 숨박곡질하듯 이리저리 흐르다가 나타나군 하는 누운폭포가 있다.

그 모양이 특이한 운치를 나타내면서 큰 바위밑으로 흐르는 폭포라고 하여 거석폭포라고 한다.

6단폭포

6단폭포는 거석폭포에서 1km정도 들어가서 있는 폭포이다.

하늘에 달린듯 높은 곳에서 6개의 계단을 이루면서 흘러내리는 6단폭포가운데서 어떤것은 선폭포로, 어떤것은 누운폭포로 되기도 한다.

6단폭포의 총길이는 79m인데 그중 큰것은 25m, 작은것은 6m이다.

매 폭포마다에는 담소들이 있어 로적골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더우기 물량이 많은 7~8월 장마철 6단폭포의 전경은 일대 장관일뿐아니라 그 폭포소리 역시 온 골안을 뒤흔든다.

맨 꼭대기에 올라서면 3m의 깊이를 가진 담소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 모인 물이 아래의 6단폭포를 이루면서 떨어진다.

귀면암

귀면암은 6단폭포의 오른쪽 산허리에 있는 바위이다.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덧붙어있는 모양은 통채로 보아도 여러모로 하나하나 뜯어보아도 괴상하게 생겼다. 귀신같은 형상이라고 하여 귀면암이라고 한다.

맨우에는 덕지가 진듯 한 바위 하나가 기우뚱하게 놓여있는데 그 정점에 작은 소나무 한그루가 자라고있어 신기함을 더해준다.

강선문구역

강선문구역은 동쪽은 보촌리소재지, 북쪽은 좌상봉, 남쪽은 절골, 서쪽은 덕골을 경계로 이루어진 외칠보의 명승구역이다.

강선문구역은 깎아지른듯한 층암절벽과 기암들로 수풀을 이룬듯 한 산악미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다.

이 구역에 펼쳐진 명소들은 올려다보는것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굽어보는것이 더욱 좋다.

석림봉

석림봉은 보촌리소재지인 현암마을에서 절골로 4km 들어가서 솟아있는 바위봉우리이다.

갖가지 형태를 갖춘 기암들과 기세차고 장엄한 통바위들이 수풀처럼 우뚝우뚝 솟아 바위산을 이루고있다.

마치 바위가 숲을 이룬듯 하다고 하여 석림봉이라고 한다.

옛날 석림봉기슭에는 석림사라는 절간이 있었기때문에 이곳 골짜기를 절골이라고 한다.

7곡8릉

7곡8릉은 석림봉에 형성된 7개의 골짜기, 8개의 등마루라는 뜻으로서 석림봉의 전반생김새를 이르는 말이다.

7곡8릉의 진면모는 높은 산등마루에 올라 굽어보아야만 알수 있다.

70m가 되는 가파로운 바위벽에는 200여개의 돌계단이 만들어져있는데 하나, 둘 셈세기를 하며 계단을 오르면 석림봉의 산릉선에 올라서게 된다.

봉마루에 오르면 남쪽비탈면에 형성된 7곡8릉의 절경을 부감하게 된다.

기암들이 솟은 등마루의 너비는 20～30m정도이고 골너비는 100m정도인데 7곡8릉의 총길이는 1km정도이다. 또한 릉의 평균높이는 골바닥으로부터 500m이며 그 경사도는 밑에서 400m까지는 60°정도이고 그 이상은 80°로 되여있다.

이처럼 급하게 경사진 릉들은 미끈한 바위벽으로 되여있다.

여름 장마철이면 일곱골짜기들마다에서 누운폭포들이 경쟁이나 하듯 쏟아져내리고 밀려드는 안개가 계곡을 누비며 오를 때 그우에 드러나는 8릉기

암들은 이 세상의 황홀경의 절정을 이루는듯 한다.

8릉의 매 릉은 기기묘묘한 바위들로써 특이한 경치를 나타내고있다.

대가리가 큰 물고기의 군단처럼 보이는 1릉의 홍치암, 양대가리를 비롯한 짐승의 무리같은 2릉의 수양암, 3릉의 보가지암, 4릉의 대구와 곰처럼 생긴 어웅암, 이것들은 모두가 무리를 지어 산릉선을 따라 치달아오르는듯 하다.

5릉과 6릉에서의 특이한것은 수많은 기발을 들고 전진하는것 같은 기발암과 톱날처럼 뾰족뾰족한 바위들의 무리가 반복되고있는 승렬암들이다.

6릉을 지나 7릉 가까이에는 커다란 자연돌문인 강선문이 있다.

7릉에는 덩지큰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8릉에는 앞서거니뒤서거니 한줄로 올리달리는 가재미들같은 바위들이 줄지어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7곡8릉을 다 넘어선 마지막에는 거부기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둔하게 보이는 곰바위가 있다. 이렇게 7곡8릉에 실린 기암들을 부감하고 나면 장엄하고 기세찬 석림봉은 실로



곰 바 위

바위로 숲을 이루고있구나 하는감을 강하게 받게 된다.

석림봉의 동쪽 산릉선에는 갖가지 짐승들의 모양을 이루고있다고 하여 짐승바위라고 불리우는 바위가 있다.

이곳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부엉이가 마주 앉아있는것 같고 그뒤로 커다란 다람쥐가 자랑이나 하듯 꼬리를 허궁 쳐든듯 한 바위가 있다.

그 다음에는 여우가 기는 모양을 하고있는데 교활하고 간사한 여우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짐승바위를 지나 북쪽의 산등성이에는 석림봉의 7곡8릉을 부감하면서 강선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같이 보인다고 불리우는 등산암이 있다.

강선문과 강선교

강선문과 강선교는 7곡8릉의 6릉과 7릉사이에 있는 자연돌문이다.

크기와 형태,아름다움에 있어서 보기 드문 강선문은 옛날 선녀들이 칠보산으로 내려올 때 통과하던 문이라는데서 생긴 이름이다.

강선문의 꼭대기는 궁륭식으로 되였는데 너비가 3～5m



강 선 문

인 바위가 가로놓여 다리모양을 이루고있다.

이것이 하늘의 선녀들이 타고내렸다는 강선교이다.

강선교로 오르는 길은 강선문의 서쪽에 있다.

이곳으로 바위를 휘여잡고 강선교에 올라서면 문밑으로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바위벼랑으로 하여 심장이 든든한 사람만이 오래동안 서있을수 있다.

하지만 구름, 안개가 7곡8릉에 휘감길 때에 강선교에 올라서면 하늘중천에 떠있는 선녀, 선남인듯 하다.

강선교에서는 멀리 포하, 교전앞바다가 보인다.

다폭동구역

다폭동구역은 외칠보의 제일 남쪽에 위치한 명승구역으로서 동쪽은 해칠보, 북쪽은 소일령, 남쪽은 삼계봉을 경계로 하고있다.

다폭동구역은 칠보산의 계곡미를 대표한다고 말할수 있는 곳이다. 이 명승구역은 폭포 아니면 담소이고 담소 아니면 폭포라고 말할수 있을만치 개울이 온통 폭포와 담소로 되여있다. 그래서 다폭동이라는 이름도 붙었는데 그 많은 폭포와 담소들은 다 자기의 독특한 모양과 미를 가지고있다.

실로 천만가지 물의 조화를 한데 모아놓은 폭포와 담소, 기암과 울창한 숲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은 칠보산계곡미의 으뜸이라고 말할수 있다.

또한 다폭동구역의 개울마다에는 너럭바위들이 깔려있어 좋은 휴식터, 놀이터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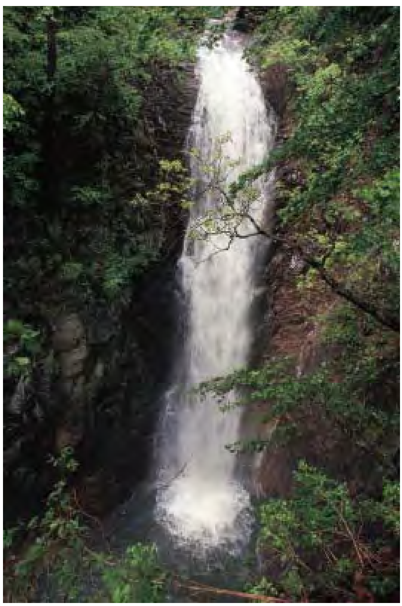
이 구역은 크게 룡소골과 운만대골의 명소들로 이루어져있다.

다폭동으로 가는 길은 두갈래이다. 하나는 포하리의 고진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운만대에 이르러 룡소골로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고진나루에서 서남쪽의 소일령을 넘어 룡소대로 가는 길이다.

룡소대와 룡소폭포, 룡소

룡소대와 룡소폭포, 룡소는 운만대의 서쪽 계곡인 룡소골안에 있는 바위와 폭포, 담소이다. 이곳에 룡이 살고있었다는 깊은 소가 있는데로부터 생긴 이름이다.

운만대에서 룡소골입구로 2km쯤 들어가면 길좌우에 낮은 산들이 겹치여있고 둥실둥실한



룡 소 폭 포

크고작은 돌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내린다.

왼쪽의 산릉선에 난 길을 따라 조금 더 오르면 룡소대우에 이르게 된다.

룡소대주변은 온통 너럭바위로 되여있는데 웃골안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이 너럭바위끝에서 곧은 폭포로 떨어져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룡소폭포이다.

이 폭포의 밑에는 예로부터 명소로 이름난 룡소가 있다.

룡소의 깊이는 8m인데 배모양으로 생겼다.

칠보산경내에서 가장 큰 폭포라고 할수 있는 룡소폭포는 온 골안을 뒤흔드는 폭포소리와 벼랑턱을 휘감고 떨어지면서 하늘로 오르는듯 한 룡의 형상으로 보이는 물줄기로 하여 사람들의 귀를 메이게 하고 눈을 황홀케 한다.

게다가 그밑의 담소에 떨어져 도가니처럼 끓어번지는 검푸른 물속에는 참말로 룡이 도사리고있는듯 기이한 경치를 나타내고있다.

폭포기슭의 벼랑에는 바위틈에 뿌리박고 자라는 참나무, 단풍나무, 철쭉나무를 비롯한 잡관목들이 폭포를 감싸고있어 어느때든지 보기 좋지만 특히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경치가 제일 아름답다.

룡소대와 룡소담에는 옛날 이붓어머니의 간계로 불행하게 생죽음을 당한 오누이가 요사스러운 계모를 보복하였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전설–

요사스러운 계모를 보복한 오누이

먼 옛날 이 룡소골에는 길주에서 부대기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그래도 어물도 나무도 흔한 바다가살림이 나을것 같아 이곳에 이사짐을 푼 젊은 부부가 살았다.

남편인 로두칠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너무도 어질고 숫된 젊은이였다.

그의 안해는 마음씨 착하고 방정하게 생긴 녀인이였고 남편에게 무한히 성실하였다.

젊은 부부는 외진 이 바다가마을에온 후 세칸짜리 새 집도 짓고 극성스럽게 일을 하여 논밭도 일구었다.

이들 부부에게는 오누이가 생기였고 부지런히 일한 보람으로 먹을것도 넉넉해졌다.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누이들이 피우는 귀여운 재롱은 이 집에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였고 웃음

이였다. 그러나 젊은 부부의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은 그리 길지 못하였다.

막내 계집아이가 5살 잡히던 해에 그처럼 착하고 복스럽게 생겼던 젊은 안해는 알지 못할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졸지에 숨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어진 남편은 하루아침에 홀아비가 되였고 그처럼 살뜰한 어머니의 애무속에 살던 오누이는 어머니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였다.

남편은 안해가 죽은 후 한 1년은 저세상 사람이 된 안해에 대한 그리운 생각과 그가 두고간 오누이의 가슴저미드는 불쌍한 정상이 마음에 걸려 자주 눈물을 흘리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봄 누이의 소개로 화대 상암마을에서 살던 젊은 과부를 후처로 데려온 후부터는 딴 사람이 되였다.

워낙 지나치게 어지고 말이 없는 사람이고보니 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잘하고 남자로서는 주대가 없는것이 로씨에게 있어서 큰 흠집이였다.

그가 후처를 맞아온 다음 딴사람으로 된것은 울적하던 마음이 풀려서 그렇게 되였다기보다 요염하고 매정하게 생긴 후처의 요사스러운 응석에 녹아버린때문이였다.

후처를 데려온 다음에 로씨는 친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오누이에게 친아버지로서 따뜻한 정을 주며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붓아버지가 되고말았다.

어진 로씨를 새 남편으로 삼고 이 집에 들어온 후처는 마음이 간사스럽고 악하기 그지없는 녀자였다. 후처로 들어온 후 한 반년동안은 전처가 두고간 오누이에게 제 살이라도 베여줄것처럼 사랑해주는 척 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서부터는 오누이를 군더더기처럼 미워하였고 저녁이면 어리숙한 남편에게 갖은 험담을 다하며 아이들이 애를 먹인다고 고자질을 하였다.

로씨는 이 말을 곧이듣고 아이들만 나쁘다고 욕을 하였다.

독사같은 악한 마음을 먹은 후처는 자기 말만을 믿어주는 어리석은 남편의 무딘 눈을 리용하여 드디여 오누이를 없애버릴 무서운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무더운 여름철 어느날에 목욕을 시켜준다면서 오누이를 데리고 바다가로 나간 계모년은 오누이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들어가 머리채를 거머쥐고 머리를 눌러 바다물을 먹여 죽이려 하였다.

이때 덥장을 뜨려 나왔던 배군들이 배를 저어 가까이로 오자 계모년은 천연스럽게 아이들의 잔등을 밀어주는척 하였다.

얼마후에는 사내아이를 독에 가

두어 굶겨죽이려 하였다.

악한 계모년은 《얘야, 고방에 있는 독을 쌀독으로 쓰려는데 얼마나 큰지 가늠할수가 없구나. 네가 한번 독안에 들어가 보려무나.》 하며 사내아이를 꾀여서 독안에 가두어넣었다.

그런데 이때 마당에 들어서던 이웃집 할머니가 《이 집 고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누만. 사내아이가 광안에 들어가있는게 아니야.》 하는 소리에 흠칫 놀라 계모는 슬그머니 그를 독속에서 꺼내놓고말았다.

악착한 계모는 이듬해 봄에 오누이를 인적드문 룡소에 처넣어 죽일 무서운 흉계를 꾸미였다.

《얘들아, 오늘은 룡소골에 들어가 산나물도 뜯고 진달래를 꺾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자꾸나.》

오누이는 계모가 또 무슨 흉계를 꾸미는것 같아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으나 그의 앙칼진 욕과 매가 무서워 그를 따라 산에 올랐다.

룡소우의 아찔한 벼랑우에서부터는 상쾌한 폭포가 비단필을 드리운듯 《쏴-》 하는 소리를 지르며 떨어지는데 바위끝에는 연분홍 진달래꽃이 소담하게 피여있었다.

절벽우에 오른 계모는 오누이에게 절벽우에 피여있는 진달래꽃을 꺾어오라고 시키였다.

오누이는 독을 뿜는 계모의 눈총이 무서워 그의 말대로 진달래꽃을 꺾어오려고 절벽끝으로 조심조심 발밀이를 하며 나갔다.

그런데 이때 뒤에 서있던 계모는 오누이의 잔등을 콱 밀어버리였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100여길이나 되는 절벽우에서 룡소에 떨어져 죽었다.

그날 저녁 계모는 밭일을 나갔던 남편이 안마당에 들어서자 거짓넉두리를 하였다.

《아- 여보! 오늘 산나물을 하려고 룡소골에 들어갔다가 범을 만나 두 아이를 잃었어요. 엉엉-

그 모질고 사나운 범이 인정도 없지. 우리 아이들을 물어갔구려. 나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왔으니 당신을 무슨 낯으로 보겠나요. 엉엉-》

깜찍한 계모년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어리석은 남편을 속이였다.

《아! 글쎄 두 아이들을 범밥을 만들었으니 가슴아픈 일이구만. 허지만 그것도 산신이 그렇게 한것이니 어찌겠소. 아이야 앞으로 생길것이고 당신만이라도 살아왔으니 다행한 일이요.》

한동안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여 아무말없이 덤덤히 앉아있던 어리숙한 로씨는 도리여 계모를 이렇게 위로하였다.

이후 독사같은 계모는 거칠것이 없게 되자 살림이 더 재미나는듯 자

주 코노래를 부르며 돌아쳤고 갖은 교태를 부리며 남편앞에서 아양을 떨었다.

순박한 로씨는 요사스러운 후처년의 거짓애교에 녹아 전처가 두고간 불쌍한 오누이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가뭇 잊어버리였다.

룡소에서 물헤염을 치며 놀던 룡궁의 왕자는 물속에 빠진 오누이가 불쌍하여 곧 그들을 업어 룡궁으로 데리고갔다.

오누이로부터 악독한 계모에 의하여 생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룡왕은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면서 하늘나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오누이는 룡궁에서 물고기옷을 입고 7년간 잘 대접을 받으며 지내다가 검은 비구름이 몰려오고 사나운 폭풍과 우뢰가 지동치는 여름 어느날 청룡과 황룡이 되여 하늘로 올라갔다.

청룡과 황룡이 된 오누이는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이곳저곳 지상세계를 굽어보면서 한시도 악독한 계모를 복수할 생각을 잊지 않았다.

칠월칠석날 저녁 요사스러운 계모는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한해동안 헤여져살다가 은하수에 까막까치들이 놓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라는데 바다에 배놀이나 나갑시다.》 하며 로씨를 얼려서 운만대앞바다로 나갔다.

청룡과 황룡이 되여 구름을 타고 낯익은 고향땅우를 날아 에돌던 오누이는 마침 배우에서 아양을 떠는 계모와 숙맥이 되여 그에 맞장구를 치는 로씨를 발견하였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쌍한 생각도 들었으나 오누이는 바람과 구름을 몰아오고 벼락을 치게 하여 계모와 로씨가 타고있는 배를 파도에 말아 바다물 깊숙이 삼켜버리였다.

이렇게 복수를 하여 계모년을 수장해버리였으나 오누이들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누이는 너무도 일찌기 자기들을 외로이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생각과 악착스러운 계모와 이붓아버지로 되여버린 아버지에 대한 미운 생각으로 운만대의 하늘우를 떠나지 못하였다.

후세의 사람들은 운만대에 자주 바다안개가 끼고 무수단앞바다의 파도가 사납게 몸부림치는것은 불쌍하게 죽음을 당한 오누이의 원한이 사무치군 하여 일어나는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음록담

룡소대를 지나 웃골안으로 50m쯤 올라가면 개울 한가운데 복숭아모양의 아담한 소가 있다.

이것이 옛날부터 사슴 한쌍이 물먹으러 내려오군 하였다는

음록담이다.

바위벽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곳에 있는 이 담소의 깊이는 3.4m이고 넓이는 100m²쯤 된다.

담소우로는 휘우듬하게 생긴 바위벽이 있는데 그우로 흘러내리는 물은 한가운데에 이르러 불쑥 삐여져나온 바위에 부딪쳐 우산모양의 누운폭포를 이루며 소에 들어간다.

금직폭포

골짜기를 따라 120m 들어가면 왼쪽에 또 하나의 작은 골안과 합쳐지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의 왼쪽 골짜기로 조금 오르면 내가에 가로 질러있는 바위벽으로 쏟아져내리는 9m 높이의 폭포가 있고 그 밑에는 4m 깊이를 가진 담소가 있다.

이것이 금직폭포이다.

금직폭포를 지나 50m쯤 더 올라가면 16m 높이의 폭포가 나지는데 이 폭포는 6m의 누운폭포와 10m의 곧은 폭포로 이루어져있다.

누운폭포의 바위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수는 마치 은실을 늘여놓은것 같고 그아래 곧은폭포에서의 폭포수는 은기둥을 세워놓은것 같이 보인다.

골짜기를 따라 약 100m 더 올라가면 이번에는 높이 12m의 바위벼랑으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곧은폭포가 있다.

폭포수의 모양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같다고 하여 천우폭포라고 한다.

7~8월 장마철에 물량이 많을 때는 그 소리가 우뢰치듯 요란하여 온 골안을 뒤흔든다.

이 3개의 폭포를 모두 금직폭포라고도 이른다.

그것은 맨우의것은 실오리요, 가운데것은 실토리, 아래의것은 천폭과 같아 마치 하나의 방직공정처럼 보인다고 하여 부르는것이다.

2단폭포와 수렴담

2단폭포와 수렴담은 룡소골의 기본골짜기에 있는 폭포와 담소이다.

합수목에서 개울을 따라 100m쯤 올라가면 경사진 너럭바위우에 모양과 크기가 꼭 같은 2개의 누운폭포와 담소가 있다.

갖가지 나무들이 꽉 들어찬 울창한 수림을 배경으로 하고 각각 8m, 10m 높이의 누운폭포와 3m, 4.2m 깊이의 담소로 되여있다.

그리 높지 않은 2단폭포는 오랜 세월 물에 씻기여서 매끈매끈한 바위벽으로 맑은 물이 얇다랗게 미끄러져내리는 모양이 마치 비단실로 된 발과 같이 보인다. 그리하여 이 폭포의 맨 아래 담소를 가리켜 수렴담이라고 한다.

참으로 2단으로 된 누운폭포의 전경은 가볍게 드리워진 얇디얇은 흰 비단천을 푸른 담소에 넣어 물들이는것 같이 아름답다.

룡천암

룡천암은 상룡폭포로부터 50m 떨어진 왼쪽산릉선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 백룡담에서 재주와 힘을 키운 한 룡이 너무 성급하게 하늘로 오르려다가 앞의 바위를 대가리로 들이받아 구멍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바위이름도 룡천암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운만폭포

운만폭포는 다폭동의 남쪽 고개너머에 있는 폭포이다.

33m의 높이에서 곧추 떨어지는 폭포수는 그밑에 반듯하게 깔린 암반을 답새기는데 그 소리가 특이하게 들린다.

신의대군락

신의대군락은 운만대앞 로가 등판에 무리지어 자라는 신의대를 말한다.

예로부터 조선의 선조들은 이 신의대로 화살, 붓대, 낚시대 등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써왔다.

여름철 무연하게 펼쳐져 푸른 바다마냥 설레이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 하다.

운만대의 신의대군락은 조선의 대과식물가운데서 제일 북쪽 한계선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학술연구와 관상용가치가 크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있다.

소일령

소일령은 다폭동구역의 북쪽에 솟아있는 해발높이 431m의 령이다.

예로부터 다폭동을 보려면 해변가쪽에서는 반드시 소일령을 넘어야 하였다.

그런데 소일령의 북쪽 포하리로는 매우 경사가 심하여 오르고내리는데 하루가 걸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령이름도 소일령이라고 했다는것이다.

-전설-

원님의 갓에 떨어진 말똥

어느 여름날 고을의 원이 다폭동의 금직폭포를 구경하려 길을 떠났다. 머슴에게 견마를 잡히고 말에 올라앉아 건들거리며 오던 원은 소일령에 이르러서는 더는 말잔등에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경사가 너무 급한지라 뒤로 나자빠질 형편이니 원은 말에서 내렸다.

머슴이 말고삐를 쥐고 앞서 말을 끌고 말뒤로 원이 따라섰다.

한창 신고하며 령길을 톺아오르는데 원의 갓에 무엇인가 툴렁툴렁 떨어졌다. 원은 갑자기 비가 오는가 했는데 그 《비》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기였다.

《얘. 마당쇠야, 여기 소일령의 비는 왜 이리도 역한 냄새가 나는거냐?》

《아니, 나리님도 비는 웬 비오이까?》 하면서 마당쇠가 돌아보니 원의 갓우에 말똥이 떨어져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제야 영문을 알게 된 마당쇠는 《나리님, 그건 비가 아니라 말이 싼 똥이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처럼 말똥이 머리꼭대기에 떨어질 정도로 령은 경사가 급하게 이루어져있는것이다.

황진온천구역

황진온천구역은 외칠보의 북쪽에 위치한 명승구역으로서 동쪽으로는 조선동해를 끼고있고 남쪽으로는 송호고개, 서쪽으로는 새길령, 북쪽으로는 삼각봉을 경계로 하고있다.

황진온천에는 말그대로 온천이 많다.

칠선녀전설을 가진 폭포와 담소, 거기에 곳곳의 온천과 약수들이 있어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황진온천

황진온천은 51℃의 물이 초당 6~8ℓ로 솟아나는 온천이다.

황진온천물에 수소탄산이온, 염소이온, 나트리움이온과 류황성분이 들어있어 류황온천이라고 할수 있다.

류황온천은 피부병치료에 특효가 있고 신경통과 소화기계통의 병치료에도 좋다.

황진온천부근에는 42℃, 32℃ 되는 온천과 19℃ 되는 미온천(약수) 등 온천이 솟구치는 구멍이 12개나 된다.

황진온천은 지금으로부터

1 500년전부터 알려졌고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이곳에서 살던 정가성을 가진 사람이 목조욕탕을 세우고 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후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어느 한 자본가는 황진온천마저 빼앗으려고 꾀하였다. 그놈은 일제의 식민지법기관을 끼고 온천을 독차지하기 위한 기소를 하였는데 이때 놈들이 판결한다는것이 《정가는 지상권만 있다.

지하권은 없으니 그곁에서 온수를 뽑아쓰면 그만이다.》라고 하였다는것이다.

그래서 그 자본가놈은 황진온천의 기본용출구옆에 굴을 뚫기로 하고 숱한 로동자들을 강제로 일판에 내몰았으며 지어 발파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방울의 온수도 솟아나지 않았다.

지금도 뚫다가 그만둔 굴이 그대로 남아있다.

닭알약수

닭알약수는 황진온천의 기본욕탕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데 온도는 19℃이고 솟는 량은 초당 50g정도인데 장마철이나 왕가물에도 그 량은 변함이 없다.

물빛은 맑고 삶은 닭알냄새가 나는데 위장병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고로담

고로담은 황진온천에서 온수평골짜기를 따라 1㎞정도 들어가서 있는 담소이다.

고로담은 놀이터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너럭바위우로 수정같이 맑은 물이 누운폭포로 되여 흘러내려서는 바구니처럼 생긴 담소를 이루었는데 그 아래쪽으로 좁은 출구가 있어 고였던 물이 흘러내린다.

담소의 주변에는 덩지 큰 바위들의 틈새기에 나무들이 우거져있어 이곳의 운치를 돋구어주고있다.

솔밭

황진온천에서 남쪽으로 200m 떨어진 내가에는 평평한 지대가 펼쳐져있다.

이곳에 40～50년 묵은 소나무가 굵직굵직하게 서있고 변두리에는 새하얀 돌들이 깔리고 그 기슭으로 내물이 흘러내리고있어 놀이터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황진온천에서 온수욕을 한 다음 이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것은 참으로 인상이 깊다.

칠성골

칠성골은 황진만에서 서쪽에 이루어진 골짜기이다. 나루와 잇닿아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나루골이라고도 한다.

칠성골이란 옛날에 칠성당이 있던 골이라고 하여 불리워진 이름이라고 한다.

칠성골은 기본골짜기와 여러개의 작은 계곡으로 이루어졌는데 계곡마다에는 이채로운 폭포와 담소, 기암들이 많아 칠성골의 운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칠성골안에는 계절폭포, 옹배기담, 도담, 칠성폭포 등 명소들이 있다.

칠성골의 어구에서 2㎞정도 들어가면 두개의 크고작은 골짜기가 합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우뚝 솟은 바위모양이 배처럼 생겼다고 하여 륜선암이라고 한다.

륜선암을 보고 큰 골을 따라 들어가면 오른쪽에 50m의 경사진 바위벽으로 은실과 같이 곱게 흘러내리는 계절폭포가 나타난다.

가물철에는 폭포라고 말할수 없어 그 이름조차 없지만 7~8월 장마때는 하나의 곧은 폭포가 되여 장관을 이룬다.

계절폭포로부터 50m정도 아래골안으로 내려오면 위담이 있다.

사람의 위처럼 생겼다고 하여 위담이라고 한다.

사람의 위처럼 분문, 위, 유문의 순서로 생겼는데 위장을 품을 들여 그림을 그린다 한들 이처럼 생동하게는 그릴수 없을것이다.

칠성골의 기본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담소와 폭포들이 련이어 나타나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놓는다.

처음에 있는 담소가 옹배기처럼 생겼다는 옹배기담이다.

옹배기담에서 조금 올라가면 화강암의 바위벽으로 흘러내리는 6m길이의 누운폭포가 있고 그밑으로 복숭아처럼 생긴 도담이 있다.

도담을 지나면 3m길이의 소뿔담이 있고 그우로 칠성폭포와 이선담이 있다.

-전설-

이 선 담

옛날에 7명의 선녀들이 해칠보에 내려 솔도를 본 다음 이곳 칠성골까지 구경하고나서 더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욕을 하려고 하니 담이 2개밖에 없었다. 원래 선녀들의 법도는 서로 따로따로 미역을 감게 되여있었다.

의논끝에 그들중 맏이와 둘째가 이곳 칠성폭포우의 담소를 차지하기로 하고 다섯선녀는 상덕골의 5담으로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여 칠성폭포우의 두 담을 이선담이라고 하였다는것이다

칠성폭포

칠성폭포는 곧은 폭포로서 이 골안에서는 으뜸가는 명소라고 할수 있다. 14m 높이의 벼랑끝에서 내리꽂히는 폭포수는 물안개처럼 흰 갈기를 날리면서 그아래의 2.5m 깊이를 가진 담소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해칠보를 구경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칠성골안의 막바지까지 올라와 놀았다는 칠성폭포이다.

폭포의 우에는 길이 1.6m, 너비 0.6m로 한사람이 들어가 누울 정도의 꼭 같은 두개의 담소가 있다. 이것이 이선담이다.

* * *

외칠보의 넓은 지역에는 이상의 7개 명승구역밖에도 예로부터 명승지로 널리 알려져있는 선암구역과 룡연구역이 있다.

선암구역은 명천군 다호리에 있는 다곡동, 선암동의 명소들을 포괄하고있는 외칠보명승지의 하나이다.

이 명승지에는 조선에서 온도가 높은것의 하나인 다호온천과 삼복더위에도 얼음덩어리가 매달려있는 얼음굴, 전설이 깃들어있는 삼형제폭포 등 특이한 명소들이 있다.

룡연구역은 명간군 양천리와 립석리일대의 명소들을 포괄하고있는 외칠보명승지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예로부터 이름난 곳인 홍가동골안의 룡연과 기암괴석, 립석동의 선돌바위(립석)를 비롯하여 경치좋은 곳들이 많다.



해

칠

보

해칠보는 북쪽의 어랑단으로부터 남쪽의 무수단에 이르는 60km의 구간에 펼쳐져있는 바다가경치를 포괄하고있는 칠보산의 명승지이다. 그중에서 명소들이 집중되여있는 곳은 우동에서 무수단까지의 35km구간과 자연호수의 경치로 이름난 우동 북쪽의 명승지이다.

해칠보는 긴 해안선에 이루어진 바다기슭에 깎아지른듯한 절벽들과 각이한 모양의 기암괴석들과 바다우에 우뚝 솟은 기묘한 섬들이 출렁이는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있어 특이한 해안절경을 드러내고있다.

해칠보의 명소들은 아름답고 얌전해보이는가 하면 벅차고 용맹스러운 기상을 드러내고있어 녀성적미와 남성적미를 다 겸비한 명승지라고 할수 있다.

해칠보의 앞바다에는 명태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많아 예로부터 이름난 어장이 있으며 또한 이곳 해안가에서 나는 미역, 곤포는 칠보곽으로 널리 알려져있었다.

해칠보에 대한 기본탐승로정은 어대진포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남쪽의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명소들을 차례차례로 관광할수 있다.

그러나 내칠보, 외칠보를 먼저 탐승하고 해칠보를 보는 경우에는 보촌리소재지인 중평에서 유람선을 타고 그 북쪽과 남쪽의 해안절경을 엇바꾸어 볼수도 있다.

해칠보명승지는 그 지역적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솔도구역, 채화봉구역, 탑고진구역, 달문구역, 무계호구역의 5개 명승구역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솔도구역

솔도구역은 솔도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보촌리의 현암마을로부터 북으로는 채화봉구역의 복수단에 이르는 해안기슭과 바다우에 펼쳐지고있는 명소들을 보게 되는 해칠보명승구역의 하나이다.

줄바위

줄바위는 보촌리앞바다에 길게 놓여있는 바위들이다.

파도치는 바다물에 잠길락말락하게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바위가 한줄로 길게 놓였다고 하여 줄바위라고 한다. 300m가 넘는 줄바위는 더없이 좋은 자연방파제이기도 하다.

와룡칠봉

중평나루터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마치 세찬 파도로부터 보촌마을을 보호하려는듯 한 와룡칠봉의 모습을 보게 된다.

2㎞정도의 구간에 렬을 지은듯 7개의 봉우리들이 잘룩잘룩 한줄로 잇닿아 길게 늘어져있다.

그 모양을 자세히 보면 파도가 들이칠 때는 봉우리들이 굼실거리는것 같다.

그 모양이 마치 룡이 길게 늘어져 굼실거리고있는듯 하다고 하여 와룡칠봉이라고 한다.

와룡칠봉에는 청룡과 황룡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전설-

산신령의 벌을 받은 황 룡

아득한 옛날 조선동해의 물밑에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룡궁이 있었다고 한다.

룡궁의 룡왕에게는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공주가 갑자기 알지 못할 병에 걸려 생명이 위급하게 되였다.

의원들의 말이 공주의 병에는 바다약은 다 무효이고 오직 칠보산에 있는 산삼만이 효험을 볼수 있다는 것이였다.



와 룡 칠 봉

용왕은 인간세상에 나가야 하는 이 어렵고도 힘든 일을 청룡과 황룡에게 맡기였다.

청룡과 황룡은 다같이 용왕의 신하로서 한창나이였고 더구나 대바르고 참된 청룡은 용왕이 부마로 점찍어놓고있었다.

이것을 눈치채고 시기하여오던 황룡은 이번 기회에 청룡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만이 산삼을 가지고와서 용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둘이 간난신고하여 칠보산에 올라 산삼을 얻게 되자 황룡은 높은 바위벼랑에서 청룡을 밀쳐버렸다.

그리고는 용궁에 돌아와 용왕에게 산삼을 바치며 청룡은 벼랑에서 발을 잘못 디디여 떨어져죽었다고 아뢰이였다.

산삼을 쓰고 공주의 병은 나았으나 용왕은 청룡을 잊을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용왕은 황룡에게 다시 한번 더 걸음을 하여 청룡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한편 칠보산의 벼랑에 떨어진 청룡은 칠보산산신령의 도움으로 살아나 몸을 회복시키고있었다.

칠보산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을 날날이 알고있는 산신령은 대노하여 황룡이 해칠보에 다시 발을 붙이기가 바쁘게 천하가 뒤집힐 정도로 징벌을 안기였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남을 해치는 이놈, 칠보산의 벌을 받아라!》

힘찬 소리가 산발을 흔들고 무엇인가 내리치는 소리가 조선동해의 물기둥을 하늘로 치솟게 하였다.

황룡의 몸뚱아리는 일곱개로 동강이 나 해칠보의 기슭에 길게 놓였다.

이렇게 되여 와룡칠봉이 생겨나게 되였다는것이다.

무지개바위

무지개바위는 보촌마을앞 해변가에 있는 바위이다.

무지개모양의 한끝은 산비탈에 박고 다른 한끝은 바다물에 뿌리박고있는 바위는 참으로 기묘하게 생겼다.

반달같은 굴로는 파도가 밀려와 은빛꽃보라를 흩날린다.

무지개바위의 높이는 약 8m, 굴의 너비는 10m. 무지개다리모양의 굴웃부분의 너비는 2.5m정도이다.

무지개바위우에는 바위짬에 뿌리박고 오래 자란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이곳의 풍치를 더한층 돋구어준다.



무지개바위

산호암

산호암은 무지개바위의 앞바다에 있는 바위로서 옛날 이 바위밑에 산호가 많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산호암의 찰랑찰랑 물결치는 파도우로는 갈매기, 까막가마우지 등 바다새들이 날아예며 류다른 바다정서를 느끼게 해준다.

봉소진과 기둥바위

봉소진은 보촌천하구에서 백사장을 따라 북쪽으로 약 300m 정도 가서 있는 바다가이다.

크고작은 바위돌들이 바다기슭에 무수히 쌓여 파도치는 물결에 끝없이 씻기우고있는데 이상하게도 바위돌마다에는 벌둥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있다.

봉소진이란 말은 이런 바위들이 있는 곳에 생긴 바다가의 나루라는것이다.

봉소진뒤로는 평덕산줄기가 뻗어내려오다가 해안쪽낭떠러지에 수많은 돌기둥을 깎아 해

변가에 나란히 세워놓은듯 한 기둥바위가 있다.

마치 석공이 먹줄을 치고 다듬어세운듯 한 수많은 돌기둥 가운데 한 기둥돌만은 밑그루가 튀여나와 다른 바위에 기대여있다.

그런데 이 기둥바위우에는 기둥돌과 꼭같은 바위 하나가 있다.

축조봉

축조봉은 보촌천의 하구에서 얼마 떨어진 북쪽에 있는 절벽을 이룬 봉우리이다.

바위벽이 마치 각이한 형태와 크기의 벽돌로 벽을 쌓아올린것처럼 보여 축조봉이라고 한다.

축조봉을 지나면 골짜기가 나지는데 지난날 삼을 많이 심던 밭과 호수가 있는 골짜기마을이라고 하여 불리워진 마호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서는 칠성골의 기암봉우리들이 잘 들여다보여 해변가에서 외칠보의 경치를 감상할수 있다.

몽문암

목단봉이 해안가에 이루어놓은 절벽의 남쪽에 있는 바위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전설-

룡궁에 없는 산호

머나먼 옛날이였다.

룡궁에는 이 세상 별의별 보물이 다 모아져있었다.

룡왕은 이 보물장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바다에서 자라는 후손들에게 보여주군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룡왕의 귀에 조선동해의 해칠보에는 이 세상 그 어느것보다도 더 진귀한 산호가 있는데 룡궁의 보물장에도 아직 없다는 것이였다.

룡왕이 한 신하를 불러 어찌된 일인가를 알아보니 그게 사실이라는것이였다. 룡왕은 어찌 그럴수 있는가고 하면서 믿음직한 한 신하를 해동성국의 해칠보로 급히 떠나보내였다.

며칠동안 조선동해를 헤매다가 겨우 해칠보에 이른 신하는 너무 지친 바람에 한 바위에 걸터앉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백발로인이 나타나더

니 산호의 위치를 알려주는것이였다.

잠에서 깨여난 신하가 이상히 여기면서도 밑져야 본전인셈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니 정말 이 세상 본적없는 신기한 산호가 물밑에서 아롱거리는것이 보였다. 그는 그가운데서 제일 멋있는 산호를 뜯어 정히 싸안고 룡궁으로 가져갔다.

이처럼 꿈을 꾸고 산호보물을 얻은 곳이라 하여 몽문암이라 하였다는것이다.

은선굴

은선굴은 목단봉의 동쪽기슭에 있는 바위굴이다.

솔도의 경치를 즐기려고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왔다가 인적이 나면 이곳에 와서 숨군 하였다고 하여 은선굴이라고 한다.

솔도

솔도는 뭍에서 80m 떨어진 바다에 나앉은 섬이다.

묘하게 생긴 섬우에 키낮은 소나무가 다문다문 서있어 솔도라고 전해온다.

솔도는 원래 륙지와 붙어있었는데 오랜 세월 물결에 씻기워 허리가 끊어지면서 생겨난것이라고 한다.

섬우에 올라가면 한가운데가 뭉청 끊기여 섬이 2개로 갈라져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섬의 한가운데는 휑하게 구멍이 났는데 이것을 룡굴이라고 한다.

룡굴에 내려서면 파도가 바위벽을 치며 흘러들어 맑고 청청한 못을 이룬 속에 물고기들



솔 도

이 헤염치는것을 볼수 있다.

솔도밑에서부터 섬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계단이 만들어져있어 쉽게 오를수 있다.

솔도는 섬이 기묘하게 생긴데다 섬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 또한 절경이여서 예로부터 이름난 곳이다.

풍치가 아름답고 기묘한 솔도는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여있다.

솔도에는 채장수전설이 깃들어있다.

-전설-

바다룡을 요정낸 채장수

아득한 옛날 해칠보의 북쪽 외진 부향이라는 자그마한 바다가마을에 채씨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있었다.

그는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는 매생이를 타고 노상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다 팔아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갔다.

어느덧 채씨총각은 열여덟살이 되여 장가들 나이가 되였다.

채사공은 부향으로부터 70~80리가량 떨어져있는 명간천기슭에 있는 마을의 처녀와 결혼을 하였다.

잔치를 한지 닷새가 되는 날 밤이였다. 이날밤 자정이 넘어 깊은 잠에 들었던 신부는 신기한 꿈을 꾸었다.

채사공은 아름다운 신부를 정겨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품속에서 눈부신 빛을 뿌리는 붉은 구슬을 꺼내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이 구슬은 우리 집에서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인데 이제는 당신이 우리 집사람이 되였으니 이것을 품속에 잘 간수해주오.

나야 노상 바다에 나가 사는 사람이니 혹시 실수하여 바다물에 떨굴가봐 걱정이 되여 당신에게 넘겨주니 소중히 간직해두기 바라오.》

새색시는 황홀한 구슬을 남편으로부터 두손으로 받아쥐고 이리저리 굴리며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구슬밑에 먼지같은것이 묻어있는것이 보이였다.

그래 앵두같은 두 입술을 모두고 《훅-》 입김으로 불었다.

입김을 한껏 내보내고 숨을 들이쉬면서 입을 벌리는 순간 구슬은 젊은 안해의 목구멍으로 날아들어갔다.

새색시는 남편가문의 귀중한 보물인 구슬을 경망스럽게 손바닥우에 놓고 장난을 하다가 삼켜버리였다는 죄스러운 생각과 함께 그것이 가슴에 걸려 죽게 되였다고 몸부림쳤다.

한참 몸을 비틀다가 깨여보니 신

기한 꿈이였다. 한동안 안깐힘을 쓴 모양으로 새색시의 몸은 식은 땀으로 눅눅하였다.

이때로부터 태기가 있어 젊은 안해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할머니들은 애기밴 젊은 색시의 뒤허리를 보며 범같은 장수를 낳을것 같다고 혀를 차며 기뻐들 하였다.

드디여 해산할 날이 가까와왔다. 남편은 낙지잡이철이라 여러날 바다에 나가있었다.

안해는 혼자 친정에 가서 몸을 풀기로 하고 길을 떠났다.

젊은 안해는 숨가쁘게 령마루에 올라섰으나 아래배가 처지면서 동통이 와서 도무지 발을 옮길수가 없었다.

그래서 길손들의 눈이나 피하려고 령길로부터 여라문발자국 떨어져있는 바위밑으로 가서 치마를 풀어서 펴고 앉았다.

얼마후 바위우로 하얀 안개가 덮이고 하늘우로는 령롱한 칠색무지개가 걸리였다.

새 생명의 출생을 알리는 애기의 야무진 울음소리가 산간의 정막을 깨뜨리며 울리였다.

젊은 어머니가 애기를 안아 일으키니 어린아이는 이미 돌을 지난 아이처럼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고 사람을 알아보며 생글생글 웃고있었다.

애기어머니는 너무도 신기하고 꿈만 같아 자기 살을 꼬집어보기까지 하였으나 엄연한 현실이였다.

이때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이른 봄날 령마루우에 무지개가 비낀것을 보고 신기한 일이라고 떠들썩하였다.

몇명의 젊은이들은 무슨 일인지 직접 제눈으로 확인하고싶은 호기심에 끌려 령마루로 달려올라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고개마루의 큰바위우에는 황소같은 큰 범이 떡 버티고앉아있어 령마루까지는 올라갈수 없었다.

젊은이들은 산에 무지개가 비끼고 고개마루에는 산의 령물인 범까지 나타난것으로 보아 거기에서 필시 범상치 않은 일이 생긴게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되돌아 내려왔다.

얼마후 애기어머니는 산모같지도 않게 몸이 거뜬하고 날아갈듯 한 기분이여서 애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려 하였다.

이때 갑자기 범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며 그 아이는 산신령이 너에게 준 아이이니 이 바위우에 놓고 가라고 하였다.

《새애기야, 걱정하지 말고 그 귀동자는 다 클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라. 하루에 둬번씩 이곳에 와서 젖이나 먹이거라. 애기의 머리카락 한오리 다치지 못하게 그 범이 지켜줄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령길로 잇닿은 산발 저편에서 산울림하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애기어머니는 분명 산신령의 엄명이라 생각되여 애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애기어머니는 산신령의 분부대로 하루에 아침, 저녁 두번씩 령마루에 올라와 애기에게 젖을 먹이였다.

애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더니 아홉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키와 몸이 대여섯살난 아이만큼 커졌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세상에 태여난 때로부터 16년이 되는 해 봄에 아이는 힘장수가 되여 드디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채사공의 아들은 힘이 셀뿐아니라 날씨와 앞일까지 멀리 내다보는 예지와 무술까지 소유한 지혜롭고 용맹한 청년으로 자랐던것이다.

그는 천기를 하루나 사날씩 앞질러 신통히 알아맞추었다.

다음날 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사나와질것이 예견되면 남몰래 밤중에 바다가에 나가 고기배들을 뭍으로 끌어올려놓았다.

그는 힘이 어찌나 센지 배에 걸어놓은 바줄을 발가락에 걸어 슬슬 끌어당겨 모래불우에 고기배들을 올려놓군 하였다.

《간밤에 누가 이런 일을 하였을가? 이것은 필시 오늘 파도가 사나와질것 같으니 배를 상하지 않게 막아주려는 착한 사람의 소행같네.》

다음날 아침에 고기잡이를 떠나려고 바다가에 나왔던 오랜 배군들이 하는 말이였다.

채사공의 아들이 천기를 내다보고 한 일인줄 모르고 《이건 어떤 놈이 남의 배를 함부로 뭍에 끌어다놓았어.》 하며 배를 다시 바다물에 띄우고 고기잡이에 나갔던 젊은 축들은 풍랑을 만나 봉변을 당하군 하였다.

이후부터 해칠보의 사람들은 배가 뭍에 올라와있으면 날씨가 사나와진다는것을 알고 고기잡이에 나가지 않았다.

채사공의 아들은 이처럼 천기를 내다보는 예지를 가지고 해칠보배군들의 생명을 남모르게 지켜주었다.

채사공의 아들이 힘장수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온 해 가을이였다.

바다가에 나갔던 채사공의 아들은 금시 바다에서 들어온 배에서 펄펄 뛰는 물고기를 부리는것을 보았다.

생생한 물고기를 보는 순간 채사공의 아들은 신선한 물고기를 넣고 끓인 생선국생각이 간절해졌다.

《물고기를 잡아오느라고 수고했소다. 생선국생각이 나서 그러니 송어 한마리만 주시우다.》

채사공의 아들은 주인에게 공손히 사정하였다.

《이게 어떻게 잡아온 고기라고 막 선심을 써. 젊은 녀석이 렴치도 없슴메.》

감때사납게 생긴 배주인이 눈을 흘기며 건 욕을 퍼부었다.

채사공 아들의 얼굴은 금시 소나기를 퍼부을 하늘처럼 험악하게 검붉어졌다.

그는 아무말 없이 배군들이 타고 있는 배를 가볍게 들어다가 멀리 양화로 넘어가는 장승바위 꼭대기우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은 모두 희한한 일이라고 혀를 찰뿐 높은 장승바위 꼭대기우에 올려놓은 배를 내려놓을 엄두도 못내였다.

이렇게 되자 배주인은 용서를 빌며 앞으로 생선은 아무때든지 요구대로 줄터이니 제발 배를 바위꼭대기에서 내려놔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채사공의 아들은 채장수로 불리워지게 되였다.

채장수가 다시 함경도일판에 소문이 퍼지고 채장군으로까지 불리워지게 된것은 이때로부터 몇해 지난 어느해 여름이였다.

한여름이 잡히면서 칠보산은 암록색의 무성한 록음으로 뒤덮여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였다.

찌는듯 한 삼복철이였으나 내칠보의 골짜기에 들어서거나 바다바람이 싱그럽게 불어오는 해칠보의 바다가에 나서면 더위를 느끼지 못하였다. 하여 여름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명승을 구경하려고 칠보산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바다가사람들과 탐승객들을 불안케 하는것은 바다로부터 해적들이 기여들어와 재물을 략탈해가고 부녀자들을 붙잡아가는 참변이 이따금씩 일어나는것이였다.

그해 여름 어느날 밤, 수십명의 해적들이 배를 타고 칠보산의 바다가마을에 달려들어 불을 지르고 재물을 략탈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날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채장수는 무쇠몽둥이를 쥐고 나는듯이 해적들이 기여든 바다가로 달려갔다.

그는 먼저 무쇠몽둥이로 해적들의 배를 모조리 까부셔놓았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바다가로 달려나온 해적들을 쇠몽둥이로 후려쳐서 무리로 박살을 내여 쓸어눕혔다.

앞뒤를 분간할수 없는 어둠속에서 해적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찍소리도 못 지르고 채장수가 휘둘러대는 쇠몽둥이에 맞아 모조리 너부러졌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해칠보에 무적의 힘을 가진 채장군이 나타

났다는 소문이 함경도일판에 파다하게 퍼지였다.

채사공은 채장수가 갓 스물이 되는 해에 중평에 사는 어느 배군의 곱게 생긴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

채장수의 안해는 바다가에서 자라며 해풍에 끄슬리고 바다일에서 단련되였으므로 몸도 건강하고 일솜씨와 성격도 씨원씨원하였다.

어느날 채장수는 새색시를 데리고 솔도로 바다구경을 나갔다.

채장수는 싱그러운 솔향기를 풍기는 소나무들을 머리우에 이고 바다우에 떠있는듯 한 바위섬인 솔도우에 올라서서 망망한 조선동해를 바라보았다.

부연 안개가 서리여있는 하늘끝까지 펼쳐진 바다는 해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고있었다.

채장수도, 새색시도 아름다운 바다경치에 취하여 두손바닥을 채양삼아 이마에 대고 줄곧 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다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험상궂게 생긴 산발처럼 크고 긴 한마리의 룡이 물속에서 불쑥 솟아나와 벌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솔도우로 기여올라왔다.

바위가 갈라지는듯 한 이상한 소리에 채장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바위밑을 굽어보았다.

큰 대가리에 불을 뿜는듯 한 퉁방울눈을 가진 사나운 룡이 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자기를 덮치려고 달려들고있는것이였다.

채장수는 날쌔게 칼을 빼들고 솔도의 바위등판우로 기여오르는 룡의 대가리를 내리쳤다.

순간 룡의 대가리는 높이 뛰여오르더니 남쪽 멀리 날아가 떨어지고 룡의 몸에서 튀여난 검붉은 피는 바다가 절벽우에 튀여나 바위벽을 물들이였다. 채장수는 련이어 룡의 허리를 토막내여 남쪽 해변가에 뿌려던지였다. 이렇게 채장수는 솔도에서 사람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나운 바다룡을 단칼에 요정냈다.

지금 솔도가 두쪽의 바위섬으로 되여있는것은 채장수가 룡을 내리칠때 장검에 의하여 쪼각난것이고 두 바위사이의 룡굴은 칼에 맞은 룡이 바다밑으로 빠져나가려고 용을 쓸 때 생긴것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필봉밑도리를 쭉 갈라놓은듯이 丁(고무래 정)자형의 검붉은 색갈의 혈암줄기가 박혀있는 룡혈암은 장검에 맞은 룡의 피가 묻어 생긴것이고 보촌마을과 중평사이의 바다가에 뻗어있는 와룡칠봉은 이름그대로 동강난 룡이 쓰러져 돌로 굳어져 생긴것이라고도 전해온다.

무수단바다가의 룡두천은 칼에 잘리운 룡의 대가리가 날아와 떨어져 생긴것이라고 한다.

채화봉구역

채화봉구역은 솔도구역의 복수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으로 명천군의 추진포구에 이르는 해안과 바다우에 펼쳐진 명소들을 포괄하는 해칠보 명승구역의 하나이다.

채화봉구역은 백색규장암, 현무암, 비석암 등 다양한 암질들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바위색갈이 붉고 푸르고 누런색을 드러내며 마치 바위들에 채색을 한듯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는것이 특징적이다.

흑룡굴

바다물에 깊숙히 잠겨있는 바위벼랑에 반달처럼 우무러져 들어간 이 굴에서 옛날에 검은 룡이 살았다고 하여 흑룡굴이라고 한다.

매생이를 타고 굴에 들어가면 채광을 받지 못하는 굴의 절반높이까지에는 바다물이 들어차있어 컴컴한데 그야말로 그 어떤 괴물이 도사리고있을만한 굴이라는 인상을 질게 하여준다.

최석금바위

최석금바위는 흑룡굴이 있는 바위벼랑의 꽉대기에 있는 3개의 바위들이다.

매개 바위들의 모양을 따져보면 맨앞에는 키가 큰 중이 장삼을 드리워입고 바랑을 지고 산으로 오르고있고 그뒤로 아이를 업은 녀인과 강아지가 따라가고있는것처럼 보인다.

이 바위들에는 심술사나운 최석금지주에게 부처가 벌을 내릴 때 중과 며느리, 강아지도 돌로 굳어져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이 전설에 의하여 최석금바위로 불리워지고있다.

-전설-

돌로 굳어진 중과 녀인

어느해 초여름이였다.

석림사 중이 시주쌀을 얻으러 최지주의 대문밖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였다. 나이든 중은 가락맞은 웅글은 목소리로 불경을 외우며 《똑딱－똑딱－》 목탁을 두드리였다. 중의 념불과 목탁소리는 호젓한 큰 집의 정적을 깨뜨리며 안채에까지 들려왔다.

안마당에서 소풍을 하고있던 최지주는 중의 념불소리가 들려오자 시끄럽다는듯 얼굴부터 찡그리였다.

《저놈의 중이 어느때라고 시주받으러 다녀. 마을에서는 농량이 모자라 밭일도 못나가는데 공짜로 쌀을 얻으러 다녀.

얘 마당쇠야, 외양간에 가서 말똥이나 한바가지 퍼다가 주어라.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것밖에 없다고 하거라.》

머슴총각은 하는수없이 외양간으로 가서 다 깨진 바가지에 말똥을 담아가지고 대문밖으로 나갔다.

석림사 중은 이미 풍문을 통하여 최지주의 사람됨을 알고있는터였으나 시주를 청하는 자기를 차마 이렇게 대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과시 네놈은 인륜도 모르는 심술이 비뚤어진 고현놈이구나. 신성한 부처님을 모욕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석림사 중은 이렇게 혼자소리로 최지주를 저주하며 돌아서서 오솔길을 따라 나오고있었다.

이때 최지주의 며느리가 물동이를 옆에 끼고 달려나오더니 석림사 중을 불러세웠다.

《대사님! 잠간만 서주십시요.

우리 시아버님이 성미가 완고하여 그러하오니 부처님의 하해같으신 도량으로 용서해주기 바라나이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며 동이안에 감춰가지고 나온 뒤되가량의 좁쌀을 중의 동냥주머니에 쏟아넣어주었다.

며느리는 부엌안에서 문고리를 쥐고 시아버지가 머슴군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부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시주대신 말똥을 퍼다주라고 하는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되여 급히 쌀독에서 몰래 좁쌀을 퍼담아가지고 달려나와 대사에게 주었던것이다.

《부인은 쑥밭속에 피여있는 들국화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있구만. 내 기특한 부인과 아이를 위해서 하는 소리이니 내 말을 명심하여 듣기 바라오.

래일 새벽에 마루밑에서 개구리소리가 울리거든 얼른 애기를 업고 뒤산으로 올라오시오.

내가 산등판에서 기다리겠으니 꼭 그렇게 하시오. 만약 내 말대로 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루설하면 그대로 살아날수 없으리라는것을 알아두시오.》

석림사 중은 이렇게 엄한 말을 남기고 산으로 오르는것이였다.

석림사 중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끔하였다.

(부처에게 불공을 드릴 신성한 시주미를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말똥을 퍼다주라고 시킬가. 확실히 우리 시아버지는 마을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심술사나운 욕심쟁이로 변하였고

이제는 부처님의 천벌을 받을 행실을 하고있어.)

이렇게 혼자생각을 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이 집에 천벌이 내려지게 되리라는 무서움보다도 이 증오의 소굴에서 마을사람들이 미워하는 같은 족속으로 사는 자신이 더없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대사가 시킨대로 아이만을 업고 이 집에서 뛰쳐나가리라 결심하였다.

한밤을 뜬눈으로 새운 며느리는 마루밑에서 들려오는 개구리소리에 깜짝 놀라 아이를 둘쳐업고 살그머니 대문밖을 나섰다.

첫빛새벽안개가 느릿느릿 집주위를 에워싸고있었다. 동녘하늘에 호박빛노을이 비끼더니 대지의 어둠을 밀어내며 새날이 밝아왔다.

며느리가 산말기를 톺아오르며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아침저녁으로 뜨물을 주며 사랑해온 재빛강아지가 따라오고있었다. 강아지도 자기를 제일 사랑해준 그 녀인의 곁을 한시도 떨어질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산등판에 올라서니 그곳에는 이미 석림사 중이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부인이 집을 결연히 뛰쳐나온것은 잘한 일이요. 그럼 이제부터 내 뒤를 따라오시오. 집이 있는 곳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되오.》

이렇게 말을 마친 대사는 앞서 걷는것이였다.

며느리는 대사가 당부하던 말을 생각하며 그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오르고있었다. 앞서가던 대사는 잠간 서서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념불을 외웠다.

갑자기 먹장구름이 밀려와 하늘을 덮더니 퍼런 불이 번쩍 하며 집쪽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며느리는 대사의 분부를 깜빡 잊어버리고 집쪽을 돌아다보았다. 환하게 비치는 번개불속에 산아래를 내려다보니 집은 온데간데없고 집자리에는 큰 늪이 패인것이 보이였다.

최지주를 징벌하는 벼락을 치는 순간 며느리는 대사의 분부를 어기였으므로 중도 애기를 업은 며느리도 뒤따르던 강아지도 모두 돌로 굳어져버렸다고 한다.

채화봉

채화봉은 황진만을 따라 북쪽으로 1㎞정도 올라가서 해안절벽을 이루며 웅장하게 솟은 바위봉우리이다.

바위색갈이 대체로 희여스름하여 《흰바위》라고도 한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푸른색, 누른색들이 군데군데 섞이여있고 또 어떤것은 불그레하고 검기도 하고 회색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바위들이 채색을 띠고있어 한폭의 풍경화와 갈다고 하여 채화봉이라고 한다.

코끼리바위

코끼리바위는 채화봉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500m정도 가서 있는 바위이다. 코끼리가 코를 드리우고 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고 하여 코끼리바위라고 한다.

그러나 코끼리바위는 북쪽에서 바라볼 때와 남쪽에서 볼 때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북쪽에서 볼 때는 코끼리모양이 분명하지만 남쪽에서 보면 사나운 개가 입을 벌리고 무엇을 덮쳐들려는 모양이다.

직동폭포

직동폭포는 채화봉구역의 북쪽끝 명천군과 명간군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부향마을에서 서쪽방향으로 5리정도 떨어진 골짜기에 있는 폭포이다.

55m의 높이를 가진 직동폭포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폭포가 마치 하늘에 달려있는듯 하다.

폭포의 밑에는 담소가 있고 기슭에 날아갈듯 한 아담한 정자가 세워져있어 이곳에 올라 폭포의 전경을 감상할수 있다.

직동폭포는 폭포의 방향이 정확히 동쪽을 향하고있다는 뜻이다.

백리향군락

백리향군락은 채화봉구역의 북쪽 우동마을 앞산에 퍼져있다. 희귀한 향료식물인 백리향은 그 향기가 100리나 풍긴다는데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였다.



코끼리바위

탑고진구역

탑고진구역은 북으로는 진작봉, 남으로는 운만대포구에 이르는 바다가에 펼쳐진 명소들을 포괄하는 해칠보의 명승구역이다.

탑고진구역은 해안절벽이 깎아지른듯 높이 솟아있고 탑같은 기암들이 웅장하게 련련히 솟아있어 기세충천한 기상을 펼치고있다.

특히 포하리의 앞바다는 경치가 하도 좋아 지난날에는 돈있고 권세있는자들의 유흥지로 되였으나 오늘은 인민의 즐거운 유희터로 되고있다.

진작봉

진작봉은 솔도구역의 줄바위를 지나 남쪽해안에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진작봉의 절벽면은 불그레한 색을 띠고있고 겉면이 그물코처럼 잘게 터갈라져있다.

옛사람들은 이 모양을 보고 수천마리의 새들이 바위벽에 붙은것 같다고하여 진작봉이라고 하였다.

련대봉

련대봉은 포하리의 동쪽 해안가에 솟아난 봉우리이다.

옛날 이 봉우리의 서쪽에 못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못가에 련꽃이 한벌 덮이군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련꽃이 많이 피여있는 못가에 있는 봉우리라고 하여 련대봉이라고 불리워온다.

문필암(초대바위)

문필암은 포하천하구의 남쪽에 솟아있는 섬바위이다.

바위의 모양이 붓처럼 생겼다고 하여 문필암이라고도 하고 초불과 같다고 하여 초대바위라고도 한다.

문필암곁에는 작은 바위들이 있는데 그 모양이 벼루, 연적들같이 생겼다. 마치도 붓과 벼루, 연적 등 일식으로 갖추어진 서



문 필 암

예도구 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화공이 해칠보의 풍경을 그리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림공부를 더 하고 오기로 하고 두고간것이 바위로 굳어진것이라고 전해온다.

부처봉

부처와 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부처봉이라고 부른다. 봉의 북쪽릉선에는 참말 점잖게 앉아있는듯 한 부처바위가 있다.

고진

련대봉돌출부의 해안선을 에돌아가면 예로부터 어촌으로 이름난 고진에 이르게 된다.

고진마을에는 옛날 태씨성을 가진 어부가 처음으로 명태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탑고진

탑고진은 고진나루터에서 남쪽의 돌출부를 지나 자그마한 반원을 이룬 해안의 나루이다.

탑고진이란 말은 탑처럼 생긴 바위봉우리가 있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고 한다.

탑고진의 바다기슭에는 해칠보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여러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조약돌들과 모래가 쭉 깔려있어 해칠보유람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는 좋은 바다가놀이터로 되고있다.

옥화문

옥화문은 운만대부두의 동쪽 첫 어구에 있는 바위이다.

한쪽은 바위벽에 잇닿아있고



옥 화 문

한쪽은 바다에 뿌리박고 기묘하게 이루어졌다.

바위문은 오랜 기간의 바다물에 의한 깎임작용으로 다듬어져 마치 재능있는 석공의 재간이런듯 정교하고 아름답다.

달문구역

달문구역은 운만대에서 목진리를 거쳐 무수단에 이르는 바다가에 있는 해칠보명승구역의 하나이다.

달문구역은 기묘한 절벽이 아아하게 솟았는가 하면 아기자기한 모양새를 갖춘 명소들이 서로 어울리여 독특한 풍치를 보여준다.

성벽암

성벽암은 로가단의 남쪽해안에 있는 성벽처럼 생긴 바위이다.

현무암의 수평틈결로 바위벽을 이루고있는 성벽바위는 높이가 70m정도이고 길이가 300m정도로서 마치 돌로 정교하게 쌓아올린 성벽인듯 하다.

이 《성벽》은 그 어떤 해적들도 발을 붙일수 없는 천연의 요새와 같이 보인다.

삼묘암

삼묘암은 목진앞바다에 있는 섬바위이다.

바위의 높이는 7m인데 가운데 키큰 어미고양이가 앉고 량옆에는 새끼고양이가 붙어 재롱을 피우고있는것 같은 형상이다.

총석봉

총석봉은 목진나루의 남쪽, 삐죽나온 륙지에 솟아있는 바위봉우리이다.

총석봉을 이루고있는 바위들은 기둥식바위틈결을 이루고있다.

쭉쭉 일어선 바위들은 우로는 뾰족해지고 아래로는 부채처럼 넓게 펴져 기묘한 모양을 이루고있다.

총석봉앞의 바다기슭에 개바위가 있다. 곧추 세운 두귀, 움푹 패인 눈확, 삐죽한 주둥이 등 틀림없는 개의 형상인 개바위를 보고 활등처럼 휘여든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가느라면 신선암과 량주암 등 새로운 모양을 한 바위들이 나타난다.

랑주암

량주암은 신선암을 지나 해안가까이에 있는 바위들이다.

이 바위들은 부부가 서있는것 같은데 어쩐지 그들사이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 바위들에는 옛날 칠보산구경을 왔던 남편과 안해가 서로 싱갱이질을 하다가 바위로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전설-

끝날줄 모르는 싱갱이질

옛날에 구경을 즐기는 남편이 안해를 데리고 칠보산구경을 하며 해칠보까지 왔었는데 안해가 더는 구경을 못하겠다고 앙탈을 부렸다.

이제 선녀바위와 달문까지 보고나면 유람이 끝나겠는데 안해는 이제 더는 못걷겠다는것이였다.

남편이 그럼 혼자서 마저 구경하고 오겠으니 여기서 다리쉼을 하고있으라고 구슬렸으나 안해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남편이 떠나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애를 먹이는 안해에게 《에익, 당장 여기서 없어지지 못하겠소!》 하고 발을 구르며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는 쳤으나 남편은 차마 안해를 혼자 두고 떠날수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안해를 구슬리였는데 더는 못가겠다는것이였다.

가자거니 못가겠다거니 끝날줄 모르는 싱갱이질에 이들은 이곳에서 바위(량주암)로 굳어졌다고 한다.

절승봉

절승봉은 량주암을 지나서 나타나는 바위봉우리이다.

이름그대로 절승경개를 이루고있는 봉우리로서 온갖 조화를 다 갖추고있다.

봉우리우에 또 봉우리가 솟고 바위우에 또 바위가 솟아 남성적인 억센 기상이 나래치는듯 하고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들과 갖가지 꽃나무들이 철따라 절승봉을 장식하고있다.

아침해살이 비낀 절승봉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경관을 펼치는데 실로 해칠보의 또 하나의 만물상으로 꼽을만하다.

선남바위, 선녀바위

선남바위, 선녀바위는 절승봉을 지나서 있는 바위이다.

두 바위는 얼마간 떨어져있는

데 북쪽에 선 바위는 선남바위이고 바다가에 선것이 선녀바위이다.

하늘의 선남, 선녀도 이곳 절승봉의 경치가 하도 좋아 여기에서 바위로 굳어져 영원히 그 모습을 남겨두려는듯 하다.

-전설-

칠보산에 남은 선남, 선녀

옛날 칠보산구경을 내려왔던 선녀들이 하늘로 오를 시간이 다 되여 날개옷을 펴고 오르는데 은하선녀는 절승봉의 경치에 취하여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있다가 일행에서 떨어지게 되였다.

이때 옥황상제는 은하선녀를 데려오도록 운무선남을 내려보내였다.

해칠보의 절경을 하늘에서부터 굽어보던 선남은 그 황홀경에 흠뻑 취해버리였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는가. 그러니 선녀들이 지상에 내렸다가는 올줄을 모르댔구나.)

선남이 이렇게 생각하며 은하선녀가 있는 곳에 내리니 절경속에 앉아있는 은하선녀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답게 비껴 마음을 들먹이게 하였다.

선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댔자 구름만이 떠도는 단조로운 경치와 하늘세계의 규례에 따라 따분하게 있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선남은 산천경개 아름다운 이곳에서 은하선녀와 함께 살고싶었다.

《은하, 우리 여기서 함께 살지 않을래? 은하생각은 어때?》

불같이 토하는 선남의 목소리에 선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언제나 눈여겨보며 마음속깊이 묻어두었던 사랑의 감정이 분출되여 어쩔바를 몰랐다. 그러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은하, 왜 대답을 못해. 내가 싫어서는 아니겠지…?》

(아, 아니예요.)

하지만 처녀는 여전히 대답을 못하였다.

대답을 기다리는 선남,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모대기는 순진한 선녀, 이렇게 서있은것이 그대로 바위로 굳어졌다고 한다.

달문

한쪽끝은 바다물에 잠그고 다른 한쪽끝은 바위벼랑에 뿌리박고있는 달문은 높이가 19m, 길이가 12m, 너비가 3.5～5m되는 자연돌문으로서 그 생김새가 달처럼 생겨 달문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동해에서 뜬 달이 해칠보경치가 하도 좋



달 문

아 밤새껏 이곳 바위우에 떠있다가 낮이 되면 또 이곳에서 쉬면서 풍치아름다운 해칠보를 구경하였다고 한다.

설레이는 파도가 쉬임없이 달문안으로 흐르는 풍치는 사람들을 절로 신비경으로 이끌어간다.

무수단

무수단은 칠보산의 해칠보 남쪽끝에 있는 절벽바위로서 검붉은색의 현무암층이 78m의 높은 벼랑을 이루면서 바다쪽으로 삐여져나와있다.

무수단앞바다는 세찬 바람이 몰아쳐 사철 파도가 잦을 날이 없고 그 동쪽기슭에는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급한 바다물살이 바위벽에 부딪쳐 흰 물보라를 뿌리면서 파도가 소용돌이친다.

그것이 마치 춤을 추는것 같다고 하여 무수단이라고 한다.

무수단쪽대기에 올라서면 조선동해의 푸른 물이 펼쳐지고 밑으로는 사나운 파도가 바위벽에 부딪쳐 성난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갈기갈기 부서지는 장쾌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무계호구역

무계호구역은 칠보산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한 무계호와 그 주변의 이름난 곳들을 포괄하는 해칠보명승구역의 하나이다.

지방리산성

어대진에서 지방리로 가는 길을 따라 얼마쯤 가면 옛날 오누이장수가 나무가래로 흙을 파서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깃든

지방리산성이 있다.

지방리산성은 리소재지의 동쪽 2㎞ 떨어진 성덕이라는 곳에 있는데 골짜기를 끼고 고로봉식으로 쌓은 토성이다.

이 성의 동쪽, 서쪽, 북쪽은 높이 50m정도의 절벽으로 되여있고 남쪽으로는 무계호와 어랑천으로 흘러드는 개울이 있어 천연요새를 이루고있다.

무계호

무계호는 지방리산성의 남쪽 풍치수려한 곳에 동북-서남방향으로 길게 놓여있는 자연호수이다.

무계호는 록음이 우거진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 산수의 경치를 관북제일경으로 일러왔다.

호수의 물은 매우 맑으며 여기에는 백련어, 초어, 붕어, 잉어, 메기 등 민물고기들과 늪조개들이 자라고있다.

무계호에서 유람선이나 뽀트를 타고 노는것도 좋지만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내는 흥미도 그에 못지 않다.

창렬사비각

창렬사비각은 무계호의 남쪽 돌울타리안에 세워진 비각이다.

앞면이 3.3m, 옆면이 2.7m되는 비각은 2익공두공에 겹처마사각지붕형식의 정각으로서 여기에는 2개의 비가 있다.

이 비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비가 있는데 비각은 없고 다만 비석주위에 돌울타리를 쌓았을뿐이다.

이 세개의 비석은 모두 19세기 말엽에 세운것들이다.

부처바위와 부도바위

창렬사비들을 돌아보고 그 남쪽의 무계리소재지에 이르면 서쪽산마루에 마치 부처와 부도처럼 생긴 부처바위와 부도바위라는 기묘한 바위들이 있다.

여기서 어대진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해칠보의 해안절경을 탐승하게 된다.

봉사시설

외칠보려관

외칠보려관은 외칠보중심에 위치하고있다.

5개의 각으로 구성되여있는데 방수는 25개, 수용능력은 57명이다. 려관에서는 송이버섯료리를 비롯하여 천연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산채료리들을 봉사하고있다.

민박숙소

민박숙소는 해칠보의 해안가에 위치하고있다.

20개 호동으로 되여있으며 그중 유럽식은 6개 호동, 조선식은 14개 호동이다.

숙소에서는 해삼, 섭조개, 대합조개, 미역, 낙지를 비롯한 특색있는 해산물료리를 봉사하고있다.



민 박 숙 소

집필: 문성렵
편집: 안수영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ㄱ-7835057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



ISBN 978-9946-0-1663-4

조선 · 평양

주체106(2017)년